

The Lay-Driven Church

# 교회를 움직이는

# 평신도

멜빈 J. 스타인브런 지음  
서병재 옮김

Melvin J. Steinbron  
Author of *Can the Pastor Do It Alone?*

 평신도목회자연구회  
The Layperson Society



---

# 교회를 움직이는 평신도

---

The Lay Driven Church

Melvin J. Steinbron  
Author of *Can the Pastor Do It Aone?*

멜빈 J. 스타인브런 지음  
서병채 옮김



한국 평신도목회 연구소  
Lay Pastors Ministry Korea

# 추천사들

• "스타인브런 박사는 또 다시 뭔가를 해냈다. 이런 훌륭한 책에서 그는 평신도로 하여금 회중에 대해 목양돌봄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뭔가를 가르쳐준다. 우리는 여기 프레저 기념교회(Frazer Memorial Church)에서 평신도목회자 사역(Lay Pastors Ministry)을 5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것은 된다! 그리고 그것은 성서적이기 때문에 된다."

-존 마티슨 박사(Dr. John Ed Mathison)  
프레저 기념교회 담임목사  
몽고메리, 알라바마

• 이론가들은 좋다. 실천가들은 더 낫다. 그런데 멜빈은 양쪽이다. 그의 생각은 수정처럼 분명하다. 그리고 평신도에 대한 그의 신학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에서 생겨났다. 우리 모두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뭔가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책들을 읽는 것에 제한해야 한다. 이것이 분명히 그런 책들 중의 하나이다."

-짐 갈로우 박사(Dr. Jim Galow)  
스카이라인 웨슬리교회 담임목사  
레몬그로브, 캘리포니아

• "다음 세기의 전염적인(성장하는) 교회들은 오늘날의 전통적인 교회와는 아주 다를 것이다. 하나의 혁명적인 차이는 목양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정기적인 목양을 받게 될 것이다-은사를 받고 준비된 평신도로부터! 이 책은 이런 움직임을 수천만의 회중들에게 촉매작용을 하고 또 그들을 환기시킬 것이다."

-조지 헌터(George G. Hunter)  
에즈베리신학교 선교학 교수  
월모르, 켄터키

• "나는 항상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평신도를 자유롭게 해주는 이론을 믿어왔다. 교회를 움직이는 평신도라는 이 책에서 멜빈 스타인 브런은 이론을 사실로 바꾼다. 성서적인 원리들을 사용하면서, 그는 그 것이 일어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공한다. 이 책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상당한 격려가 된다."

-로버트 딕슨 박사(Dr. Robert W. Dickson)  
희망장로교회 원로목사  
리치필드, 미네소타

• "나는 20년 이상 멜빈 스타인브런 목회의 열매를 보아왔다. 그것은 선택된 것이다! 그는 단지 평신도들을 준비시키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였다. 이 책은 그들의 목회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목사들을 위해, 그리고 목회에서 돕기를 원하는 평신도들을 위해 훌륭한 도구가 된다. 멜빈은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쓰고 있으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목회적인 마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그가 상세히 설명하는 성서적 원리들은 작은 시골교회에서 그리고 큰 도시교회에서 가능하다. 그것은 당신의 교회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론 랜드(Dr. Ron Rand)  
목회연구소장

• "이 책 『교회를 움직이는 평신도』는 좋고 도움이 되는 책이다. 그 것은 목사들과 교회들로 하여금 준비되도록 하는데 격려할 것이며 목 양의 중요한 목회에 평신도들이 동역자가 되도록 해준다."

-신양탄 박사(Dr. Stan Yang Tan)  
풀러신학교 심리학 교수  
파사디나, 캘리포니아

• "효과적인 목회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 중의 하나는 성도가 증가 (multiplication)되는 것이다. 성서적이고 실제적인 이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성도를 늘리는 목회를 하도록 도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교회의 힘을 발사할 것이다. 목회에서 모든 것을 혼자하려는 목사들은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 이상 공급해 (afford)줄 수 없는 비성서적인 접근이다. 이 책 『교회를 움직이는 평신도』는 목회를 위한 에너지를 투하(releasing)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이 말하는 것(preaching)을 실천하면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되도록 힘을 방출하는데 사용된 배당금(지분)들을 다시 돌려 받을 것이다."

-켄트 헌터(Kent R. Hunter)  
창조적인 컨설턴트, 인디애나

• "평신도목회를 19년간 이끌어오는 동안 스타인브런 박사는 실제적인 노하우(know-how)와 함께 영적인 생명력(vitality)의 놀라운 혼합을 증명하였다. 이 책은 열정과 실천으로 시작된(originated) 그의 깊은 마음으로 당신을 들어가게 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그가 동행한다는 것이 그의 글(가르침)을 통해 분명히 나타난다. 이것은 교회지도자들과 평신도목자들(lay pastoral-care giver) 양쪽을 위해 감화를 주는 책이다."

-닐스 프리버그 박사(Dr. Nils C. Friberg)  
베델신학교 pastoral care 교수  
세인트폴, 미네소타

# 차례

저자 감사의 글 7  
서론 8

## 제 1 부 어떤 류의 교회가 그것을 취할 것인가?

### 1장. 필요를 인식하는 교회(A Needs-Conscious Church) 15

변화가 없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급진적이고 갑작스런 변화는 또한 죽음을 의미한다. 균형이 말이다.

### 2장. 은사활용의 교회(A Gift-Oriented Church) 26

만약 여성의 은사가 부업에서 포크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녀로 하여금 부업에서 포크를 사용하도록 하라.

### 3장. 평등적인 교회(An Equalitarian Church) 35

모든 크리스천들은 목회자들이다. 모두는 제사장들이다. 모두는 받았다.

### 4장. 목회균형을 유지하는 교회(A Ministry-Balanced Church) 53

대사명(Great Commen과 대한Charter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 5장. 성서적인 교회(A Biblical Church) 60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성경을 크리스천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에게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한 매개체이다.

### 6장. 살아 움직이는 교회(A Mobilized Church) 69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도록 한다.

### 7장. 실패를 막는 교회(A Failure-Resistant Church) 80

## 제 II 부 어떤 류의 사람들이 그것을 택하는가?

**8장. 결론: 그것을 취하는 교회의 종류(Conclusions: The Kind of Church It Takes) 91**  
그것은 될 수 있다. 평신도들로 그것을 하게 하려

**9장. 어떤 종류의 목사가 그것을 취할 것인가(What Kind of Pastor does It Take)? 95**  
목사들은 비전을 갖고, 행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지원을 해야한다.

**10장. 어떤 종류의 사람이 그것을 취할 것인가(What Kind of People does It Take)? 111**  
완전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생각하라

**11장. 왜 평신도들이 목양을 할 수 있는가(Why Lay People Can Pastor) 135**  
평신도는 목회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회를 주셨기 때문이다.

## 제 III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12장. 사람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줄 수 있는가? (How to Give Ministry to the People) 150**  
사람들에 대해 목회를 넘겨주는 것은 신적인 과정(divine process)이다.

**13장. 어떻게 이 목회가 당신의 교회에 맞을 것인가(How this Ministry fits in Your Church). 157**  
몇명의 세우는 사람들과 만나고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그의 나라를 세워 나가라

## 저자 감사의 글

내가 지난 수년을 통하여 봉사했던 교회들의 평신도들이 이 책을 쓰는데 일부분들이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목회 안에서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다. 그들이 나로부터 배우는 동안 나는 그들로부터 배웠다. 내가 그들을 지도하는(mentored) 동안 그들은 나를 지도하였다. 우리는 목회에서 어떻게 파트너가 되는가를 발견하는 동안 서로가 성장하였다.

나는 내가 봉사했던 교회들의 사람들을 상당히 존경하고 그리고 즐거운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위시콘신 엘스워트의 제일장로교회(First Presbyterian);  
미네소나 두르트의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Westminster Presbyterian);  
하와이 힐로의 하일리 회중교회(Haili Congregational);  
미네소타 세인트폴의 란돌프하이트 장로교회(Randolph Presbyterian);  
오하이오 신니네티의 칼리지힐 장로교회(College Hill Presbyterian);  
미네소타 리치필드의 희망장로교회(Hope Presbyterian),

이 책을 쓰는데 포함된 또 다른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세미나를 인도 한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바하마의 여러 교단들의 교회 속에 있는 헌신되고 유능한(competent) 평신도들이다. 또한 평신도목회자사역연 구소(LPM, Inc.)가 되기까지 나와 함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온 25명의 목사와 평신도들이다. 각각은 내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것이며,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어다! 느헤미야는 "나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모으라고, 그것을 나의 마음에 두셨다"라고 말했다(7:5). 나는 이 책을 쓴 몇 개월 동안 내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였다. '나의 하나님이 이 책을 쓰도록 내 마음에 그것을 두셨나이다.' 그(He)가 하셨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 서론

"이 책을 쓰는데 얼마나 걸렸느냐?"라고 나는 종종 질문을 받는다.  
"거의 20년이다."라고 나는 대답한다.

당신이 읽으려고 하는 것은 평신도목회자 사역에 대해 내가 오랫동안 안(steady) 관여했던 것에서 얻어진 것이다. 그것은 2000명이 넘는 우리 교인들을 돌보도록 한 1978년에 시작되었다. 그때 그것은 다른 교회들이 채택하거나 또는 이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그 다음에 그것은 나의 첫 번째 책,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 (*Can the Pastor Do it Alone?*-역자 번역했음)를 통하여 국내에 그리고 국제적으로 퍼졌다.

미네소타 리치필드(Richfield)에 있는 희망 장로교회 목회팀의 부교역자(part-time)의 위치에서, 나는 매일 목회에서 '어려움과 큰 기쁨'을 또 다시 알게 된다. 평신도목회자 사역의 창시자이며 평신도목회 연구소의 대표로서 나의 위치는, 나로 하여금 다른 교회들이 시작하고 관리하고 가끔 그들의 목회를 다시 시작하거나 또는 매장되는 것을 보도록 해주었다. 나는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바하마 등지에서 26개 교단들(그리고 많은 무교단 교회들)의 교회들에서 세미나를 인도하도록 초청 받았다.

계시록 2:7은 말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라." 점점 더 많은 교회들이 왜 이런 목회가 계속적으로 성장 하는지를 설명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 평신도목회자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의(His)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새로운 것들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두 번째 개혁"에서 그것의 위치(적재적소: niche)를 발견하였는데 회중적인 돌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모델에 의해 그것의 지속적인 가치를 입증하였다.

이 책을 쓰는 동안 계속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 "멜빈, 누구를 위해 쓰는 건가? 였다. 그 질문은 나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게 했다. 평신도목회를 위해 교회들과 사람들을 준비시키는데 내 목회의 거의 20여년이 바쳐졌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평신도목회의 아이디어에 헌신된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다.

이 책은 실제적이다. **행함**이 없는 **신학**은 열매가 없고, **신학**이 없는 **행함**은 방향(pointless)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나는 원리와 실천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평신도목회와 이론들에 대한 많은 좋은 책들이 나와 있다. 그러나 그것의 적용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많지 않다. 대개 놓치는 것(misssing)은 독자가 있는 곳(where the reader)으로부터 그/그녀가 되기를 원하는 곳(where he or she wants to be)으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이다 즉 비전(vision)으로부터 현실(reality)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다.

평신도목회를 시작하기 원하는 직업적인 그리고 자원적인 목회자들, 그리고 건강한 목회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책 안에서 그들이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단계들을 발견하



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갱신하 기 원하는 사람들은 쇠퇴하는 목회를 재건하거나 또는 다시 고무시킬 수(inspire) 있을 것이다. 어떤 장들(chapters), 즉 부록에서 나는 소위 Labs' 이라고 부르는 실험적인(laboratory) 경험들을 포함시켰다. 그들은 개인, 그룹, 또는 훈련 과정들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 책을 위한 초점은 거의 로마서 12장 6~8절의 내용 그대로 (verbatim)를 따온 것이다. 7 가지 목회 은사들의 각각을 나열한 후 "그 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게 하라"로 결론짓는데 "그로 하게 하라(let him)"를 반복한다. 그러므로 "다음 교회(Next Church)"를 위한 힘있 고, 혁명적이고, 새로이 개발될 다이내믹들은 **평신도로 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책의 중심되는 것(counterpiece)은 평신도에 의해서 회중적인 돌 봄의 시스템인 평신도 목회자 사역(LPM)이다. 목양은 전통적으로 목사 의 할 일(clergy turf)이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중요한 목회가 사람들에게 게 주어졌다. 나는 평신도들에 의한 목회를 분산(decentralization)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모세가 본보기(example)를 제공하였다. 이드로(Jethro)의 현명한 충고를 받아들여 그는 돌봄의 크기에서 그것을 줄여 (reducing)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care를 분산시켰다-한 지도자에 대해 10명씩 분담(출애굽기 18장을 보라).

비록 나의 모델은 평신도목회자 사역이긴 하지만, 같은 근본적인 원 리들이 모든 종류의 평신도목회들을 하는데 적용된다고 본다. 에베소 서 4장 11~12절에서의 성서적인 요청은 모든 목회들을 위해 모든 교회 들 안에서 모든 크리스천들에 의해 들려져야 한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 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 교단적인 지도자들, 신학교 교수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책이 임상적 사실(tried-and-true) 원리들, 사용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 계획들, 제안들, 모든 종류의 성서적 가르침들 과 도움들의 저장소(저수지)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아 래와 같은 목록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1. 그들의 교인들을 돌보는 것에 관하여 염려하고 있으며 어떤 모델(a working model)을 찾고 있는 목사들과/또는 평신도 지도자들:
2. 평신도목회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필요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beef it up)'을 보는 교회 들:
3. 그들의 회중들이 "서로 서로 돌보는 수준을 끌어 올리기(raise) 원하는 목 사들과 교회 제직 들
4. 특히 목양 부분에서 사역하는 신학교 교수들:
5. 그들의 사람들로 하여금 순수하고 효과적인 평신도목회를 위한 비전에 불 을 붙이기(to

igritel) 원하는 목사들:

6. 그들 그룹의 회원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훈련과 격려를 찾고 있는 작은 그룹의 지도자들 또는 행정가들,
7. 그들 반의 각 개인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어떤 간절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일학교 또는 성인반 성경공부(우리의 용어로 배우는 공동체들) 지도 자들과 교사들
8. 평신도목회에 관련하여 오늘의 교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최신 정보 (vital up-to-date)를 원하는 사람들,
9. 그들의 영적인 은사들을 목회에서 사용하기 원하는 '일반적인 사람들':
10. 평신도에 대한 어떤 분야에서든지 공부하거나, 글을 쓰거나 또는 프로젝 트를 하고 있는 평생교육(continuing education) 또는 박사과정 학생들.

평신도목회자의 중심적인 목회적 활동은 두(頭:머릿글자) 문자어 PACE에 둔다. 이 머릿글자(acronym)를 마음 속에 간직하는 것은 중요 하다. 당신이 다음 페이지들에서 평신도목회자에 대한 것을 읽을 때마 다 당신은 그림을 그리기(to get the picture) 위해 PACE를 생각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P: 평신도목회자들은 그들의 5~10 가정의 성도들을 위해서 정규적 으로 **기도한다**. (Pray)

A: 평신도목회자들은 그들의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필요할 때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시간을 낸다**. (be Available)

C: 평신도목회자들은 그들의 사람들을 최소한 한 달에 한번은 **접촉한다**. (Contact)

E: 평신도목회자들은, 그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방향으로 움직 이면서 최상의 **모범**이 되기 위해 애쓴다. (Example)

어떤 면에서, 이 책은 1987년 나의 첫 번째 책이 발간된 이래로 **평신도목회(LPM)**에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에 대한 최신 것으로 돕게 (serve)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것은 첫 번째(나의) 책을 넘어 서서 움직인다. 이런 수년 동안에 있는 중요한 발견들이 이 목회를 효과 적이고 장수(longevity)하도록 하는 새로운 극치(절정)를 가져오게 했 다. 그 발견 들은 다음과 같다.

1. 평신도목회는 된다는(works)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하고 있다.
2. 살아있는 어떤 것으로서 조정과 적응은 만들어져야(to be made) 한다. 경험, 새로운 통찰력, 평가, 그리고 시행착오(trial-and-error)에 기초한 변화들 은 필요하다.

3. 기도는 확실히 필수적이다!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 15:5) 라고 예수님은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다!
4. 알맞은 목양의 완전한 작용적인 서술인 PACE에는 순수함이 있었다.
5. "12가지 기반적인 블럭들'이 목회를 둘러싸고 있다. 만약 그들 중 어느 한 나라도 약해지기 시작한다면 전체목회는 위험을 맞게 된다. 이것은 7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6. 이 목회는 모든 크기(교회규모)의 교회들에서 가능(works)하다. 그것은 미 국의 49개 주들에서, 캐나다의 6개주에서, 호주의 5개 주에서, 바하마, 남 아공,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발견되었다.
7. 이 목회는 교회의 특별한 필요들과 사람들에게 적응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들이 구조를 채택하거나 적용하면서 원리들을 사용하기를 강조 했는데, 그것을 아주 똑같이 사용하는 두 교회도 없다. 어떤 교회는 창조적 으로 다르게 하고 있다.
8. 실패하는 목회들은 대개 특수한 이유들 때문에 실패한다.
9. 어떤 교회들은 그들의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 다른 형태들을 취하지만 평신 도목회자사역에 대해서는 입모아 인정했다.
10. 목회 문제들 중의 많은 것들이 모든 교회들에서 공통적이다. 두 개의 가 장 큰 공통점은 모집하는 것과 동기를 부여(recruiting and motivating)하는 것이다.
11. 교회들은 그들의 평신도목회자사역을 그들 전체 프로그램 속에 넣는 것 (position)이 필요하다.
12. 각 교회의 '문화'는 전체 목회들의 필요, 우선권, 그리고 생존능력 (Viability)을 결정한다.
13. 사랑이 이 목회의 본질이다. 사랑이 없는 목양은 단지 소리나는 구리와 올리는 팽과리'에 불과하다(고전 13:1),
14. 이 목회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만큼 좋은 것이다.

이런 발견들이 이 책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미 평신도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성들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평신도목회를 시작하거나 또는 그들을 실시하고(one-line)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나의 첫번째 책,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 (Can the Pastor Do it alone? - 역자 번역하였음)』와 이것은 우리들이 집안에 함께 가까이 걸려 있는 두 개의 그림들과 어떤 공통점이 있다. 각각은 그 자체에 의해서 완전하다. 그러나 이 둘을 하나로 함께 놓고 볼 때에 신인협력설 (synergistic)의 원리가 작용한다.그들의 합성된 아름다움은 그들의 구 별된 장면들의 사랑스러움(lovliness)을 훨씬 능가한다.

이 두 책의 각각은 완전한 메시지이다. 각각은 혼자서 존재하며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 양쪽을 읽을 때에, 당신은 그들의 분리된 메시지들의 합계보다도 더 큰 가치를 창조하는 상호용 합적인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양쪽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양쪽을 가지고 보게 될 때에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책은 평신도목회자 사역에 대한 설명과 그것이 시작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steps)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 설명과 단계들은 목사와 회중들이 그것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만약 그들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은 사람들과 또는 교회가 이 목회를 시작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목회를 지지하기 위한 신학과 방법론을 공급한다. 상호(상호협력)적인 가치는 당신은 이제 평신도 목회를 이행할 수 있고 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은 효과적이고 또 지속될 수 있다: 계획,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찬성하는 교회 문화, 그리고 평신도 목회를 위해 적용한 원리들은 또한 모든 평신도목회들을 위해서도 적용할 것이다.

이 책을 쓰는 동안, 나는 '평신도(lay)' 그리고 '목사(clergy)'라는 단어와 씨름하였다. 가끔 나는 '평신도'에 대하여 '자원적인 목회자(volunteer minister)' 라는 말을 대신 쓰고, '목사'라는 말에 대하여 '직업적인 목회자(vocational minister)' 라고 대신 쓴다. '평신도' 그리고 '목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비성서적인 이분법(dichotomy)을 영속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개 그런 단어들에 대해 굴복하는데 왜냐 하면 그들은 공통적인 용어적 현상(currency)이기 때문이다. 나의 대체 들은 더 정확하지만, 그러나 또한 더 어색하기도 하다. 알반(Alban)연구소의 설립자인 로렌 매드(Loren Mead)가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말할 용어(terminology)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한 표현은 옳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계속하기 이전에 나는 당신으로 하여금 나와 함께 당신의 아이디어, 통찰력, 그리고 목회 경험들을 나누기를 원한다. 만약 당신이 추가적인 그리고 더 나은 원리들, 아이디어들, 그리고 형태들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우리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다른 교회들을 돕는 데에 중요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 평신도목회자 사역연구소(IPM)는 계간으로 나오는 잡지 NetWork News, 연구논문, 비디오 테이프, 세미나, 그리고 협의회 등을 통하여 가장 좋고 가능한 자료들로 교회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중의 어떤 것들은 당신으로 부터 올 것이다.

## Notes

1. Melvin J. Steinbron, Can the Pastor Do it alone? (Veritura, Calif: Regal Books, 1987).
2. 다음 교회(The Next Church)'는 1996년 8월에 아틀란틱 월간지(Atlantic Monthly)에서 찰스(Charles Trueheart)에 의한 흥미로운(호기심을 유발한) 제목이다. 내용의 힌트들은 이런 문장들에서 주어졌다. '예배와 소속의 새로운 현대 형태들을 위한 방법을 분명히 하면서 수세기

의 유럽전통과 크리스천 습관은 신중하게 버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교회운 등은 많은 전통적인 교회지도자들과 그리고 많은 적극적인 크리스천들을 신경질(nervous)이 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도했고 한번은 진실(tried and once-true)이고 그리고 뭔가 거룩한 것이 거절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pp.37-38.

3. 5364 Emerald Way Apple Valley, MN 55124

Tel: 952-423-2449, Fax: 952-423-9245

## 제1부

어떤 교회가 그것을 취할 것인가?

# 제1장

## 필요를 의식하는 교회

A Needs-Conscious Church

**교단**이란 것은 이 사람에게 별 차이를 주지 못했다. 위치도 아니었고 크기도 아니었다. 설교와 음악 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리스트에 첫 번째는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의 관계성들에서 실제적인(real) 교회를 찾고 있었다. 몇 주 동안 예배가 끝난 직후, 그는 봄비는 군중의 가장자리에 서서 사람들이 서로서로 관련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관찰하였다.

그는 그의 이전교회에서 실망하였다. 관계성들은 피상적이었다. 사람들은 정중하고 공손하기는 했다. 그들은 서로 만나 인사하면서 미소짓고 고개도 끄덕였다. 그러나 그들은 뭔가 다른 일들로 서두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돌보았다. 그러나 불일이 끝났을 때(chips were down)는 아무도 그를 위해 거기에 있지 않다. 아무도 **정말로** 돌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this) 교회 안에서 그는 다른 문화를 느꼈다. 사람들은 실재적이었다. 얘기하는 데에 그들이 시간을 들인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들의 미소들과 제스처어들은 결속된 관계성들을 표시해 주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의 삶 - 그들의 가족들과 직업들, 그들의 번민들과 슬픔들, 그들의 즐거움과 신나는 것들에 정말로 관심이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그는 한 사람이 우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사람 너머에서 다른 사람이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또 구석에 몇 명이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는 것을 관찰하기도 했다.

몇 주일 후에, 그는 그가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인지를 보기 위해 가장 자리로부터 내적으로 과감히 뛰어 들었다. 사람들도 그와 함께 얘기 했다. 그들은 그에 대해 그들의 작은 모임 안에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가 방문자였다고 알게 되자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커피를 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 정보센터로 갔다.

이것은 다른 교회 문화였다. 사람들은 실재적이었다. 그는 받아들여 졌다. 그는 그의 새로운 사람들이 정말로 돌봐진다는 것이 확신들었다. 그가 성경공부반에 오래 출석치 않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믿음을 재확증했으며 교회에 깊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제 그가 안에 있는 것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교회의 문화의 힘(운동량)을 통해 그가 회원 속으로 들어갔듯이 그를 목회하도록(doing a ministry) 할 것인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를 데리고 커 피 테이블로 간 사람과 같이 당신의 목화를 발견할 길들은 있는가? 사랑과 돌봄으로써 교회의 문화의 특성으로 평신도목회가 경험되어 지는가?

만약 교회가 하나님이 그것이 되도록 부르신 모든 것이 된다면, 그것은 또한 그(its) 사람들의 느껴지지 않은(unfelt) 필요들에 응답할 것이다.

교회는 사랑과 받아들임에 대한 그의 느껴진 필요들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부르신 모든 것이 되도록 하려면 그것은 또한 그(its) 사람들의 느껴지지 않은 필요들에 응답할 것이다. 첫째,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 성서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둘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도록 준비시키는 것.

어린이들의 느껴지지 않은 필요들이 이것을 예증해 준다. TV토크쇼에서 인터뷰한 어린이 심리학자는, 어린이는 그들의 부모가 그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그들의 부모에게 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더 양질(우량)의 시간을 요구하며, 그래서 그들이 원만한(균형이 잘 잡힌) 성인들 속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행동 징후들에 대하여 예민한(alert) 부모들은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목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들을 홀로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목양을 필요로 하는 데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더 개인적인 관심을 요구하려고 목사에게 올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예민한 목사는 가끔 교회에 출석하는 것: 정지된 영적 성장, 교회생활 참여 부진, 그리고 설교, 프로그램, 사람들에게 대한 비평 등등을 통하여 어떤 실마리들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새로운 날(a new day)이다. 교회는 뭔가 '해야 한다(doing)'라는 전통적인 방법에 매달려 있는 지도자들은 고민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mode) 안에 있다. 1996년의 전반부를 통하여 시행된 6개월 간의 연구에서 교인들은 단지 기관유지 (institutional maintenance)로 정신이 팔려 있는 듯이 보이는 옛날 방식에 그들이 고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 그리고 삶과 함께 폭발하는 것으로 움 직이고 있거나 또는 움직였다.

알반연구소(Alban Institute)의 지각이 있는 창시자 로렌 매드(Loren Mead)는, 교회는 "다시 정비되어야(reinvent)"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필요한 변화들은 너무 중요한데 회중들을 더 강하게 다루거나 그들을 약간 더 손질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들을 "다시 재정비(reinvent)" 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경영 컨설턴트인 피터 드러커(Management Consultant Peter Druker)는 또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그들은 다음 세대에 단지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회(pastoral)' 하는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목회(pastoral)를 정의한다.<sup>2</sup>

교회 역사를 간단히 훑어볼 때 우리는 우리가 과거를 붙잡고 있는지 또는 미래를 향해 활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한 중간(interim)시대에 살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교회는 현재 있는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구조들은 붕괴되고 있다. 교인들과 재정은 줄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문화는 차이가 없고, 적대적이거나 또는



친절하게 관대하다. 그것은 교회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지원적이 아니다.

이런 중간시대(과거에 교회가 있었던 것[was], 그리고 되어질[is being] 교회 사이의 기간)에 교회개발 전략가들은 의견이 상당히 다르다. 어떤 교회들은 과거를 회복하려고 한다. 그들의 목표는 이렇다: 전에 우리가 했던 것을 하는데 단지 더 크게 그리고 더 낫게, 어떤 교회들은 변함이 없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의 희망은 이렇다. 뭔가 변화 (curve)는 뒤집혀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교회들은 방향(gear)을 수정 (변경)한다. 그들의 위험은 이렇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lot)을 성서에 그리고 성공적인 교회모델에 던질 것이다.

삶을 폭발시키는 교회들의 지배적인 특징들 중의 하나는 평신도목회(lay ministry)이다. 그들은 목회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의식에 대해 그리고 영적 성장과 목회에 대해 헌신하도록 한다. 그들은 그들의 사람들을 도와서 목회를 위해 그들의 은사들을 발견하도록 돕고, 그리고 그것을 하도록 그것을 준비(equip)시킨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것을 하도록 한다는 것을 믿는 데에 지지하며 그리고 그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목회자들(어떤 이들은 직업적이고 어떤 이들은 자원적인)이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다르지만 중요성에서는 똑같다는 것을 그들은 믿는다.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목회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믿는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평신도목회의 장르는 목양이다. 우리가 특색으로 하는 모델은 평신도목회자 사역(Lay Pastors Ministry)인데 평신도에 의해서 회중을 돌보는 시스템이다. 평신도목회자 사역의 역사(이제 거의 20여년이 지나가고 있음)는 초점을 정당화 (보증) 해준다. 그 모델은 1978년에 한 교회에서 시작(launched)하였는데, 사실 어떤 다른 곳에서 시행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그 것은 이제 전 세계를 통해 수백 개의 다른 교회들에 의해 채택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종류의 돌봄(care)을 모든 교인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목회자들은 이런 성공적인 시스템을 발견하면서 구제(구출)되었다. 그들은 종종 말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로 (wheel)를 다시 발견하도록 해준다." '뒷문(또는 탈당)'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지각이 있는 평신도들은 IPM이 그 문을 닫는다는 가능성에 대해 흥분하게 되었다. 목양에 우선권을 두는 교회들은 그들로 하여금 이런 목회를 시행하는 것을 돕도록 또는 많은 교회들이 해왔듯이, 나의 첫 번째 책,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 (Can the Pastor Do it alone?)에서 주어진 원리들과 계획을 따름에 의해서 그들 자신들이 그것을 시작하기도 한다.

본서에서 나는 네 가지 주요 질문들을 하고 그리고 대답하려고 한다:

1. 사람들은 이런 목회를 주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2. 목사들은 이런 목회를 그들의 사람들에게 줄 준비가 되어있는가?
3. 사람들은 이런 목회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4. 어떤 종류의 구조가 이런 목회를 일어나게 하는가?

앞으로 세 장(three chapters)은 왜 평신도가 이런 목회를 할 수 있는 지,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그런 목회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신도목회(pastoral care)가 당신 교회의 전체 삶(total life)에 들어 맞는지의 이유들을 예증하게 된다.

내가 기도하기는, 당신이 쓰여진 것을 읽고 생각함으로써, 당신이 규 칙적으로 계시록 7장 7절의 후렴을 듣는다는 것이다: "귀 있는 자(He) 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라." 이런 똑같은 후렴(반복) 이 일곱교회들의 각각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결론을 짓고 있다 (2:7,11,17,29; 3:6,13,22),

각 장의 결론에 이 후렴을 읽도록 준비하라. 왜냐하면 오늘날 지적자 들(indicators)이 당신의 교회 내에 이 책의 메시지를 성령이 '말한다 (says)'는 신호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또한 각 교회의 메시지가 성령에 의해 특수한 방향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 장들의 각각은 특수한 방향으로 끝을 맺는다.

당신 교회의 평신도목회(pastoral care ministry)의 성공은 이런 7가지 자질들에 대해 그것의 에너지에 대한 몫(크기: proportion)에 있을 것이다.

- 필요들을 의식하는 교회
- 은사를 개발하는 교회
- 평등한 교회
- 목회균형유지 교회
- 성서적인 교회
- 움직이는 교회
- 실패를 저항하는 교회

각 자질은 완전한 취급(full treatment)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므로 나는 각각에 관하여 한 장씩 썼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필요를 의식하는 교회를 생각해 보자.

### **목회돌봄을 위한 필요에 예민하라**

성공적인 평신도 목회를 하려면 교회는 필요들을 의식해야 한다. 목 양을 위한 사람들의 필요들에 예민하고, 그리고 (1) 그들의 필요에 접근 하고; (2) 변화하는 현실들에 적응하고; (3) 구조를 채택 또는 창조하고; 그리고 (4) 특수한 계획, 목표 그리고 사람들(personnel)이 전진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 **필요에 따라 접근할 준비를 하라**

수년 동안 나는 목양을 우선권으로서 수립한 교회들에게 목회돌봄 (pastoral care)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이런 우선권은 대개 조사나 다른 종류의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이다. 종종 필요들에 대한 접근은 환멸을 느낀 교인들에게 연료공급이 되었고, 제직회나 임명된 그룹에 의해 집행되어 좌절된 목사에게 새 힘이 되었다.

게리(Gary Titusdahl)의 이야기는 수백개의 교회들이 말하는 것과 같다. 게리는 미네소타 케논 폴스(Cannon Falls)에 있는 제일 회중교회의 목사인데 그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다.<sup>3</sup>

나는 분명히 나 혼자서 질적인 pastoral care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자신이 깨닫게 되었다... 나는 죄스러움을 느꼈다... 나는 또한 전 회중을 위한 pastoral care 제공자로서 부적당함을 느꼈다.

1992년에 있었던 나의 목회에 대한 연간 평가는 나의 pastoral care 노력들을 감사한 것으로 서술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회중들은 그것의 계속되는(ongoing) 목회적인 필요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갖기를 원했다. 특별히 회중은 상실, 혼란, 그리고 슬픔을 겪고 있는 개인들과 가족들에게 전반적으로 부응(follow up)하도록 하기 위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했다.

그룹모임이 교인들의 가정에서 몇 주간에 걸쳐 계획되었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견해들을 말할 수 있었다. Pastoral care가 첫 번째(number one)로 필요하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게리(Gary)는 이미 과중한 짐을 지고 있어서 만약 교인들이 알맞게 목회를 받게 되려고 한다면 평신도들이 그것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평신도목회 사역을 해 보라.

나는 그들의 첫 번째 준비세미나를 인도하도록 초청 받았다. 1995년 1월 22일 주일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첫 번째 교인들이 평신도목회자들로 파송되었다. 사람들은 신났고, 그리고 그들의 기대는 높았다.

그 다음 주부터 그들은 5명에서 8명 정도의 맡겨진 양떼들을 PACE하기 시작했다. PACE를 기억하는가? 이것은 그들의 목양을 구성해 주었다:

P: 그들을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A: 그들에 대해 항상 **시간을 내기**

C: 그들을 **접촉하고**

E: **모범이** 되려고 애쓰는 것

네 가지 전형적인 다이내믹들은 게리의 이야기에서 분명하다:

1. 단지 한사람의 pastoral care 제공자, "나는 혼자서 질적인 pastoral care를 제공할 수 없다."

2. 죄스러움과 부적합성의 느낌들: "나는 부적합성에 대해.....죄스 러움을 느꼈다."
3. 필요들의 접근에 사람들을 포함시킴: "그들은 교인들의 집에서 모 일 것을 계획하였다."
4. Pastoral care가 우선권으로 확인되었다. "그들은 pastoral care에 대 한 조직적인 접근을 개발하는 데에 긴박성을 느꼈다."

이런 가정들(homes)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pastoral care에서 무슨 의미인가? 분명히 그들은 영적인 지도력, 설교하는 것, 결혼하는 것, 장례식, 상담, 그리고 위기방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게리(Gary) 는 이런 것들을 하였다. 그들은 평신도 pastoral care를 어떻게 이해했는 지 들어보자:

- "상실, 혼란 그리고 슬픔으로 고생하는 개인들과 가족들에 대해 더 전반적인 추적(follow-up),"
- "응답한다는 것은 사람의 고통의 넓이와 깊이를 위해 영적인 care 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인에게 관심, 지지, 그리고 안내를 제공하는 것."
-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고 사랑과 선한 행동을 향하여 서로 서로 격려하는 것."

우리의 교회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방금 읽은 말들에서 묘 사한 개인적인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만약 그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한다면, 평신도가 그것을 주어야 한다. IPM의 중심주 제인 PACE는 pastoral care의 일종인 "피부로 사랑하라(Love-With-Skin-On-it)"로 이런 한 가지 한 가지(one-on-one)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회중이 포함되면서 pastoral care를 위한 필요의 공식적인 접근은 세 가지 일을 한다: 첫째,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스템의 1층 (ground floor)으로 데리고 온다. 과정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교적 그 들에게 '주인의식(ownership)'을 갖게 한다. 둘째, 모임에서 모은 튼튼 한 자료(data)는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확실한(단호한) 결정들을 하도록 돕는다. 셋째, 그것은 평신도목회자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care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한 양쪽 다 수용됨 (acceptance)을 확신한다.

### **변화하는 현실들에 적응할 준비**

어떤 이유에서 교회들은 사람들의 다른 연합체들보다도 변화에 더 적응한다. 모든 종교는 화석화(굳어버리려는)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변화가 없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급진적이고 갑작스런 변화 역시 죽음을 의미한다. 두 극단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변화의 열쇠이다.

3)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한다; b) 어떤 것들은 변할 수 있고 또 변화될 필요가 있다; c) 다른 것들은 우리의 선택에 관계없이 변한다. 이런 세 가지 현실들을 우리가 pastoral care에 적응하 면서 우리는 다음을 보게 된다: 첫째, care의 필요성은 결코 변치 않는 다. 두 번째 필요의 종류들과 caring의 방법들은 변한다. 세 번째, 우리 의

고도기술(high-tech), 증가하는 비인격적인 것, 급속히 변하는(lif-in-the-fast-lane) 문화 속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대해 우리의 할 일(agenda)을 설치하면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데 - 계속되는 기반(기초, 근거) 에 대하여 pastoral care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목회를 준비하는 교회는 변화하는 현실들에 적응할 것이다.

### 구조를 채택하거나 창조하려는 준비

필요에 접근하는 것으로부터 필요에 부응하기까지 움직이려면 교회 는 구조를 채택(창조)해야 한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다이나믹이 살아 날 수 있는 것 안에서 보이는 형태를 찾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종종 조사(연구)가 질문들에 응답하는 것으로 가득찬 파일 캐비닛 서랍(a file cabinet drawer)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도했는 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should be done)은 그것(얘기하는 것) 이상아 무것도 아니었다. 즉 얘기로 끝난다는 것이다. 뭔가, 어떤 사람은 전진할 자료(데이터)와 의도를 진행(carry, 운반)시켜야 한다.

많은 교회들이 미네소타의 제일회중교회에서 한 것을 하고 있다. 몇 명의 헌신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유효한(가능한, 필요한) 평신도 pastoral care의 가장 좋은 모델을 찾도록 하는 것. 다른 것들을 다 고려 한 후에 그들은 LPM을 선택한 것이다. 다른 교회들은 다른 모델들을 선택한다. 어떤 교회들은 현재 준비되어 하려고 하는(packaged-and-ready-to) 목회들로부터 원리들과 부분들을 취하면서 그들 자신의 것을 발명한다.

1987년, 알라바마 몽고메리에 있는 프레저 감리교회의 목사 앤드류 (Farl Andrew)는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의 첫 번째 책, "목회, 혼자서 할 수 있는가?"를 읽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방향)를 재검토(reinvent the church) 하도록 해줄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 교회는 돌봐야 될 회중이 7,000명 정도였다. 나는 우리의 모델을 채택한 선택된 그룹에게 우리의 평신도 pastoral care모 델을 제시하도록 초청 받았다. 후에, 그들은 그들의 특별한 상황에 맞게끔 적용하였다.

놀라운 일이다! 구조의 채택에 대한 이런 글들을 쓰고 있는 바로 그 날, 나는 남아공침례교회의 목사인 에드 마셜(Ed Marshall)로부터 다음과 같은 팩스를 받았다.

남아공에서 인사드립니다. 당신이 1994년 10월, 우리 교회에 와서 세미나를 개최 한 아래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평신도목회자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결정했 습니다. 그런데 증가되는 성도를 수용하기 위해 새 건축을 하는 바람에 연기되었습니다. 한번 더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해왔다.

특수한 계획, 목표 그리고 "사람을 지정함이 없이 시작하는 목회는 최상에서는 평범해지는 것이고, 최악에서는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이다.

Pastoral care를 위해 알맞은 형식을 채택하거나 창조하는 것은 아기를 출산하는 것과 연관될 수 있다. 아기가 되게 하려면 그 아이디어는 바램(desire), 임신을 통한 시도, 그리고 잉태로부터 보이는 몸의 출산(delivery)으로 움직여져야 한다. 결국 요점은 이런 것이다. 이런 목회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는 목회를 위한 구조를 채택, 적용 또는 창조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교회이다.

### 특수한 계획들, 목표들, 그리고 '사람을 지정' 하며 출발 (advance)하려고 준비하는 것

게임 계획도 없이 게임에 임하려고 하는 야구팀을 상상해 볼 수 있는가? 그것이 추구(performance)하려는 데에 대한 목표를 세움 없이 돈을 사용하는 투자자를 생각할 수 있는가?

특수한 계획, 목표, 그리고 '사람을 지정함'이 없이 시작된 목회는 최상에서는 평범해지는 것이고 최악에서는 실패로 운명짓고 마는 것이다. 목회에 함께 임하는 사람들은 계획들을 최종검토하고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 건축가가 하는 것처럼 그들을 종이 위에 적어야 한다. 모호하고 정의되지 않는 계획들은 목회가 출발될 때부터 연약해지고, 그리고 오해하고 실패하게 만들 수 있다. 목표는 세워져야 하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목회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질 수 있고 '방향(진행, in-flight)'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원자이든 유급자 이든 '사람을 지정하는 것(point person)'은 명령적이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필요를 인식(평가)하고, 변하는 현실에 적응하고, 구조(조직)를 채택하거나 창조하고, 그리고 특수한 계획, 목표, 그리고 사람(personnel)으로 시작(advance)하는 방법들을 입증하는 두 개의 대표적 모델들이 있다.

첫 번째는 텍사스에 있는 이스트팍(Fastridge Park) 크리스찬교회이다. 15년 동안 회중이 3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났다. 만약 그들이 그들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올바르게 했다면 그리고 "내 양을 치라/돌보라" (요 21:6)라는 그리스도의 요청에 진실하였다면, 그들은 일들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담임목사 캐롤(Dan H. Carroll)은 다음과 같이 썼다:

1980년대 중반에, 우리는 개인적인 필요들[회중들에 대해 목회하고... 교회 가정들을 양육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점점 더 도전받는 업무에 직면하기 시작하였다. 분명히 이 사역은 목사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표면화되었다.<sup>4</sup>

그들은 목회에 대한 부름이 안수받은 목사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연장된다는 것을 믿었다. 그는 '우리는 모두 목자들 (shepherds)' 이라고 강조했다. '평신도

pastoral care의 분야에서 성도 들을 목회하는 것' 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은 비록 성도의 수가 270명으로 2,000명에 비교되기는 하였지만 미네소타에 있는 캐논 폴 (Cannon Falls) 교회가 한 것처럼 거의 카본사본지(복사지)를 사용하 였다. 그들이 제목을 붙인 효과적인 교회를 위한 네가지 필수적인 것 들이 그들의 성공을 보증하였다:

1. 사람들의 가장 깊은 바램(yeamng)을 들으라.
2. 교회에서 사람들의 근본적인 기대들에 부응할 시스템을 구축(put together)하라.
3. 시스템을 개선하여 그것이 그들을 기쁘게 하고 신나게 하는 사람 들의 기대들을 넘어서 서 가도록 하라.
4. 노력에 이바지(공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도록 (empower-지도자들을 통하여 하 라.

비록 이스트팍(Eastridge Park)교회가 우리의 평신도목회자 사역(LPM)과 아주 다른 모델이 지만, 그들의 집단프로그램(Cluster Program)은 같은 목적을 성취하였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서 로가 목회하도록 하였다. 목사로부터의 이런 말들은 모든 교회지도자 로 하여금 회중을 위한 구조화된 pastoral care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 식하도록 격려한다: "당신은 복잡한 계획과정을 필요치는 않는다. 그러 나 당신은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한다." "기본적인 것들' 이란 앞 에 말한 네 가지 필수적인 것들을 의미했다고 캐롤 목사는 말한다: 평 가, 적응, 채택, 그리고 전진.

- 평가(Assess): 회중들은 유급교역자(paid staff)가 하는 것보다도 더 pastoral care 필요들을 경험하였다.
- 적응(adapt): 그들의 필요들이 부응되지 않은 사람들은 움직임(교회이동) 것이라는 것을 인식 하라. 조직에 대한 충성심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채택(adopt): 그들은 회중들이 서로에 대해 목회하는 것 안에서 분 산된 계획, 집단프로그램 (Cluster Program)을 창조하였다.
- 전진(Advance): 그들은 필요로부터 계획을 통하여 실행으로 움직 였다.

교회를 운용하는데 성서적인 방법은 영적인 은사들에 기초하고 있다.

두 번째 모델은 플로리다의 그리스도교회이다. 딕 윌리스 목사 (pastor Dick Willis)가 그것 을 말하듯이, 그의 목회적인 새로운 자각 (new awakening)은, 깊은 영적인 것과 성령의 역 사이었는데 교회를 평 신도 pastoral care 목회로 착수하는 것이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 는 것(surrendering)에 추가하여 그는 교회 안에 목회들의 조종(control) 을 평신도들 에게 넘겨 주는 것이 필요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의 많은 것을 배우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는 말했 다. '직업적인 목사'가 되는 대신에, 그는 지금 그의 직책을 영적으로 먹이는 것과 평신도들을 그리스도 교회의 목회를 하도록 준비시켜야 한 다고 보았다. 교회를 운용되게 하는 성서적인 방법은 영적인 은사들에 근거하고 있다. 이 방법에서, 각자는 목회의 장소를 발견하는 것이다.

1994년 6월, 윌리스 목사는 평신도목회자들을 세우기(consecrate) 시작했다. 1995년 4월쯤에 80명이 임명되었다. 평목들의 세 가지 범주들이 그들의 모델을 포함(함유)한다: (1) 웨슬리 그룹 지도자들(목표는 400명이 되는 이 그룹이 매주 모인다); (2) 관리부와 같은 행정적인 그룹; 그리고 (3) 안내 그리고 형무소 목회와 같은 활동(Action)목회, 각 그룹은 평신도목회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그녀의 그룹을 위하여 회중 속에서 근본적으로 돌보고 있는(care-giving) 사람이다.

이 모델은 같은 네 가지 필수적인 것들을 논증/증명한다:

·**평가:** 첫째, 개인적인(personal) 접근이 영적으로 그리고 목회갱신으로 인도했다. 둘째, 그들은 브로드웨이 지역(Broadway county)에 있는 140만명의 80%가 교회 얘기를 못 들어본(unreached, 미전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적응:** 그의 '새로 깨어남(new awakening)'은 목사로서 그의 삶에 대한 방향을 다시 조종(reoriented)하였다. 평신도에 대한 목회에 내어주는(surrendering) 조종은 사람들을 새롭게 일깨워 주었다.

·**채택:** 교회는 평신도목회자들의 세 가지 범주들을 가지게 된 것을 알았다. 계획은 평신도들의 다양한 그룹들을 인도하고 부원 배치 (staffing)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전진:** 평신도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느끼는 한 사람이 담임목사를 찾아갔다. 만약에 그 소명(부름)이 교회의 비전에 맞는 것이 라면 그 사람은 평신도목회자로 초청된 것이다.

Pastoral care를 위한 필요에 주의력을 기울이는 것 중의 일부는 모든 성도들을 의식(aware)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단단한 가족(the bonded)뿐만 아니라 탕자까지도 각 자녀에 대해 똑같이 의식(aware)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큰 가족의 부모와 다를 바가 없다. 교회생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쌍방의 약속이다. 새로운 회원으로 적극적 인 참여에 헌신하는 반면, 교회는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데에 헌신하는 것이다.

너무나 종종, 성도들의 헌신이 식어질(lessens) 때에 교회는 그 신호들에 주의(alert)하지 않고, 관심이 없거나 또는 이런 사람들에게 닿기 (reaching out) 위한 목회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교단적인 지도자가 연구한 질문, **왜 그들은 그들의 교회를 떠나는가?**<sup>6</sup>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두 가지 주요 이유들을 발견했다: 기대들에 못 미치고, 그리고 깨어지거나 개발이 안된 관계성, 결정적인 문제는 그들이 움추러든/철수한 이후에 그들을 찾으려는 회중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였다.

인터뷰한 2/3가 말하기를 그들이 출석을 그만둔 후에 그들의 결석에 대해 어떤 종류의 문의(inquiring)의 접촉도 받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거의 절반 정도가 그들은 목사로부터 또는 교회지도자들로부터의 의미있는 문의를 촬영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탈퇴하려는 그들의 결정에 변화를 줄 것이다.

한 어머니가 말하기를 "우리는 치명적인 병에 들어 있는 딸이 있었는데..... 6월부터 그녀가 죽은 11월까지 목사로부터 한 마디의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



"나는 교회에서 아주 소외감을 느꼈다. 나는 어느 사람과도 연결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나는 내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차이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탈퇴하는 과정은 불편한 단계(Discomfort Stage)로 시작하여, 움추리는 단계(Withdrawing Stage)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나가는 단계(Exiting Stage)로 마무리 짓는다. 탈락을 막는 가장 좋은 때는 불편한 단계 이전 이나 그 당시이다. 불편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독제는 회중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생동감 있는 상호작용을 위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공식적인 돌보는 네트워크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by itself)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그 일이 교역자 팀에게 맡겨진다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공명심(포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더 중요한(우선적인) 목회들로 짐이 무겁기(overloaded)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가 pastoral care를 위한 필요성을 지각하는 시발점으로 사용하면서 그것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을 충분히 세울 때에는 일어날 수도 있다. -필요를 의식하는 교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당신 교회의 목양(pastoral care)의 필요성들에 예민하라.**

## **Notes**

1. Loren Mead, *Action Information* (May/June 1990) published by The Alban Institute, 4125 Nebraska Ave, NW, Washington, DC, 20016
2. Peter F. Drucker, *The New Realities*. New York, NY: Harper & Row, 1989), p.200.
3. Gary A Titusdahl "The Lay Pastors Ministry," a thesis project dissertation, doctor of Ministry Program, Cannon Falls, Minnesota, This document is at the library of United Theological Seminary of the Twin Cities, 3000 Fifth Street, NW, New Brighton, MN, 55112
4. *Net Results* (June 1994), published monthly by the National Evangelistic Association of the Christian Church.
5. Crouit Rider(April 1994), a publicat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9-11.
6. Presbyterian Lite and Times (October 1992), published by the Synod of Lakes and Prairies, Bloomington, MN 55425

## 제2장

# 은사활용의 교회

A Gift-Oriented Church

"이제 영적인 은사들에 관하여..."

**새로** 부임한 목사는 책들을 들고 병원을 방문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온종일을 보냈다. 그가 도착하기 오래 전에 계획된 연중 계획 식사를 위한 시간이 다가 왔다. 그는 지쳤고 배가 고팠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길게 서 있었으며 음식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앞을 쳐다보면서 그는 각 사람의 접시에 닭고기 조각을 담아주는 한 여성들을 보게 되었다. 얼마 있지않아 그 목사는 그녀 앞에 도착하였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두 조각을 요청했다. 그녀의 대답은: "한 사람에 한 조각입니다. 빨리 가십시오." 였다.

그 목사는 그녀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나는 아침 먹은 이래로 식사 할 시간이 없었어요. 두 조각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엄중한 대답은 그를 놀라게 했다. "한 사람에 딱 한 조각입니다. 옮겨가십시오." 그 목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부지게 말했다:

"아마도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가 본데, 나는 이 교회에 새로 부 임한 담임목사요."

그러나 그는 그녀의 더 엄격한 대답에 충격을 받았다: "아마도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가 본데, 나는 부엌 담당이요."

나는 이 이야기를 새로 장로가 되려는 사람들의 그룹에게 말했다. 그들은 웃었고 나도 그들과 함께 웃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들에게 로마서 12:6~8을 읽고 이 이야기와 연결하여 설명하기를 요구했다. 그 구절들을 읽은 후에, 그들은 공손하게 웃었다.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여성의 은사가 부엌에서 닭고기 굽는 것이 라면, 그녀로 하여금 부엌에서 그것을 하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그나 그녀의 목회를 위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목회가 성공적이 될 수 있는 종류의 교회는 평신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이다. 여기에는 상당히 다양한 은사들이 요구되는데, 왜냐하면 목회에는 다양성이 있기 때 문이다. 성령은 영적인 은사들을 주고 사용하도록 편곡해 준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고전 12:11)

성령께서 누구는 무엇을 하고, 누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 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 각각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 듣는다는 것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종종 공적인 장소에서 일어나거나 또는 예배, 수련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나 자매가 얘기하는 동안 또는 선교프로젝트를 관찰하거나 참여하는 동안과 같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있을 수도 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은 엄청난 신비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듣게 된다는 것이다.

몇 가지 은사평가(gifts-assessment) 테스트에 대한 책, 테이프, 지침서, 글, 등 다양한 자료들이 지난 30여년 동안 쏟아져 나왔다. 모든 크리스천은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endowed)고 성서는 증거한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

형제들 자매들아 신령한 것(영적인 은사)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무시하지)원치 아니하노니(고전 12:1).

나는 은사들에 대한 문헌들을 덧붙이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사들에 관심을 갖고 몇 가지 생각을 좀 더 보태기를 바라는 것이다. 한가지 생각은 두 가지 가르침들을 연합시켜 보자는 것인데 은사의 다양성과 은사의 활용 사람들은 되는 대로(마구) 교환할 수 없다고 우리는 결론짓는다.

전통적인 교회는 어떤 원하는(willing) 사람이 그 일을 위해 자신이 택할 수 있기보다는 목회적인 자리에 사람들을 뽑거나(elect), 지정하는 (appoint) 것이다. 수세대 동안 이런 방법에서 기능을 하는 교회들은 그들의 영적인 은사들에 알맞은 일은 그들에게 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적인 은사들을 발견하여 그들의 특별한 목회들에 대해 하나님의 부름을 듣는 대신에 단지 빈자리(구멍)를 채우는 식으로 되어온 것 같다.

"오늘날 당신 교회가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당신 교회의 초점이 목사의 목회로부터 평신도목회로 변경(shift)하려는 결정이다"라고 미국의 유명한 평신도 중의 한 사람인 로버트 슬로컴(Robert Slocum)이 말하고 있다. 이런 변경의 가능성은 모든 성도가 은사를 받았으며(every members giftedness), 하나님께서 목회에서 사용될 은사들을 모든 크리스천에게 수여해 주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슬로컴은 '당신의 목회를 극대화하라'라는 그의 책 전반을 통해서 이 주제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그의 논문은 "다음 세대는 어떤 종류의 교회가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서언을 시작한다. 원 자치료학자의 예리한 마음으로(그는 우주 탐험과 레이저 시스템으로 high-tech분야에서 일했다) 분석적인 정확함으로 확인하였는데, 그 자신의 질문에 그는 대답한다:

21세기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교회는 목회에 있어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을 움직이게 하고, 준비시키고, 힘을 주고, 지원해주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sup>2</sup>

빙고(Bingo)! 이것을 위한 가능성은 모든 성도들의 은사활용 (giftedness)에 달려 있다.

로버트 슬로컴은 목회에 대한 책임을 그가 다음과 같이 쓸 때에 평신 도에게 놓는다: "우리들 각자에 대한 도전은 평신도목회에 대한 우리 자 신의 소명을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다."<sup>3</sup> 그런 조사(연구)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목회를 위해 그의 또는 그녀의 은 사들을 모든 찾는 이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슬로컴은 각 크리스천은 성공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확신한다: "초대교회는 평신도목 회를 위해 파송하는 예배를 드렸다; 그것은 세례라고 불리워졌다."<sup>4</sup>

성서는 그런 생각을 위한 근원(the source)이다. 로마서 12:6~8은 이 런 진리를 힘있게 선 언한다. 이런 본문의 말들은 단지 이 책의 주제를 고무시키려는 것(inspired)이 아니라, 또 한 평신도목회에 대한 나의 신 념들(beliefs)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나는 영어 성경 NIV의 운율을 좋아한다(스타인브런이 풀어서 쓴 것):<sup>5</sup>

만약 어떤 사람의 은사가 예언하는 것이라면, 그로 예언하게 하라;  
만약 그것이 봉사하는 것이라면, 봉사하게 하라;  
만약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라면, 가르치게 하라;  
만약 그것이 격려하는 것이라면, 격려하게 하라;  
만약 그것이 나누어주는 것이라면, 나누어주게 하라;  
만약 그것이 지도력이라면, 지도하게 하라;  
만약 그것이 자비를 보이는 것이라면, 자비를 보이게 하라.

이런 말들은 명령같이 들린다. 목회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위 해서 선택적인 것 (option)이 아니다. 우리의 문화에서 사람들은 명령을 받아들이는 데에 익숙해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 안에서 새로 태어난 (born anew)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들은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만약 그것이 격려하는 것이라면, 그로 격려하게 하라! (8절). -하게 하라(let)는 명령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 인지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격려하는 것은 목회적인 은사들의 하나인데, 우리는 누군가가 목회자가 되도록(letting) 하는 것을 말한다. *평신도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하라! 그런데 누구로 하게(let) 할 것인가?*

## 세 가지 가능한 대답들...

### 1. 당신

당신이 하게 하라(let)는 것은 "당신이 먼저 가서 그것을 하라.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당신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사용하도록 기대 되어진다. 슬로컴은 목회적 인 은사들을 발견하여 그것들을 목회에서 사용하는 데에 대한 책임은 평신도의 몫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비록 평신도 목회를 증진 하지 않는 교회들의 평신도라 할지라도 사실이다.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것이 성경구절이 말하듯이 "만약 당신의 은사가 격려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당신은 반드시 격려해야 한다! 또는 윌로우 크릭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 in South Barrington, Illinois)의 빌 하이벨스(Bill Hybels) 목사는 "남녀들 이여, 만약 당신이 격려하는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격려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

## 2.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목사들, 직업적인 교역자,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약간 비켜 설 (step aside)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단지 돕는 것(help out)이 아니라 목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의 각 회원은 그나 그녀의 은사의 분야에서 자유와 권위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위치에 의하여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의 목회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지시적인 표현** '-하게 하라(let)'는 또한 그들의 교인들의 목회들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게 하라 (let)'는 것은 그들이 사람들의 은사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목회에서 파 트너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그들의 역할에서 확언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평신도가 그들 자신의 권리에서 순수한 목회자들이라고 믿는 것과 목회자들의 동격임을 확언하려는 것은 전통적인 교회들에서 대부분의 지도자들에게는 주요 패러다임 변경 (paradigm shift)을 요구한다. 변경 (shift)은 굳은 기반을 만드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성서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2장은 어떻게 모든 부분(지체)들이 눈에 띄는 것과 감추어진 것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증하려고 인간 몸을 사용한다.

지도자들이여, 우리는 감히 활동을 위하여 설교를 대체하거나 또는 공연을 위하여 예배를 짧게 드리지 않는다. **하게 하라(let)**는,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는 능동적인 동사이다. 나는 수년 동안 자신을 속인 한 사람인데, 그것을 설교한 것이 그것을 했다고 생각해 온 것이다. 나는 헌신되고 능력 있는 평신도의 그룹과 함께, 평신도 pastoral care를 위한 구조를 창조하도록 **했으며(let)** 평신도를 준비시키고 파송하려는 pastoral care목회를 양도하도록 하였다.

## 3. 사람들

다시 말해, 우리 인간 몸은 몸의 각 부분이 모든 다른 부분을 필요로 한다는 진리를 예증한다. "눈이 손더러 나는 네가 필요치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고전 12:21). 이런 유추를 LPM에 적용해 보자. 교인들은 평목들에게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평신도목회자들이 그들을 **목회 하도록(let)** 해야 한다. 만약 '몸'이 최상의 기능을 하도록 하려면, 그들을 그들의 가정에 그리고 그들의 삶에 **들어 오도록 (let)** 해야 한다. 바꾸어서 평신도목회자가 행정, 예배, 또는 어떤 그런 종들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목회를 받을 수가 있다. 모든 목회의 상호성 본질은 벧전 4:10에 요약되어 있다. 각각은 다양한 형태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실하게 실천(집행)하면서 그(또는 그녀)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도록 하라(let): 만약 어떤 사람의 은사

가 격려하는 것이라면 그로 하여금 격려하도록 하라(let). 만약 그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면, 자비를 베풀게 하라 (let). 은사를 가지고 있는 당신은 그것을 사용하라. 지도자인 당신은 성 도를 준비시키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은사를 사용 하도록(let) 비켜서 주어라. 성도인 당신은 그들로부터 Pastoral care를 받아들이라.

나의 세미나에서 사람들은 종종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care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교회 개념 (church minded)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논법(reasoning)이다. 그것은 구조화된 LPM에 대한 제안적인 대안(alternative)인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일(jobs)을 한다면, 사람들은 돌봐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되고 또 회중적인 돌봄에 실패한 시스템이다. 실패는 **일반적으로 돌보는 것과 특별한 것에서 돌보는 것** (caring in general and caring particular) 사이의 차이(구별)를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돌보는 것은 과거에 그것을 완성시킬 수가 없었고, 그리고 미래에도 안될 것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음에 틀림없다. '특별한 것에서 돌보는 것이다. 확실히 모든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려고 한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천이 pastoral Care를 위해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원칙은 교회 생활의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증인이 되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전도(개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와 주님으로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은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주려고 한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천이 기증하는(교회에 많은 것을 주기 위해 돈을 엄청나게 베푸는 은사)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성서에 대해서 그나 그녀가 아는 것 뭔가를 가족, 친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트 하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람들의 그룹을 형식을 갖추어 가르치는 것)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이 다른 사람을 돌본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목양(pastoral care: 격려하는 능력을 수여 받은 것)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예증은 '이웃을 유심히 보는 프로그램 (Neighbour Watch Program)이다. 이상한 사람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모든 사람의 임무이다. 그러나 경찰은 범죄예방과 범죄자 체포에 있어서 전문가들이다.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데 에, 그것은 PACE를 하는 사람에 있어 전문가인 훈 련받고 파송받은 목회적인 은사를 가진 평신도이다.

성서는 분명히 모든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각 크리스천에게 독특하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 들 사이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열매는 삶의 질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은사는 목회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특별한 기능들을 위해 그것의 많은 지체들 (parts)을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한 바울의 유추는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것'에서 돌봄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전체 몸이 눈은 아닌 것 이다. 귀는 향기를 맡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머리와 발은 그들의 독특한 기능들에서 각각 전문가들이다. 진리를 받은 그들의 독특한 기능들에서 각각 전문가들이다.

'일반적인 것'에서 이런 돌봄의 이슈는 나의 세미나들의 하나에서 상당한 에너지로 부상된 '특별한 것'에서 돌봄을 대항한다. 참여자들은 아주 근본부터 나에게 도전했다: "우리는 평신도목회자 사역(LPM)이 필요치 않다. 모든 사람이 평신도목회자이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사람들이 서로 돌보도록 하면 된다." 23개 교회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들의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대답은 상당히 중요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네 가지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였다:

1. 당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2. 모든 사람이 정기적으로 접촉을 하는 누군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3. 모든 사람이 그들의 영혼(soul)을 노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들이 편안하게 대화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습니까?
4. 모든 사람이 그나 그녀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중요한 문을 연 그 사람에 대해 감사한 후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

다음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검토(inventory)해 보라:

- 당신 교회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 당신의 목사나 다른 성도가 당신을 위해 날마다 또는 주간의 삶의 상황에 대해 특별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 당신 성도들 중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시 또는 축하할 일이 있을 때에 당신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까?
-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당신이 신뢰적인 관계성을 구축하여, 그들이 당신에 대해 신뢰와 편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 ▶ 당신은 매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 (그리고 의미 있게)하고 있습니까?
-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완전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모범'(본 보기)으로서 충분하다고,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평신도목회자를 위한 목회설명으로서의 이탤릭체를 인식하라: PACE, 만약 목회돌봄이 모든 성도들이 포함되고 만약 그것이 올바르게 시행되려면, 목회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을 모든 멤버들을 위해 목양을 제공하려고 디자인된 구조 안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는 사람들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것'에서 care를 제공하는 대신에 그들은 '특별한 것'에서 돌봄을 제공한다.

의도적이고 구조화된 목양 목회에 대한 필요에 도전을 받은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자, 이 사람은 세미나 후에 나에게 와서 그녀의 반대적인 생각을 사과했으며, 그녀의 교회가 평신도목회자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하게 확인했다. 그녀는 바로 일반적인 것의

돌봄에서 특별한 것에서의 돌봄으로 바꾸는, 소위 패러다임 변경(paradigm shift) 이라고 부르는 것을 한 것이다.

교회들로 하여금 패러다임 변경을 하는 확실한(좀 늦긴하지만) 방법은 단지 특별한 것에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 (자원적이든 직업적이든, 다음 장에서 다루는 데)의 동등성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목회 파트너십 안에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르치는(inculcate)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할 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목회를 가능하게 하는 은사들을 제공하신다; 우리는 목회를 하게 하는 조직체들(지체들)을 제공한다. 다섯가지 관찰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신-인간(divine-human) 파트너십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 하나님은 색깔들을 제공한다. 우리는 그림을 그린다.
- 하나님은 음계를 제공한다. 우리는 음악을 쓴다.
- 하나님은 토양을 제공한다. 우리는 꽃들을 심는다.
- 하나님은 정신을 제공한다. 우리는 생각한다.
- 하나님은 은사를 제공한다. 우리는 목회를 한다.

### 하나님의 하시는 일(God's part)

**그는 은사를 제공한다.** 고전 12:11에서 목회를 위한 영적인 은사는 주어지는 것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들은 배워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의해 받을만한 것도 또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추수나 열망에 의해서 생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깊은 헌신과 신앙적인 삶을 위해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 선택에 따라 각 사람들에게 수여된 것이다. 그들은 발견되어 사용 되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있다.

**그는 각 사람의 독특한 은사를 결정한다.** 롬 12:6은, 하나님은 그의 은사에 따라서 다른 은사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은혜'란 하나님의 호의이고 관용이다. 고전 12:11은 성령께서 은사들의 수여를 지휘하 신대(ordains)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는 그가 결정하는 바로 그대로 ..그들을 주신다." 그들은 관중들에게 던지는 신부의 부케(bouquet)와 같은 것이 아니다; 성령은 그들을 신중하게 배당한다.

**그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기를 기대하면서 주신다.** 벧전 4:10이 그 것을 분명히 말한다: '각 사람은 그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사용해 야 한다' (맡겨진 것에 유념할 것). 마치 사용되지 않은 것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들이 잘못(poor) 선택한 것들로 추정되는 것과 같이, 사용되지 않는 영적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사를 주는 것에 어떤 잘못 선택을 한 것으로 암시하는 듯이 보인다.

**그는 은사를 개발할 것이라는 의도와 함께 주신다.** 성서는 우리의 마음(눅 10:27을 보라), 특히 우리의 갱신된 마음(롬 12:23)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목회 은사의 사용이 가장 충만한 범위(분량)까지 확장되기 위해 우리의 정신적 기능들을 사용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에서 자라기를" 강조하는 베드로는 우리 목회 은사의 개발에서 성장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 메시지를 제공하기 위해 워드프로세서(word-processor)를 사용함에 있어서 내 자신의 성장은 그 점을 예증한다. 하 나님은 은사를 주신다. 우리는 그들의 미개발된 시작으로부터 완전히 구체화된 잠재성까지 그들을 양육하고 지지하는 데에 책임이 있다. 그 것은 마치 부모들이 미개발된 유아에서 그들의 완전한 잠재성에 이르기까지 기르고 양육하는 데에 책임이 있는 것과 같다.

### 당신의 할 일(your part)

**당신은 몸을 제공한다.** 7가지 은사들을 적어놓은 로마서 12장은 너의 몸을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희생으로서 제공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면서 시작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몸을 준 것만큼 중요하다: "이 것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눅 22:19). 롬 6:13은 더 특수하다! 우리 몸의 부분들은 의의 도구들로서 그에게 제공하라, 각 부분들을 말해 보자:

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손을 제공한다.**

팔: 괴로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팔을 제공한다.**

귀 :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듣기 위해 **귀를 제공한다.**

발 : 심부름을 하려고 **발을 제공한다.**

눈: 시각 장애자를 위해 읽어주려고 **눈을 제공한다.**

두뇌 :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돕거나 또는 기념일 졸업식 생일과 같은 축하시 축제하는 데에 대한 전략들을 창조하려고 **두뇌를 제공한다.**

**당신은 시간을 제공한다.** 만약 우리가 목회를 위해 단지 남는 시간만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몸으로서 많은 것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과 파트너십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에 목회를 위한 시간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평신도목회자는 그들에게 편지를 쓸 스케줄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카렌다에 표시를 해놓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몸은 그것에 대해 결코 따라갈 수가 없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 9번째인 절제(self-control)를 말하는 것이다(갈 6장을 보라).

**당신은 기술들을 제공한다.** 도구들이 잘 사용되게(sharpen-ness) 하기 위해서 기술자는 솜씨를 질을 결정하면서 일해야 하는데, 그것은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예를 살펴보자 그것을 LPM에 적용하도록 해보자. 평신도목회자는 그가 조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사용하면서 적은 양떼를 돌보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적 은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충적인 기술(skill) 습득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만약 은사가 격려하는 것이라면 평신도목회자는 기도와 감정이입적(emphatic)인 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말(word)로 한 것만이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상처들을 듣는 데에 요구되는 모든 기술들(listening skill)은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기술들에 있

어서 계속 적인 성장은 우리로 하여금 목회에서 더 잘 진보적이 되도록 해줄 수 있다.

하나님의 할 일과 우리의 할 일이 함께 하여 전체를 만든다. 하나님은 그의 할 일을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할 때에 그의 사역은 완 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그 과정 (process)을 시작하셨다. 우리의 몸을 움츠리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거부하고 기술적 면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그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몸을 움츠리지 않는 이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충고를 필요로 한다: "너의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 (딤후 4:14); 그리고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 하게 하라" (딤후 1:6). 우리는 우리의 목회들을 하는데 부주의하고 태만할 수가 있다. 또는 우리는 평범하게 되기 위해 안주하면서 우리의 방법들에서 나약하게(뚱뚱고 멍멍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불꽃은 꺼질 수(die down)가 있다. 목회에 대한 우리의 걱정은 추상적인 양(단위)으로 치중하게 되어 목회에서 유효한 에너지를 죽여버리면서 영향을 식혀버리는 것이다. 만약 디모데가 바울의 충고 그의 은사를 무시하지(소홀히) 말고 은사를 불일 듯 하게 하라를 필요로 했다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 역시 같은 충고를 상기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평신도 목양이 생겨질 수 있는 종류의 교회는 평신도로 하여금 그들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let) 해주는 교회이다. 그리고 만약 평신도 목양이 진짜 일어나게 하려면 LPM과 같은 구조가 세워져야 할 것이다: 목회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right person)로 하여금, 올바른(right) 이 유들에서, 적합한(right) 사람들이, 적합한(right) 일들을, 올바른(right) 측면에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귀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라."**

**그들의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enable) 있게 하라.**

## Notes

1. Robert E. Slocum, '당신의 목회를 극대화하라, (Colorado Springs: NAV Press, 1990), p.170, 257
2. bid, p.9.
3. bid, p.170,
4. Ibid, p.257,
5. man은 희랍어로 (안드로포스) (anthropos)인데, 그것은 남자이든 여자이든지 간에 인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성(性)격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나 본질(genus or nature)을 언급하는 것이다. 6절의 시작에 '우리(we)'는 '사람(man)을 포함시킬 것을 분명히 한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사이에 구별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들 사이, 인간과 하나님의 구별을 말하는 것이다.
6. Ibid. Socum은 이런 입장을 74페이지와 166~198페이지(원서)에서 개발하고 있다.
7. Leadership, Christianity Today (1996년 가을) 62

# 제3장

## 평등적인 교회

An Egalitarian Church

### 무계급과 "사각지대"

**일요일** 아침 나는 좌석에 앉아 있는 한 평신도라고 내 자신을 상상해 본다.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동안 아래와 같은 질문과 생각이 나의 머리 속에서 서로 교차한다.

1. 왜 나는 여기 있고 그는 저기에 있는가? 그는 나보다 더 나은가? 그는 나보다 더 중요한가? 나는 그보다 한 수 더 낮은가?

다음과 같은 것들에는 의문이 없다...

- 그는 잘한다. 그의 설교들은 감명적이고, 재미있고 그리고 정보적 이다.
- 그는 중요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리고 그것은 중 요하다.
- 그는 높이 평가된다: 그는 자격이 있고, 존경받고, 회중의 영적 지 도자가 되도록 부름 받았다. 그것이 바로 그는 저기에, 나는 여기에 있는 이유이다.

2.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통한다. 그는 성경을 안다. 그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드린다. 그 강 단은 확실히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리 시킨다.

다음과 같은 것에는 의문이 없다....

-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 고 하나님께 아주 가까운 것 같다.
- 그는 기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올바른 말(words)을 발견 할 수 있고, 그들 을 진지하게 표현한다.
- 그는 강단에 있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은 그를 목회에 불렀다. 그는 목사이다. 그것이 바로, 그가 저기에 나는 여기에 있는 이유이다.

3. 만약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돕기를 원하면 교회에서 중요하게 되 고,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높은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중 요한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삶에 있

어서 나의 여정 (course)을 바꾸어야 할 것이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여 안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한참동안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런데 내 생각에 상 당한 잘못이 있음에 틀림없다. 나는 이것을 나중에 생각해봐야 할 것이 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돕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후에 많이 생각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 게 되었다:

- 왜냐하면 그는 설교를 잘하고 교회에서 중요하고 회중의 영적 지 도자로서 높은 위치 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고 회중의 영적 지도자가 아니기 때 문에 나는 이류(second class) 크리스천이다. 나는 안수 받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지 않았다. 그는 안수 받았기에 그는 나보다 낫다.
- 그는 저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저보다 한 수났다.
- 그는 강단 뒤에 있고 나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는 목사이고 그리 고 나는 무언가 부 족(less)하다.
- 하나님에게 그는 가깝고, 목회를 위해 그의 열정과 그의 앞서가는 영성은 하나님께 안수 받은 목회자로 부름 받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이다.

좀더 생각해보면 나중에 토론과 성서로부터 발견한 것들이, 다음과 같은 더 깊은 진리를 보여준다.

1. 나는 또한 목회를 하도록 부름 받았다. 내가 목회로 부름 받은 것 은, 믿음에 내가 부름 받을 때에 함께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나의 세례에서 포함된 새로운 탄생(new birth)의 부분이다.
2. 나는 또한 목회를 위해 영적인 은사가 주어졌다.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목회는 중요하고, 모든 자원자와 직업적인 목회자는 교회에 중요하다.
3. 나는 또한 목회자이다. 나의 목회와 그의 목회 사이에 차이는 '기 능적인 것이지 '서 열 (order)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그의 방면에 서 전문가이다. 나는 나의 영역에서 전문 가이다. 함께 우리는 하 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4. 나는 효과적인 목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충분한(full) 접근을 하고 있다.
5. 나는 또한 준비될 필요가 있는데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 님께서 나를 부르 셔서 하라고 한 것을 위해서이다. 신학교에 감으 로써가 아니라, 나의 교회와 공동체 안

에서 훈련 기회들의 혜택 (advantage)을 가짐으로써이다.

6. 나는 또한 내 목회를 하는데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의 권위와 나의 권위 양쪽은 어떤 자격증(credential)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목사의 직위(office)는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인식은 불행한 생각인데, 이유는 그 생각은 크리스천들을 두 계급으로 만들면서 양분시키고 말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근원은 교회가 신약성서 '몸(body)'의 모델에 머무르는 대신에, 로마제국의 군주적인(hierarchical) 구조를 채택한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역사적인 개발들은 어떻게 세속적인 문화가 크리스천 문화를 묶어 매느냐 하는 것을 입증해준다. 이 묶어 매는 것이 가끔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또 종종 저주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에 그것은 저주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군주적인 모델이 '몸(body)'의 모델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몸으로서 교회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의 서술은 강조되었지만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강조되면서도 또한 약해졌다.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다움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라 몸 가운데에서 부정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고전 12:22-25).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데에 여러 가지 계급(multi-level)의 '군주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모든 성도가 동등(every-member-equal)한 '몸'의 방법으로 대처하면서, 그런 군주적인 묶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통적인 교회는 이런 두가지 계급(two-class)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왜곡으로 인해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만약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봉사하기 원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교회)를 떠나서 신학 교에 가서 안수 받고 개교회들의 담임목사들이 되도록 잘못 인도하는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

1950년대에 와서야 교회는 하나님의 일(God's business)을 하는 데에 더 나은 방법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것은 목회에 대한 성서적 모델을 다시 발견하면서부터였다. 엡 4:11~12은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데에 목사들과 교사들이 참여함에 대해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 상황과 다른 성서들이 그것을 더욱 분명히 해주는 데에, 모든 크리스천은 목회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교단들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재발견에 참여하는데 그 결과는 적어도 두 번째 종교개혁 이상이다.

첫 번째 종교개혁에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었다. 두 번째 종교개혁에서 교회는 목회를 사람들에게 준다. 교회는 다시 계급이 없는 (classless) 교회가 되는 것이다. 평신도

와 성직자의 불평등은 하나님의 사람들(laos)이라는 동격(parity)에 의해 대치되는 것이다.

우리가 전수 받은 교회가 어떻게 성직자와 평신도와 군주 사이의 이 런 분리에 도착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의 발자국들을 다시 따라가 보는 것 (retracing)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의 여정을 수정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답 은 구약성서에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게 만든 다섯 가지 원인을 추적하여 봄으로써이다.

### 원인 1: 제사장들의 특별한 직책(order)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적인 직책(직위)은 제사장들을 나머지 성도들과 분리시켰다. 그들은 의식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에 대 하여 사람들을 대표했으며, 그리고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들을 위해 사 람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다. 레위지파로부터 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직책에 참여할 수 없었다.

### 원인 2: 모든 사람은 제사장들이다.

신약성서는 제사장들의 직책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예수 님의 오심은 그런 직책을 끝냈다(히 4~5장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 이다(벧전 2:9). 모든 크리스천은 목회를 위해 은사가 주어졌다. 거기에는 단지 하나의 직책이 있다: 라오스(Laos),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은 목회자들이다. 모든 사람은 제사 장들이다. 모든 사람은 "부름 받았다". 루터교회 학자인 오스카 퓨크트 (Oscar Feucht, a Missouri Synod Lutheran Church)는 "모든 사람은 목회 자이다』 (Everyone a Minister)라는 대담한 제목의 책을 썼다:

제사장과 사람들, 성직자와 평신도들 사이에 구별이 있는 구약성서는 끝이 나고 말 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 장들이 되게 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성직자들이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별한 성직의 직책이 없다."<sup>1</sup>

교회 역사가 케넛 스카트 라토렛(Kenneth Scott Latourette)은 마틴 루 터가 얼마나 강하게 크리스천들의 동등성에 대해서 **믿었는지 쓰고 있다:**

루터는 종교적인 직책을 가진 제사장들과 회원들의 사역이 들판에서 농부의 일이 나 집에서 일하는 여성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관점(the sight)에서 더 성스럽지 않다는 것을 주장했다.<sup>2</sup>

### 원인 3: 한 직책, 많은 기능들

평신도와 사역자 사이에 차이점들은 직책(order)이 아니라 기능 (function)이다. 교회에 대한 베드로의 정의- "왕같은 제사장"은 단지 한 가지 직책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한 직책은 제사장 (또는 목회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기능들에 그것을 주셨다. 우리가 이 책에서 연구하려는 기능은 목양이다. 그러므로 '목사 (pastor)'는 직책이 아니라 기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 제사장들인가? 새로운 교회목회를 위한 제안이라는 책에서 한 스킵(Hans Küng)은 "신약성서는 고정적 교회직책(office)을 진짜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거의 상호교환적인(interchangeably) 다양한 용어들로 사용된다. 성직자 직함은 제도화(institutionalized) 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sup>3</sup>

#### 원인 4: 새로운 직책, 성직자

불행하게도 두 직책의 변화(change)는 교회 역사 중에 가장 큰 사건들 중에 하나인 A.D. 312년에 있는 콘스탄틴의 칙령으로서 시작되었다. 그때까지 교회는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 받아왔다. 그러나 A.D. 312년 10월 28일, 꿈을 꾸는 동안에 황제 콘스탄틴은 "이 표로 정복하라"라는 말과 함께 하늘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다. 그래서 그는 정복했다. 그때 그는 그의 놀라운 군대 승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의 입증으로서, 기독교 종교의 우수성으로 보았으며, 기독교를 합법화했다. 교회는 갑자기 영광을 받았고 마음대로 활개치기 시작했다.

그 후에 교회는 로마정부의 군주적인 구조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그 령게 되니 그것은 신약성서 '몸'의 디자인으로부터 멀어지기(drift) 시작하였다. 군주적인 구조는 어떤 기능을 상승시켰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계급조직 시스템은 그의 나라에서 가장 큰 것이 되려는 경쟁적인 것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대조되는 것이었다(막 10:35~45 을 보라).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구분이 뚜렷해졌다. 성직자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목양하고, 예배의 형식들을 창조하였다. 사람들은 으레 기도하 고 돈 내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한다: "평신도는 나와서 돈 내고 입 다무는 것이 요구되었다."). 12세기경에 정경율법가 그라티안(Gratian)은 그의 교서들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두 종류의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신적인 직책에 헌신된 성직자와 그리고 '평신도'로 부름 받은 다른 동료의 크리스천들이다."<sup>4</sup>

교회는 원래 기능했던 것들로 특별한 직책들을 형성했다. 예를 들어 엡 4:11에 나오는 5가지 목회 종류에서 목사들과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계급적인 직책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목회와 가르치는 은사들을 주신 사람들의 기능들이다. 교회는 그들을 서열화시키고 이런 서열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더 큰 중요성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이런 기능들을 조직화하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 원인 5: 믿는 자들의 제사장직에 대한 재발견

가끔 교회는 군주적인 것에 붙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그 자체가 자유 로워지려고 애쓰기도 한다. 마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16세기의 종교 개혁은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재발견한 것이 아니라, 또 한 '믿는 자들의 제사장직'을 재발견하였다. '제사장직'이란 두 가지 역할들을 포함한다: 1)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는 '제사장', 그리고 2)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목회자'.

종교개혁은 모든 믿는 자는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교회는 계속하여 "모든 믿는 자의 제사장" 개혁을 따라 왔다. 그러나 두 계급 시스템이 너무 강하여 "모든 믿는 자는 목회자"라는 개혁은 실패하게 되었다. 1950년도까지 교회는 이 개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많은 지도자들과 회중들이 모든 크리스천들은 목회자라는 것이 들어있는 신 약성서의 모델로부터 잃어버렸던 것을 재발견하려는 시도가 일어났으며, 그리고 크리스천 사이에 차이점은 '기능'이지, '서열'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깨어난 교회는 그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것은 목회하는 것을 그들에게 돌려줌에 의해 평신도의 능력을 방출하게 되고, 목회를 하도록 평신도를 준비시키는 목사의 기능을 회복시킴에 의해 목사 안에 있는 새로운 힘을 방출해내는 것이다. 신약성서 헬라어 라오스 (laos)의 역사적 의미는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이라는 것이다.

교회는 새로운 순서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포함하여 한번 더 계급이 없게 만들었다. 라오스(Laos)로서 성직자는 이제 목사들로서가 아니라 신적으로 주어진(divinely-ordered) 그들(ministers)의 역할들을 성취할 수 가 있는데, 그 기능은 바로 그들의 목회들을 위해 다른 크리스천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오스'로서, 평신도들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신적으로 정해진 그들의 역할들을 이제 성취하는 것이다.

두 번째 종교 개혁은 모든 크리스천을 1급(a first-class)으로 본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는 한 행동을 통해서 평등한 교회를 위해 모두 앞서가는 원리들에 대해 확실하게 모델이 되고 있다. 만약 한 그림이 수천 마디 말(word)의 가치 있다면 다음의 장면은 수만마디 말(word)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물을 대야에 부어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였고, 그를 두르고 있던 수건으로 그들을 닦는다. 그가 그들의 발을 씻기를 마쳤을 때 그는 그의 옷을 걸치고 그의 자리로 되돌아 왔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이해하느냐? 라고 그는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가서 너희에게 한 것처럼 해야 한다... 자 이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았으니 만일 너희가 그것을 그들에게 하면복이 있으리로다(요한복음 13:5,12,15,17)

어떻게 그가 이런 원리들을 시행했는지(models)를 살펴보자.

### **그는 종(servant)이었다.**

그는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는 종들이 하는 일을 한 종이였다. 그의 섬김은 그의 본성의 보기 어려운(hard to see) 부분을 나타내셨다. 복음서들은 대부분이 그의 능력, 지식, 그리고 지혜를 기록한다. 이것은 그를 종으로서 나타내면서 모든 그의 행동을 끊임없이 바꾸어 표현해 주는(만화경 같은) 행동이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그의 아버지를 섬겼다. 그는 병든 자들을 고침으로 그들을 섬겼다. 그는 사람들을 먹임으로 5,000명을 섬겼다.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오래 전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마 20:28을 보라). 그는 진실된 '종의 정신(servant spirit)'을 가졌다.

우리들 목사에게 있어서, 우리의 교육, 목사안수, 그리고 자기세력 강화를 위한 유명세를 사용하도록 하고, 위대함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왜곡시키고, 천한 일(하인이 하는)은 우리의 위치 아래라고 생각하여 우리를 속이도록 하는 '우리의' 정신들은 무엇인가? 평신도들은 목사가 이런 인공적으로 상승된 수준에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이런 엄청난 오류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님의 예는 이런 오류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영(롬 8:9을 보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전 2:16). 그 영과 마음을 사용하자.

### **그는 섬김에 있어서 우수하였다.**

그는 모든 자질들에서 우수하였다: 가르침, 기도, 치료, 그리고 이제 섬김에서, 그리고 우수성의 분위기(an air) 없이 탁월했다. 그의 제자들 앞에서 무릎꿇고, 손에는 대야와 수건을 들고 있는 주님은 위대함의 총명한 분광(스펙트럼)을 보여 주었다. 그분은 정말 주님이었으며 진짜 종이였다.

섬김에 있어서 우수성을 보여주는 나의 두 친구들이 기억난다. 그들은 교회에서 식사 후에 접시들을 가지고 부엌으로 올리면서 테이블을 치우는데 규칙적으로 돕고 있다. 한 친구는 테이블을 준비하고, 음식을 나르기 위해 항상 일찍 도착한다. 그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주 중에 집의 부엌에서 하는 것만큼 편하게 느끼고 있다. 이것은 입혀지는 것(put on)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본성이다.

### **그는 평등주의자였다(계급이 없는)**

비록 그가 그들의 랍비와 주님이었지만 그는 그의 제자들을 형제들과 친구들로서 가르쳤다(마 12:49. 요 15:15을 보라). 그는 사적이든지 공적이든지, 내적이든지 외적이든지, 무의식 중이든지 의식 중이든지, 그의 위치를 자랑하지(으시대지) 않았다.

그는 그의 역할에 대해, 그를 하나의 계급에 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른 계급에 놓는 불평등을 창조함이 없이 엄청난 책임(그들의 믿음과 삶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과 높은 유명세(랍비, 하나님의 아들, 치료자)를 받아 들었다. 그는 단순히 그의 아버지의 뜻을 수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들의 평등함(동등함)은 그들 역시 그들의 아버지의 뜻을 수행했다는 사실에 두는 것이다.

### **그는 불평등함 없이 차이들을 확증했다.**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로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요 13:13), 제자들은 그의 생도들이었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결코 더 위대하거나 덜 위대하거나, 또는 중요성에 있어서 더 높거나 더 낮은 수준을 암시한 것은 아니다.

베드로는 단지 더 위대하거나/덜 위대, 그리고 더 높거나/더 낮은 것의 범주들 안에서만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의 종이 됨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는 아직 예수를 진실로 알지 못했음에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섬기려는 그의 바램에서 그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발을 결코 씻을 수가 없습니다" (6절). 베드로에게 있어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엄성을 깎아 내리는 것이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가 세상에 와서 하려고 한 섬김의 절대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는 가르치고, 치료하고, 먹이고, 위로하고, 종교지도자들과 토론하면서 섬겼다. 그는 이제 발을 씻기면서 섬긴다. 몇 시간 이후에 그는 그의 친구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주면서 최종적인 섬김을 실천할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해야 한다." (15절)

나는 이런 방면에서 내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 예수님의 모범으로부터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을 끌어냈는데, 나는 당신 개인에게도 그리고 교회 전체에게도 적용하기를 바란다.:

첫째, 예수님은 그들의 교회 삶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들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그 차이들은 '기능'이지 '서열'은 아니다. 서열은 등급, 계급, 지위, 품종, 장르, 성직계급, 타입 또는 종류들을 의미한다. 교회 안에는 한가지 서열(One Order)만이 있다 - 라오스 (laos), 즉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할 때 한가지 계급을 확증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나의 형제와 자매이다."(막 3:35)

그러나 차이들은 기능 안에서 존재하는데 사람의 등급, 가치, 또는 중요성에서 차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종류의 차이에서이다. 우리의 공통분모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쳤다.

둘째, 예수님은 그 자신이 베드로의 정신적 감옥으로부터 탈출할 필요가 있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씻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예수님은 그 자신이 그에 대해 강요함이 없이 베드로를 섬길 수 없었다. 사람들이 그들의 목사들을 가두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목사들의 정신적인 감옥은, 그들로 하여금 이런 역할들을 한정 짓게 만든다.

내가 하와이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갇혀 있는 것(imprisonment)을 경험하였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였다(알로 하의 영은 실제적이다). 나는 그들의 카후(Kahu:목자에 대한 하와이 말)였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를 높이 평가하도록 도왔으며, 그것은 내 자신이 뭔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것 때문에 나

는 그들의 '친구'와 '형제'가 될 수 없었다. 나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것을 좋아했다. 그들은 나를 지나치게 우대해 주었다. 그들은 내 앞에서 위엄에 압도되었다. 나는 그들이 닿을 수 없는 존재였다. 어린애 들은 내가 신적인 존재(deity)처럼 나를 올려다 보았다.

그러나 나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상승된 위치에 반발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나의 자신(the self)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카후(Kahu: 목자)에서 그들은 나로 하여금 그들을 알게 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나를 몰고 갔다. 그리고 나는 또한 그들을 알 수가 없었다. 그들 사이에서 나의 목회는 상당히 제한되어 버렸다는 것을 느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역할로부터 내 자신이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한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를 우수한 상류수준(a superior upper level) 역할에 구속하지 않도록 했다. 그는 베드로에게 심한 말을 하면 서까지 그 자신이 자유로워졌다. 베드로는 묵묵히 따라하였고,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다: 첫째, 그리고 최상에서 종(servant).

목사는 그들 자신이 전통적인 교회가 그들에게 던지는 역할과, 그들이 그들 자신들에게 전통적으로 던지는 역할, 양쪽으로부터 탈출될 필요가 있다. 평신도는 전통적인 교회가 그들에게 준 역할로부터, 그리고 전통적인 목사가 그들에게 던지는 역할로부터 그들 자신이 탈출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들이 양쪽 다 그들의 전통적(tradition-set) 역할들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그들 각각의 목회들은 심각하게 곤란해 질 것이다.

### 그는 우리의 모범이다.

예수님의 다섯 마디 말이 그것을 전부 말한다: "내가 한 것처럼 하라." 만약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주님보다 낫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만이다! 만약 우리가 전통적인 두 계급 이분법을 받아들이거나 영속시킨다면, 우리가 우리의 주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만이다! 그는 그것이 흥측한 머리를 쳐들 때마다 두 수준에 대한 생각을 무효화시켰다; 그는 "그것이 봉오리(싹)일 때 따버렸다."

이것에 대한 두 예들이 있다.

첫째,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의 발을 닦는 것을 금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그의(His) 삶의 부분이 되기를 원했다면, 그는 씻는 것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말 하면서 그를 거부하자, 베드로는 받아들였다.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의 대상으로 올려놓을 때에 유혹은 그것을 단지 즐길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이용한다. 만약 예수님이 전통적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였다면, 그는 베드로로 하여금 그의(His) 발을 씻도록 했을 것이다.

둘째,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갖기 위해 다른 제자들과 겨루었다(막 10:35~38을 보라). 다른 제자들은 분개했다. 그들의 요청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그들을 두 개의 그룹들(two camps)로 나누도록 위협하였다. 예수님은

무엇이 요 구되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12명에게 말하면서, 특권에 대한 이런 사스러운 욕망들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두 계층(two-storied)으로 되어 있는 전통적인 교회는 같은 꾸지람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그것에 대해 도전이나 변화에 대한 행동 없이 교회 안에 두 계급의 특성을 계속 묵인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요소를 옆으로 재켜 놓는 것이 된다; 우리는 그가 그의 교회를 위해 만들어 놓은 모범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무시, 반란, 자랑, 조롱하는 몸짓, 그리고 교만, 불순종, 또는 죄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제 너희가 이런 일들을 알았으니 만약 너희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복이 있을 것이로다" (요 13:17).

우리는 한 계급, 한 수준, 평등한 교회를 목회-blind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용어는 '색맹(color-blind)'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의 피부 색깔의 차이들을 '보지 않는' 사람들을 서술하는 용어이다. 목회-blind(MB)교회에는 한 목회를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한 한 목사를 다른 목사보다도 더 높게 생각지도 않는 것이다. 목회-blind는 우리들로 하여금 라오스(Laos), 하나님의 사람들로써 그들의 모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크리스천들을 보도록 해 줄 수 있다.

전통적인 교회<sup>5</sup>에서 한 목회는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이며 한 목사는 다른 목사들보다도 더 높게 보여지고 있다. 내가 믿기로 미국장로교는 이것에 대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당회장'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목사', '스텝의 책임자'로 대치하고 있다. 이것은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위치보다도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하나의 시도라고 본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지도자들 사이에 차이들을 잘못 인식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아볼로보다 나왔다고 믿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볼로가 바울보다 나왔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게바가 가장 위대했다고 느꼈다. 앞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가할 필요 없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자랑스럽게 주장하였다.

그들은 다투었다. 그들은 그들의 캠페인들 뒤에 줄서면서 그룹들로 나누어 졌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다른 이는, "나는 게바를 따른다"; 또 다른 이들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전 1:12).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과 생각에서 완전히 하나 되기를 호소했다(16절).

그리스도는 나누지 않았다(고전 1:12)고 그는 썼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순서에는 차이가 없고 중요성에서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보도록 했고, 그들의 목회들이 서로가 경쟁 적이기보다는 보충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결국 아볼로는 무엇이며? 그리고 바울은 무엇이나? 단지 주님께서 각각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종들에 불과하다. 내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그것에 물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고전 3:5,6).

바울에게 있어서 최상의 중요성은 하나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것들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다" (3:7).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는 목적에 있어서 하나이다. 양쪽 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이다. 이들이 '한 것(what they did)'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칭찬은 그들을 불렀고, 그들의 봉사가 효과적이 되게 한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지도자들 사이에 다른 등급을 매기는 잘못된 개념들이 그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그들의 개념으로 급전(metastasis)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서둘러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들이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각각에게 있다. 그 다음에 그는 이런 말들을 계속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고전 3:21~4:1).

바울이 그의 선교여행 중에서 그를 신(神) 헤메스(Hermes)로 생각한 이교도에 의해 그렇게 주어진 우수성을 부인해야 했었다. 이제 그는 그들보다 아주 높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 그들에게 우수성을 부인해야 했다. 이교도 지역 루스드라에서 자신에게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군중들에게 소리쳤다: "당신들은 왜 이런가? 우리 역시 단지 사람들이며, 너희와 같은 인간이다. 우리는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행 14:15). 이제 교회 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한 것을 해야 하는 종 (a servant)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크리스천들을 꾸짖는다.

사도 바울은 평등주의의 모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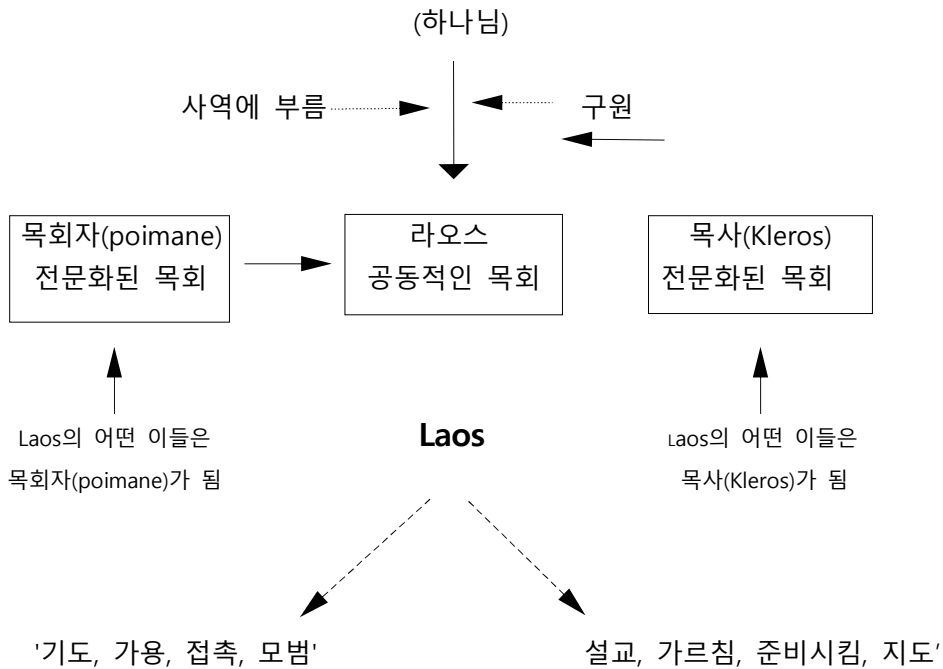
- 그는 아버지권위를 갖지 않는 **아버지**였다.
- 그는 독재적이지 않는 **사도**였다.
- 그는 횡포를 부리지 않는 **지도자**였다.
- 그는 권위주의자가 아니면서 **권위**가 있었다.
- 그는 자랑함이 없는 **모범**이었다.
- 그는 그의 권위를 높게 함이 없이 **평등**하였다.
- 그는 조종함이 없이 **고쳐주었다**
- 그는 선동주의적이 아니면서 **가르쳤다**.
- 그는 참견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충고**했다.
- 그는 조작함이 없이 **설득**하였다.
- 그는 징벌함이 없이 **훈계**하였다.
- 그는 그의 확신을 희생함이 없이 **협상**하였다.
- 그는 자기 연민을 하지 않고 **고난** 받았다.
- 그는 통합성을 잃음이 없이 **적응**하였다.

그는 자신을 **종**으로 보았다. 우리는 그를 **주인**으로 본다.  
 그는 자신을 **죄인**으로 보았다. 우리는 그를 **성인**으로 본다.  
 그는 자신을 **가장 작은 사도**로 보았다. 우리는 그를 **가장 위대한 사도**로 본다.

얼마나 교회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교회에 더 영향을 끼친 그 사람의 평등한 특징으로부터 멀리 옮겨졌는가? 교회가 수세기 전에 있었던 수준 차이가 있고, 정도를 벗어난 교주적인 것으로 표류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잘못된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군중들에게 "우리는 단지 너희와 같은 인간일 뿐이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교회지도자들이 오늘날에 이런 식으로 외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다. 그 크기는 점점 증대되는 것이다. 모든 교회 지도자와 모든 교회 성도는 그 크기가 증대되도록 도와야 한다.

단지 한 수준, 계급이 없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인정받은 목회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단지 거기에는 직업적인 목사들과 같이 '그들의 목회들을 하려고 지원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준 목회자들이며, 그가 그들을 부르는 것이다.



위의 도표는 우리로 하여금 평등주의의ダイナ믹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 도표는 "공동목회"로부터 다른 전문화된 목회로 가는 많은 추가적인 커브화살표를 더 만들 수도 있는데, 전도, 사회적 이슈, 타문 화선교, 공동체 개선조직, 청소년 목회 등등이다.

목사들을 내리지 않고 그리고 평신도를 올리지 않은 것에 주목하라. 그 대신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 '라오스(Laos)', 하나님의 사람들이 라는 높은 수준에서 함께 연결(joined)되어 있는 것이다. **목사를 때려부 수는 것이 아니고**(나는 가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또한 반성직 자주의(anti-clericalism)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가끔 교회역사를 통해 서 일어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요 목회 안에서 하나라는 뜻이다. 단지 우리의 기능들만 다를 뿐이다. 그리고 기능들은 분리하기 보다는 연합하는 것이다. 그들은 마치 건강한 몸의 많은 지체들처럼 경 쟁적이기보다는 서로 보충적이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무엇인가? 교회의 목사와 안내담당자 사이에 어떤 분명한 차이는 없는가? 그렇다. 그리고 아니다(yes and no). 교회 안에서 우리는 등급에 차이들을 창조함이 없이 기능에 차이점을 단언 할 수 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어떤 다른 조직 들처럼 하나의 조직으로 본다는 것이다. 방청객들 중의 한사람이 바닥 에 있는 반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CEO: chief-executive-officer: 대표회장)은 엄청난 책임과 더 힘이 있고 남들이 부러워 할 만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는 계급적인 생각을 강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CEO로 코 회의 목사를, 방청객으로 안내원 중의 한 사람을 잘못 대비시키고 있다. 우리는 하나는 다른 것보다 더 높게 등급을 매기고,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을 더 낮게(lower)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 는 이 세상 왕국의 방법이기 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해 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위대함(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He)가 만든 모범에 대해 어 려운(힘든) 사실은 만약 그가 가르친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만약 우 리가 그의 모범을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재 문화와 다투게(맞지않 게) 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를 믿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 리는 그(Him)와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는 가르치고 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의 높은 관리들이 저희들 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막 10:42-44).

교회는 사회의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함으로 교환하고 사람들이 부 러워하는 조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교환하고 부러운 조직체, 성서적 모델은 '몸'의 모델 인데 비록 모든 것이 다른 것들과 다르지만 각 부분은 동등하게 중요하며 모든 다른 부분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차이점들은 대표회장(CEO)과 방청객 사이에 차이처럼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머리와 발 사이에 차이처럼, 각각은 전체에 필요한 것이다. 고전 12:22~24(이 장의 앞 부분에서 인용했는데)은 교 회가 오늘날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다고 나 는 믿는데, 다음과 같이 써 볼 수 있다:

다른 것들만큼이나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ways)에서 봉사하는 그런 크리스천 들은 절대

적으로 필요하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들은 우리가 특별한 명예 로 대우하는 것보다 덜 명예로운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을 한 몸으로 결합 시키며,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 큰 명예를 주셔서, 그래서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에 나눔이 없도록 하신다. 몸의 모든 부분들은 다른 모든 부분들을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차이점들은 공리주의(utilitarian)이다. 그들은 우리 주님에 의해 맡겨진 기능적인 차이들인데, 그럼으로 해서 그의 사역의 모든 것은 수행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믿음, 예언, 등등에서 차이들은 하나의 사역이며, 같은 성령의 사역이고, 그리고 그는 그가 결정하시는 대로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로'] 각각에게 그 들을 주신다(고전 12:11), 그러나 우리의 각각에게 주신 은혜[목회를 위해는 그리스도가 그것을 분량대로 주신 것이다(엡 4:7).

각자는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받은 또는 지정된 은사들이 무엇이든지 사용해야 한다(벧전 4:10),

우리들 각자는 우리의 부분을 이루는데 다른 모든 것들에 의존한다. "체인(chain: 쇠사슬)은 단지 그것의 연결 고리 중 가장 연약한 부분만 큼만 강하다." 어떤 한 사람이 전체그룹에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한 사람이 전체그룹의 영향을 증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두 가지 동등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상호의존과 선교' 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독립하여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선교를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는 없다. 이륙 한지 몇 초 후에 폭발하여 7명의 우주비행사들을 모두 죽인 우주 로켓 '챌린지(the Challenge)' 호의 참사를 생각해 보라. 고리를 디자 인한 사람과 지휘관(조종사)의 상호적인 중요성은 무엇이었는가? 상호 의존과 선교는 제목들, 등급, 그리고 이름표(name plates)에 관계없이 그들을 같은 수준에 놓는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동등하게 중요한 참여자 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상호의존 한다. 왜냐하면 성서는 교회 안에서 단지 한 순서(one order)를 인정하고 우리들 사이에 차이점들을 한 순서에 하나님께서 지정해주신 기능들의 다양성 속에 단지 있는 것 이다. 그 다음에 각 기능 안에는 인정될 수 있는 차이점들이 있다.

#### **실용주의 차이들(Utilitarian Differences)**

우리는 다르다. 그러나 우리의 다른 점들은 우리가 하는 것에 있지 우리가 누구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유기체이지 조직이 아닌 것 이다; 그러나 유기체라 할지라도 조직화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회장이 되어야 하고 의장, 총무, 진행자 등등이 되어야 한다.

#### **자질적인 차이들(Quality Differences)**

경험, 훈련, 능력, 기술의 다양성: 주의함/부주의함, 전반적/미완성 적, 효과/비효과적

#### **개성적인 차이들(Personality Differences)**

내향적/외향적, 따뜻함/형식적, 말많은/간결한, 행동적인/얌전한



### **성숙도의 차이들(Maturity Differences)**

새로운 크리스천/익숙한 크리스천, 현명한/현명치 못한, 박식한/그 령게 박식치 않은, 연약한/단단한(고전 3:2을 보라)

### **훈련의 차이들(Training Differences)**

고등학교/대학교, 워십/신학교, 삶의 경험/공식적인 교육

### **효과에서의 차이들(Effectiveness Differences)**

설득적인/연약한, 인상적인/비인상적인

### **헌신의 차이들(Commitment Differences)**

전체적/부분적, 그리스도중심/자기중심, 영적/세상적

### **나이 차이들(Age Differences)**

14/84, 25/50, X세대/노인세대

다른 합법적인 차이들이 또한 존재한다. 바울은 그들을 인정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보내려 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빌 립보에 있는 그의 친구들에게 편지 썼다 (빌 2:20,21을 보라), 모든 다른 사람은 그들 자신의 흥미(관심)를 위해서 있지, 다른 사람들의 흥미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다른 사람 중심의 목회를 위해 이 사람의 열정에 있게 되었을 때 그는 머리가 되었으며, 나머지 위에 존 하게 되는 것이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추천할 만한 인물이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라" (빌 2:29,30). 목회를 위한 그의 엄청난 열정은 그를 육신적인 위험에 처하게 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거의 죽을 뻔 하였다.

그러므로 목회 안에서 우수성의 불균등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 때문 이 아니라 헌신의 본질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판함이 없이 인식될 수 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존경하라(롬 13:7).

바울은 교회의 일들을 잘 지시하는 장로들은 두 배의 존경을 받을 가 치가 있다고 썼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만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가? 확실히 그렇다. 자질과 효과 면에서 항상 차 이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수행에 다양함은 순서에 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에 도전하지는 않는다.

내가 믿기로 예수님은 달란트에 대한 비유에서 수행의 차이들을 언 급했다(마 25:14~30). 비록 각각 두 사람이 자신들의 돈을 증가시키려 고 애를 썼지만 실제적인 달러의 수는 달 랐다. 5,000달러를 가진 사람은 5,000달러를 더 얻었다; 2,000달러를 가진 사람은 2,000달 러를 더 받았 다: 그 차이는 주인에게 차이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양쪽 다에 똑 같이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의 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어 려움에 처하고 말았다.

우수성에 있어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최상의 잠재력 에 닿으려고 애쓰는, 목회를 극대화하려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도전이 되어야 한다. 영적인 것들을 소유한 형제들과 자매들을 보는 것은 목회를 위한 열정을 폭발하는 것이고, 실천에 있어서 우수한 사람은 우리의 은사 있음을 완전하게 하는데 헌신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고 평범함을 부인하려는 우리의 다른 것들을 자극(격려)해야 한다.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충고할 때에 '충실하게'란 말을 사용했을 때 목회에 있어서 우수 성을 언급했는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또는 목회)..... **충실하게**... 봉사하라" (벧전 4:10),

모든 사람은 일급(first-class) 크리스천들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일 급으로 일(first-class job)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서열에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만큼 잘 목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큼 목회를 하는지를 보도록 하는,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뿌리부터 잘못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could)과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것은 히브리서 10:24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목회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은 우리를 격려하게 되며, 그들이 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상에서 하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같은 에너지와 같은 영(spirit)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그들이 하는 것보다 더 낫게(better)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당신은 이제 새롭게 회복된 곳(감추어진 곳), 즉 그리스도가 우리 시대에 그의(His)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진리의 본 체를 소유하게 된다: 즉 평등하고, 계급이 없고, '목회-브라인더 (ministry-blind)' 하고 또 한 서열(one order),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진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는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 에다음은 이런 진리를 위해 주문 제작한 것들이다.

지도자들을 위하여: 이 진리는 당신의 교회를 전통주의에 갇혀있는 것(confines)으로부터 그것을 평신도목회라는 새로운 영역 속으로 들어 가도록 인도하면서, 당신의 교회를 자유롭게 하려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당신을 무장(arms)시킨다. 이것은 진리의 능력에 대한 예수님의 확 신에 대한 올바른 적용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 리라"(요 8:32). 그것을 설교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관해 얘기하고, 그것을 담을(to house) 구조들을 창조하라. *평신도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라!*

교회성도들을 위하여: 이 진리는 당신으로 하여금 목사와 함께 한 부 분임(parity)을 확신시킬 것이다.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거울 앞에 서 서 '나는 목회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에게 권위를 줄 수도 있다(어 떤 여성도가 이렇게 했다고 나에게 말했다). 당신과 목사 양쪽을 라오 스(laos)로, 즉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도록 하라. 그것을 믿고, 간직하고, 당신이 할 것에 대해 기도하라. 그 다음에 행동하라, *평신도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라!*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만약 당신 교회의 문화가 "모든 성도가 목회자이다"라는 것을 포함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 함께 일하라. 문화변화는 설교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설교만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 문화변화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 문화변화는 전통적인 모델로부터 새로운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다. 그것은 당신이 믿는 것,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당신 서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그리고 또한 당신이 하는 것의 변화를 요구한다. **평신도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라!**

교회전반을 위하여: 폴 스티븐스는 잘 표현하였다. "모든 성도의 목회 (every-member-ministry) 없이는, 우리는 성서적인 진리에 사는 것이 아니고, 비 전략적인 리더십 전개, 회중과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 미개 발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평신도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라!**

만약 당신이 이런 진리와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어디에 신가(somewhere)부터 시작해야 한다. 회중의 목양을 평신도에게 주면서 시작하라. 이것을 하는데 형태(format)는 이 책의 부록 H에서 제공하고 있다. 수백 개의 교회들이 우리의 LPM모형을 사용하고 그리고 평신도가 또한 목회를 위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들은 또한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았고 직업적인 목사들만큼이나 목양을 함으로써 힘이 더 생겨지는(turn on)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라.”  
평신도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라!**

## Notes

1. Oscar E. Feucht, *Everyone a Minister*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94), p.64.
2. Kenneth Scott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 Volume II, as quoted by George G. Hunter III in his book *Church for the Unreached*, p. 121.
3. Patricia Page, *All God's People Are Ministers*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3), pp.36-37
4. Ibid, p.64,
5. 내가 "전통적인 교회"라는 문구를 사용할 때에 나는 로렌 매드(Loren Mead)가 그의 책 '과거 그리고 미래교회, (Washington D.C., the Alban Institute, 1991)에서 정의를 내린 기독교 국가시대, 즉 AD. 312에서 1950년대까지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군주적이면서 지나친 기관주의(over-institutionalized)였다고,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두 계급들로 나누어 버렸다고 묘사했다. 즉 성직자와 평신도,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전통적인데 그들은 과거와 같이 하려고 하며, 어떤 변화 없이 절뚝거리며 다음 세기로 그대로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단지 일들은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이 될 것이다'라고 외치는 반면, 올해는 단지 일들은 그들이 되어야 할(미래) 그런 방법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한다.
6. 이런 성서적인 근거들은 한 줄 한 줄이, 바울의 삶과 목회의 이런 부분을 연구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이다: 아버지(고전 4:15; 딤후 1:2); 사도(롬 1:1; 고전 15:9,10); 지도자(행 20:13 ~38 권위(고전 11:17~34); 모범(고전 4:16; 살전 1:6); 동등(고전 5:18~21; 빌 4:3); 수정(고전 5:1~5; 빌 4:2); 충고(딤후 2:1~6; 딤후 2:14~19); 설득(행 17:16~34); 훈계(딤후 1:3~7) 협상(행 16:3); 고난(빌 1:12~14; 4:10~13); 적응(고전 9:22); 중(롬 1:1; 고전 3:5, 4:1); 죄인 7:14~24; 딤후 1:15~16); 작은 사도(고전

15:9).

7. 이 도표의 기본 아이디어를 위해, 나는 갈로우(James G. Garlow)의 책에 의존하고 있다. Partners in Ministry (Kansas City, Mo: Beacon Hill Press, 1982), p.43.

8. R. Paul Stevens and Phil Collins, The Equipping Pastor (Washington, D.C., The Alban Institute, 1993), p.XI.

# 제4장

## 목회 균형을 유지하는 교회

A Ministry-Balanced Church

대사명 : 대헌장

**미네소타** 이타스카(Itasca) 주립공원에 있는 미시시피강의 발원지는 많은 모험가들에게 있어서 오랜 카누여행의 출발점이 되어 왔다. 나의 가족과 나는 몇 년 전에 이 아름답고 시원한 곳에 캠프를 친 적이 있다. 우리는 서반부에 있는 가장 큰 두 개의 강들 중에 하나의 좁은 시발점에서 출발하여 바위와 바위 사이를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스릴이 있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이타스카 호수를 떠난 후에 거대한 미시시피는 멕시코만을 향해 2000마일의 항해를 하게 된다.

다른 큰 강—아마존(Amazon)은 남미에 있다. 이런 두 유명한 물줄기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엄청나게 큰 몸체, 즉 대서양의 부분이 된다는 것이다.

두 개의 다른 성격의 큰 물줄기가 신약성서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데, 그들의 물줄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더 큰 대양에 모이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물줄기는 대사명(the Great Commission)인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으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다(마 28:19,20). 다른 것은 친숙하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대헌장(the Great Chart)인데, 그의(His) 양떼를 돌보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다(요 21:16).

하나는 교회에 대해 제자를 만들라는 요청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제자들을 돌보라는 것이다. 평신도목회자 사역(LPM)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는 이런 두 가지 줄기를 평등하게 하려고 애쓸 것이다. 한편으로 그들은 그런 은사 받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선교와 전도를 위해 디자인된 목회들 안에서 제자들을 삼도록 부름 받았다. 다른 한편으로, 그런 은사 받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목양(pastoral care)을 위해 디자인된 목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돌보도록 부름 받았다. 어느 하나도 다른 것을 무시해서는 완성될 수 없다. '이것이나 저것'이 아니라 '양 쪽다'이다. 균형이 열쇠이다.

내가 믿기로 하나님은 대헌장을 성취하는데 돕기 위해 평신도목회자 사역을 일으키셨다. 그렇다고 대사명을 비난하려는 생각이 아니다. (수년을 통하여 내 자신의 목회에너지는 제자들을 만드는 데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성서가 평신도 목양(pastoral care)에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강조는 내가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한 줄기에 둔다는 것이다.

역사는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를 기록하고 있는데 - 대헌장을 의미하는 것 - 기본적인 인간권리와 다른 권리들을 보증하는 헌장으로, 1215년 6월 15일 영국의 남작들에 의해 요한 국왕(King John)으로부터 더 쟁취한 것이다. 나는 LPM에 대한 마그나카르타를 뵈전 5:1~4로부터 더 떠올리는데 왜냐하면 회중적인 돌봄의 이런 모델은 교회의 모든 성도의 기본적인 인간 권리가 Pastoral care라는 것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신약성서를 통하여 대사명의 흐름은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의 신용(명성)에 대해 교회는 이런 물줄기를 지나간 3세기 동안 아주 열심히 수행했다. 그러나 대헌장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나는 여러분이 나와 함께 이렇게 덜 알려져 있는 물줄기를 탐험하는 엄청난 경험으로 초청하려고 한다.

우리는 발원지들로부터 시작한다. 3개의 거품 나는 샘물들이 Pastoral care의 이런 엄청난 흐름을 공급해준다.

- 예수님의 명령: "내가 너희나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요 13:24).
- 예수님의 기도: "내가 그들(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나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 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17:9).
- 예수님이 말한 것: "내 양떼를 돌보라" (21:16).

물론 이탤릭체는 내가 한 것이다. 그것들은 분명히, 예수님은 이미 그의 것(His)이 된 사람들을 위해 caring에 엄청난 중요성을 둔다는 것이다. 이런 선택적인 주의력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크리스천 엘리트의 식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단지 크리스천들만이 하나님에 대한 문제 (matter to God)라고 주장하는 것이 위험하기까지 하다.

물론 이런 생각은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결국 예수님이 일찍이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를 만들라는 것-"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라"(마 4:19)-은 그의 양떼를 돌보라는 이런 부름을 예견한 것이다. 그는 두 개의 목회들 사이에 균형을 말하였다.

엘리트의식 위험은 우리를 깨어나게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와서 우리의 교회들에 참여할 때에 그들은 사랑 받고, 들려지고 양육되고, 기도되고, 격려 받아야 한다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도록 해준다. 그들은 목양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대헌장은 이런 권리를 보증한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향한 물줄기를 타고 여행하고 있다. caring 다이내믹은 사도들이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일곱 사람을 선택했을 때 실 제적인 것이 주어진 것이다-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서가 아니라, 그들의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위해서이다(행 6:1~7을 보라), 계속 옮겨가면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된다: "너희 자신을 살피고, 성령이 너희에게 감독하도록 한 모든 양떼들을 살피라.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들이 되라"(행 20:28). 그는 제자들을 더 만들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음에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항해한다. 다시 말해, 비록 세상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교회는 크리스천들을 포함하는 몸으로서 보여진 다각 지체는 모든 다른 것들에 속해 있다"(롬12:5). 그것은 가깝게 된 교제이다. 로마서 12:4~8에 나와 있는 7가지 은사들은 모두 다 몸 안에서 사용되려는 의도였다. 다음의 얘기를 보라: "형제적인 사랑으로 서로(one another)에게 헌신하라" (10절), 배타적으로 들리는가? 그렇지 않다!

강을 계속 타고 내려가면, 고전 12장에 14가지 영적인 은사들이 나오는데 "예수를 주" (3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것 역시 교회 안에서 사용되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들은 믿는 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자. 특히 믿는 자들의 가족에 속해있는 그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하자"(10절).

물줄기는 에베소서 4장에서 넓어지는데, 봉사(목회-역자 주)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equip)시키도록 목사와 교사들을 부른다. 무슨 목적으로? 전도? 선교? 제자 삼는 것? 이번에는 아니다.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인데, 연합을 증진하고 더 나아가 성도들의 성숙을 가져오려는 것이다.

미네소타 — 위스컨신 경계에 있는 피펜(Pipen)호수에 있는 미시시피 강처럼, 신약성서를 통한 물줄기는 벧전 5:1~4에서 넓어진다. 처음에 예수님에 의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름 받았고, 후에 그의 (His) 양떼들을 돌보도록 부름 받은 베드로는 5명의 로마지역 장로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호소하는가? 제자들을 만들라? 이번에는 아니다. 그의 호소는 그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흐름을 그것이 지적이 되도록 충분히 탐구하였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단지 크리스천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양떼를 돌보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양하라, 그리고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대우를 하도록 요청하는 신약성서의 부분들만 읽으려고 한다면, 그나 그녀는 교회의 에너지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서 단지 그 자체에 대하여 다 소모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은 대헌장(the Great Chart)' 이 단지 교회의 선교로 보여질 수 있다.

바꾸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단지 크리스천들에게 모든 족속으로지 자를 삼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전도하고 찾은 것(눅 15장에 나오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으로 요청하는 신약성서의 부분들만 읽으려고 한다면, 그나 그녀는 교회에 에너지들을 단지 양 무리(울타리)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다 소모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대사명'이 단지 교회의 선교라고 보여질 수 있다.

이런 "이것 아니면 저것(either/or)" 이라는 부조리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조언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양쪽 다 확실한 명령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크리스천은 양쪽에 헌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양쪽에 동시에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고 간에 한 사람이 그녀 그녀 자신을 모든 것을 다 소모(all consuming)하는 목회들인 이런 양쪽의 요구에 동시에 주는 것은 인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아시는데, 그러므로 그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어서 그리고 선택된 목회에 각 크리스천을 부르시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이것이다. 양쪽을 지원하라; 그러나 하나를 하라. 로마서 12:6~8이 이것을 조명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은사가 제자를 만드는 것' 이라면, 그로 하여금 그것을 그의 믿음에 분량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만약 그것이 '목양' 하는 것 이라면, 그로 하여금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돌보도록 하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한 가지 물줄기를 위한 은사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물줄기를 위해 은사를 주신다. 그의 계획은 두 개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양쪽이 시행되는 것이 '라오스(laos)'-하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인데, 그들의 목회들을 발견하는 데에 그들을 돕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 불러서 그들에게 하라고 한 것을 그들이 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것 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헌장(Great Chart)의 아이디어는 많은 교회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의 소명적인 여행들은 전도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는 시내를 지나가도록 했다. 목양(pastoral Care) 담당목사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잠깐 멈추어 들렀다. 그런데 그날은 그가 쉬는 날(day off)이어서 나는 그의 비서를 만날 수가 있었다. 내 자신의 목회를 위한 어떤 아이디어들을 얻기를 바라면서 pastoral care에 대한 그들의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에게 얘기하면서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았는데, 그녀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나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교회에 참여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위해 목회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단지 한 사람만이 목회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상사에 불과했으며, 그리고 그는 지쳐(burn out)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단지 출석만 할 뿐 아니라, 그들은 또한 교회를 떠났다.

그 교회는 전도에서 엄청나게 성공하였는데, 가정들을 방문하도록 수백 명을 모아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참여하는 데에 대한 그들의 결정을 돕기도 하였다. 대사명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백명의 다른 성도들에게 목회적인 은사들을 주었다는 데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이, 대헌장은 기회를 갖지 못했다. 결과로 교회의 뒷문은 거의 앞문만큼이나 바빴다. 교회의 중요한(mighty) 목회들이 비참하게도 균형을 잃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에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하였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의 목회적인 사역에 대해 듣지 못한다. 전도자와 교회개혁자로서 그의 명성은 내가 소위 그의 "두 번째 목회(second ministry)" 라고 부르는 것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다. 물론 그의 첫 번째 목회는 그것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었다. 그의 두 번째(두 번째란, 중요성에서가 아니라 순서적으로 목회는 믿게 된 자들을 위해 돌보는 것(caring for)이었다. 목양이란 영적인 순서에서 전도 다음에 왔는데 마치 양육이 생리학적 순서에서 출생에 따라오는 것과 같다.

바울은 pastoral care로서 그의 전도를 보충하였다(followed), 그는 사람들이 양육되고 돌봐질 수 있는 것 안에서 교회들을 세웠으며, 그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계속 가까운 관계성(kept in close touch)을 가졌다. 그는 방문하고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하였다. 그의 개종자들을 돌보는데 첫 번째 모험은 그가 바나바에게 보여준 제안이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행 15:36)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세 번째 여행 동행에 대해 의견의 불일치로 갈라지긴 했지만, 바울은 이제 실라와 동행하여 "교회들을 강화하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통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41절). 그는 '대헌장'을 '대사 명과 함께 균형을 유지하였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 20 장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만난 것을 기록한다. 그의 한가지 초점은 바로 사람들을 위한 caring에 대한 것이었다.

- 모든 양떼들을 돌보라.
- 성령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감독자로 만들었다.
-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들이 되라.
- 약한 자를 도우라.

더 추가적인 제자들을 만들라는 언급이 없다. 교회가 새로운 제자들을 계속 만들기에 강하게 되는 것은 양육하고, 돌봐야 된다는 것이 그의 전략이었다.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이 그가 그들을 돌보는 한 방법이었다.

바울은 또한 편지를 쓰면서 목양하였다. 그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개그의 마음(soul)을 나타냈다. 그는 그들을 그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확신시켰다(1:7을 보라). 그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동정심, 친절, 결손, 부드러움,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덧입히라 고충고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의 사랑을 나타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에게 너무 사랑스러웠기에 그의 생명까지(very life) 나누어주었다(살전 2:8). 진짜 목회인가 아닌가? 정말 돌보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목회적인 축

복이다. '세상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지이다. 이 단어들은 분명히 크리스천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증인이 된다든가 전도한다는 의미(any reference)는 결코 들어 있지 않다.

바울의 목회적인 시발(initiation)에 대한 기록은 대헌장에 대한 우리의 경우이다. 바울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된 사람들을 돌 보기 위한 책임을 받아들였다.

탐 페리스(Thomas Parrish: 현재 미국 LPMI의 사무총장-2000년 6월 에 할렐루야교회에서 있는 평신도목회자대회에 주강사로 와서 강의하 였음 역자 주)는 대사명과 대헌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두 번째 종교 개혁' 목사들 중의 한 사람이다. 탐은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미네 소타의 플라이마우스의 영광루터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나의 첫째 책, 『목회, 혼자할 수 있는가?』의 마지막 장에서 탐은 그의 첫 번째 목회지인 오하이오 벨 부룩에 있는 베델 루터교회에서 LPM을 시작한 그의 이야기를 말했다.

그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였다. 전에 있던 교 인과 새로운 교인을 위한 pastoral care에 대한 탐의 관심은 그로 하여금 LPM을 시작하도록 했다. 나는 그 교회의 평신도목회자들을 준비시키 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번창했으며, 필요에 부응했다.

미네소타에 있는 트리니티 루터교회의 담임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교회는 18개월 동안 직업적인 목사 없이 지낸 교회였다. 자원적인 목 회자들이 회중의 목양(pastoral care)을 해 온 교회였다. 14년 동안, 그리고 3명의 목사 이후에 평신도들이 계속하여 pastoral care 를 제공하고 있 었다. 트리니티에 도착한 직후 얼마 있지 않아 탐은 효과적인 평신도목 회(pastoral care ministry)로 판명된 기반을 놓기 시작하였다.

탐은 현재 비전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회중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는 두 개의 병행되는 방향(track)에서 그의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다. 빠른 성도의 증가와 pastoral care, 그들은 성도들이 너무 증가하여 새로운 건 물을 짓기로 결정하고 그들의 첫 번째 평신도목회자 훈련세미나를 곧 실 시할 것이다. 그들은 대사명과 대헌장 양쪽에 상당히, 그리고 동등하게 헌신하고 있다. 두 개의 병행 중에 하나인 pastoral care에 대한 탐의 간증 을 들어 보라: "안수 받고 목회한지 18년이 지날 때까지 LPM보다도 모든 믿는 자들의 제사장직 역할에서 효과적이고, 효력이 있고, 성취에 가깝 게 되는 회중적인 care에 대한 다른 접근은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제 두 가지 중요한(mighty) 물줄기들의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 해보자. 양쪽 물줄기는 큰 대서양에서 하나로 합치게 된다. 마찬가지로 신약성서의 두 강들 대사명과 대헌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대 양안에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더 이해하기 쉬운 은유는 하와이섬에 있는 두개의 커다 란 산들, 마우나로아와 케아(Mauna Loa and Kea)가 될 수도 있다. 나는 힐로에 있는 하일리 교회(Haili

Church)의 담임목사로 있던 7년 동안 매 일 그것들을 보았다. 그것들은 두 개의 분리된 14000피트 높이의 형태 들로서 나타난다. 그것들은 분리되어 있다: 그 정상은 수십 마일 떨어져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로 함께 합쳐져 있는데 하와이 전체 섬을 공동 기반으로 하여 그 당당한 고도를 위로 뻗치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대사명과 대헌장' 비록 그것은 두 개의 분리된 목회 들이지만, 공동근원으로부터 당당한 정상으로 치솟고 있는데; 하나님 의 엄청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이다. 하나 님께서 함께 합치신 것을 교회가 분리시킬 수 없다.

그러나 교회는 대사명과 대헌장을 쪼개고 있다. 어떤 교회는 하나에 중요점을 두고, 그리고 다른 교회는 다른 것에 중요점을 두는데, 아직은 양쪽 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동등하게 요청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 기 때문이다. 다른 교회들은 양쪽을 하는데 있어서 비효과적이다. 현실 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대헌장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목사'가 회중에게 있어서 혼자 목회(only pastor)하는 한 결코 존중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목회적으로 은사 있는(pastorally-gifted) 평신도들이 확인되 고, 준비되고, 그리고 목회가 주어질 때에 대헌장은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pastoral care를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라" 대사명과 대헌장 양쪽을 하라.**

# 제5장

## 성서적인 교회

A Biblical Church

**"누구든지** 이 명령들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자는 위대하다 불러질 것이다." -마 5:19

나는 최근 들어 진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성서적인 교회를 계획(디자인)했다는 것을 말해 왔습니다. 아마도 그분(하나님)은 그 것을 지도자들에 의해서 인도하도록, 교사들에 의해서 가르치도록, 그리고 행정가들에 의해서 행정을 하도록, 그리고 목자들에 의해서 목양되도록 디자인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각 속에 가능합니까?라고 1996년 리더십 네트워크(Leadership Network) 주관으로 한 '21 세기의 교회, 세미나에서 빌 하이벨스(Bill Hybels)가 말했다.

신학교에서 내가 처음 해야 할 숙제는 신학의 근원과 규범(The Source and Norm of Theology)에 대해 paper를 써야 하는 것이었다. 한 단어가 나의 paper를 요약한다: 성경,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가 믿는 것의 근원(source)이며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평가하는 규범(norm)이다. 다른 말로, 성경은 믿음과 실천을 위한 우리의 신뢰할 만한 안내이다.

LPM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는 성서적인 진리들을 알고, 믿고, 그리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듣는 교회이다. 그러나 성경은 크리스천 우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신과 그의 의지를 그의 사람들에게 나타 내는 것을 통한 중개이다.

마 22:23~32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예리한 응답은 많은 21세기교회 지도자들에게 적용한다: "너희는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다" (29절).

많은 지도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두 개의 성경본문 이 있는데, 목사들은 목회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라는 가르침인 엡 4:11,12과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목회적으로 돌보라는 명령인 벧전 5:1~4이다.

고대 사두개인들의 잘못은 현대 지도자들의 잘못도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같은 전통, 생각, 그리고 교만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들은 목사의 역할은 목회를 하는 것이고, 반면에 사람들의 역할은 그것을 받는 것이라는 전통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그들은 교회의 삶과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핸드북은 전통에 근거해서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만든 자격을 받은(credentialed) 사람들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교만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환상을 못 알아차리게 하고, 현상에 대해 편안하고, 그렇기에 패러다임 변경에

저항하게 한다. 그들은 생 각과 행동에 깊이 베어든 한 패턴들을 탈출하게 하는 무능력한 "패러다임 마비"를 갖게 된다.

이런 잘못은 왜 인간 자료들, 에너지와 돈의 소비지출이 그것에 부응 하는 결과들이 없이 계속되는 지를 설명해준다. 그것은 또한 너무나 많 은 직업적인 목사들의 좌절, 환멸, 분노, 그리고 소진(burn out)을 설명 해준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엄청나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서의 인도와 영감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에베소서 4장 1절의 진리를 경 험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다." 그것은 된다!

평신도목회자 준비세미나(Lay Pastors Equipping Seminar)를 인도하 기 위해 바하마의 나소(Nassau)에 첫 방문했을 때 성공회 교회의 감독 이 나에게 말했다. "만약 우리의 사람들이 그것이 성서 속에 있다는 것 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성서적'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평신도목회(lay pastoral care)가 성서 속에 있다는 것을 본다는 것은 그것이 당신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열쇠이다. 성서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두 번째 종교개혁(second Reformation)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목회를 주는 것. 그것은 이사야가 그의 예언에서 의 미한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 43:19).

사두개인들의 잘못을 수정하기를 기대하면서 세 개의 삼각형(부채 꼴)인 진리들을 위해 세 성경구절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엡 4:7~12인 데 중심적인 교리이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사람들에게 선 물을 주셨다..... 그가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되하나님의 사람들 를 준비시켜(to equip) 목회의 사역을 하도록....(RSV)

이 교리는 바로 모든 크리스천은 목회자라는 것이다. 다섯 개의 단어 가 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다섯 개의 별 자리들과 같이 빛난다. 은혜, 은사, 준비, 성도 그리고 목회, 이 교리는 두 번째 종교개혁을 공급한다. 이 다섯 단어들을 자세히 검토해보자:

**은혜:** 이 단어는 하나님의 호의, 관대함, 그리고 선함을 의미한다. 하 나님은 그의 은혜를 세 가지 형태들로 주신다: (1) 구원(엡 2:8); (2) 계시 (3:2, 3); 그리고 (3) 목회(4:7), 은혜는 능력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하고, 계시하고, 그리고 목회를 위해 은사를 주시기 때문이다.

**은사:** 많은 종류의 영적 은사들이 주어졌고 그리고 전 세계 속에서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서 어느 한 크리스천도 무시된 적이 없다. 목회적 인 care를 위한 은사들의 내용(duster)은 자비, 격려, 권면, 그리고 섬김 이다. 마치 우리가 주는 선물들이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기를 기대하신다. 우리는 목회를 위해 우리의 은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나누어주신다(엡 4:7,8을 보 라).

**준비(equip):** 목회를 위한 준비(preparation)는 구성하는데(formula)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적당한 준비 없이 그의 일을 하도록 보낼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목사들과 교사들 을 그(His)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회들을 하는 데에 준비시키는 (equipping) 일을 하도록 지정하였다.

**성도(Laos,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His) 사람이 되는 것이다. 죄로부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고전 6:19,20).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에게 접근할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를 위해 일하는 명예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의 백성처럼 항상 행동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은혜로서 우리는 할 수 있다.

**목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요청은 목회를 하라는 것이다. 목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특별한 봉사이다. 왜 우리는 저항하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 중의 한 사람이 된 것이 기뻐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친숙한 이유 들을 대며 완강하게 반대(저항)했다.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고, 겁내기 잘하고, 그리고 능력이 없다. 그의 마지막 저항은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처절한 호소였다 (출 3~4장을 보라), 모든 크리스천을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특별한 능력)를 주신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 께서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여 특별한 일을 하도록 요구하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목회(당신의 특별한 일)를 주신다면, 그것은 당신은 목회자라는 것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시하든지 불순종하든지간에 모든 크리스천은 목회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이런 교리를 그것이 정말로 중심교리라는 것을 거듭 발견해 가 면서 지난 20년 동안 수십 번이나 설교하고 또 가르쳤다. '두 번째 종교 개혁'으로 바뀌는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이다.

만약 단지 나 만이 이 교리를 보고하는 사람이었다면, 또는 만약 LPM 만이 단지 평신도들이 하는 목회였다면 나의 음성은 결코 들려지지 않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해짐(by adding)에 의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휘됨으로써 그것은 세상을 통해 크게 소리치게 되는 것이 된다. 이 소리(sound)는 성령의 목소리보다도 못할 바가 없으며, 교회에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21세기 속으로 움직이면서 활력을 넣게 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도록 하라."

세 성경구절 중에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23절인데 중심 되는 책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RSV).

책임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는 것"이다. NIV에는 "너의 돌봄아 래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목양하라"라고 되어 있다.

이 책임은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평신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5개의 로마지방들에 있는 교회들의 장로들이었다. 그 것은 오늘날처럼 사실이었는데, 자격 있는 사람이나(예, 목사) 자격 있는 스태프들은 양떼들을 돌볼 수(하나님의 사람들 모두를 목회적으로 care하는 것 없다는 것이다. 책임(charge)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된 것에 유념하라.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His) 사람들을 돌보는데 긴 박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받아들인다.

이 책 제1부의 일곱 장들은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양하는 데에는 필요성 인식, 은사활용, 평등주의, 목회균형 유지, 성서적, 움직이고, 또 실패에 저항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이런 성경구절들을 우리가 자세히 봄으로써 우리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들의 내용들(cluster) 사이에서 눈에 띄게 위치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 (1) 사람들, (2) 영, (3) 동기, 그리고 (4) 보상.

책임이 주어진 사람들은 평신도이다. 그들이 누구인지 당신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가계주인, 농부, 건축가, 목 동, 아내, 남편, 이웃, 그리고 다른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다.

그 책임(양 떼를 돌보 는)이 수행하는 영은 강요가 아니라 자진 하는(지원하는) 영이다. 돈을 위한 욕심 (greed)이 아니라, 열심의 영이다.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는 영(spirit)은 강요적이 아니라 자진하는 (willingness) 영이다: 돈을 욕심내는 것(greed)이 아니라 열심의 영이다.

동기(motive)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됨으로써 봉사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주인처럼) 힘을 붙잡는 것(hold)이 아니다.

거기에는 보상이 있다. 성실하게 책임을 함으로써 평신도는 목자장 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며, 그것은 결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다.

우리의 세 번째 성경구절은 출애굽기 18장 13~26절이다: 중심적인 모델, 나는 그것을 pastoral care의 모델이라고 부른다:

네가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유능한(알맞은) 사람들을 선택하라. 그리고 그들을 천 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임명하라... 그것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할 것 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너와 함께 나누어 감당할 것이기 때문이다.<sup>2</sup>

이 모델은 분산되는 pastoral care가 목사와 사람들 양쪽을 위해 할 것을 설명(입증)해준다. 사람들은 알맞은 care를 받을 것이고 목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도록 그들에게 요청한 것을 하는 데에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와 사람들, 그들 양쪽이 지쳐있는 것을 관 잘하게 되었다. 모세는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였다: **모든 사람들을 그 자신이 돌보려고 하는 것.** 사람들은 모세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하기를 기대하였다. **각각에게 개인적인 주의력을 기울이는 것.**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본문은 신속하게 상태(condition)로부터 해결(solution)을 통하여 나아지는 것(betterment)으로 움직인다. 내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동을 얘기하면서 나는 당신, 나의 독자들을 초청하는데 변화하는 장면들 속에서 당신이 있는 그곳을 신실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할 때마다. 나는 확증하고 또 책망하게 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서 패러다임 변경의 순간이 되기도 한다.

#### 상태(condition):

- 네가 하는 것은 좋지 않다.
- 너는 단지 자신을 지치게 하고 있다.
- 그 일은 너에게 너무 무겁다.
- 너는 그것을 혼자서 다룰 수 없다.

#### 해결(solution):

- 당신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 그들을 가르치라.
- 그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 주라.
- 그들에게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라.
-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라;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그리고 십부장으로 임명하라; 그들로 봉사하도록 하라.
-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경우들은 네게 가져오도록 하라.

#### 나아지는 것(betterment):

- 당신의 짐은 가벼워질 것이다.
- 그들은 당신과 함께 당신의 짐을 나누어 질 것이다.
- 당신은 긴장을 풀 수 있게 될 것이다.
- 사람들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직업적인 목회자이든 자원적인 목회자이든, 우리들 각자는 이런 계 속성의 어디엔가 위치하고 있다. 우리 자신이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곳으로부터, 우리는 다음 단계를 취하도록 도전을 받는다. 또는 만약 우리가 이미 어떤 상태에서부터 해결을 거쳐 나온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해결 장면에서 우수성을 위해 애쓰도록 도전 받는다.

나는 이 순간에 어떤 독자들은 당신의 삶 속에서 크리스천 구성(형성, formation)의 드라마틱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라."

만약 교회가 성서적이 되려면, 그것은 신화(mythology)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마치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자라는 것처럼 신화라는 것은 신학(theology)과 함께 자라기 때문이다.

신화라는 것은 마치 성서적인 신학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성서적인 신학의 권위를 가정하고, 성서신학으로서 받아들여졌다.

이것의 단순한 예는 세 사람의 동방박사에 대한 크리스마스이야기이다. 성서는 단순히 동방박사(Mag-전통적으로 현인)는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기록한다(마 2:1), 신화는 그들의 숫자를 말하고 (우리 크리스마스 찬송 중의 하나의 구절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세 왕 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이름까지 대기도 한다.

비슷한 방법에서 신화는 목회의 신학(theology of ministry)과 함께 성장해왔다. 수세기 동안 사실 목회에 대한 비 성서적인 신화의 성장-단지 성직자만이 목회자이다는 성서적인 진리로서 넓게 받아들여졌다. 이런 가라지는 꼭 알곡과 같이 닳아서(그리고 전통적인 개념의 교회 들에서 계속 존재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목회자들이라는 성서적인 가르침에 대체되었다.

신약성서에 나타난 '몸'으로서의 교회에서 각 지체는 목회를 위해 은사를 받았으며, 그리고 모든 '지체들은 목회를 하는데 있어서 동등 하게 중요한 것이다. '몸'의 개념은 로마제국의 모든 큰 도시에서 편안 하게 받아들여졌으며, 더 나아가 영국, 칼타고, 그리고 페르시아와 같은 그런 먼 곳들에서도 그렇게 생각되어졌다. 콘스탄틴 황제가 A.D, 312 년에 기독교를 합법화한 후에 '몸'의 개념은 전 지역으로 퍼졌다.

수세기를 흘러오면서 신화는 꽃이 피었다. 그것은 목회를 카리스마 (특별한 은사 또는 힘) 보다는 직책(office)으로 정의하였다. 카리스마(헬 라어로 (카리즘)으로 발음하는)는 신이 사람에게 준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일컫는다. 능력(유명세, 특권, 힘)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직책들 때문이었다. 교회는 점차적으로 유기체(organism)이기 보다는 조직화(organization)되어 갔다.

그 다음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목회에 대한 신화는 신학과 함께 성장 해 왔는데 이런 수세기 동안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 크리스찬들에게는 성직자와 평신도 두 계급이 있다.
- 성직자는 목회자들이고; 평신도는 받는 사람들이다.
- 사람은 공식적인 교육과 안수식에 의해 목회자가 된다.

이런 신화에 있어 다이내믹하게 적용하는 것 중의 하나는 사람이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를 계급적이 되게 만들었고, 역사전반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변동들은 제외되었으며 교회는 계속적인 세대들로 하여금 계급적이 되게 만들었다.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전부다 탈출하는 (자유롭게) 것은 아니다. 많은 개 교회 지도자들, 목사와 평신도 양쪽 다. 신화를 진리로부터 아직 분리시키지 않고 있다. 전통을 깬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경영컨설턴트인 브랜차드(Ken Blanchard)는 변화라는 것은 네 가지 방법들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1. 지식: 당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정보를 보태는 것.
2. 태도: 뭔가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
3. 행동: 특별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습관이나 방법을 변경하는
4. 조직적인 행동: 사람들의 전체 그룹이 뭔가를 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sup>4</sup>

변화에 대한 브랜차드의 네 가지 방법들을 이해하려고 해보자.

## 지식

앞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중요하게 첨가했을 수도 있다. 내가 믿기로 그것은 가지고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쳤다(요 8:32), 잠 24:5; "뭔가를 아는 남자또는 여자는 힘이 증가한다". 당신은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 태도

지식이 어떤 사람의 영에 침투할 때에 태도는 바뀐다. 목회에 대한 성서적인 지식은 목사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보느냐,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를 구성해 준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목사들을 보느냐,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느냐를 구성해 준다. 목사들은 목회에서 보스(the chief doers)로서 보다는 목회자들 (ministers)을 준비시키는 자들(equippers)과 격려하는 자들 (encouragers)로서 보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그들 역시 목회자들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들 자신의 목회들을 가지면서, 자신들을 보기 시작한 다. 그들은 태도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 행동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형식을 갖춘 훈련, 전통, 그리고 성직적인

문화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만약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도와 충알을 깨우는 아픔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변화라는 것은 편치 않은 것이다. 변화는 비평을 고집어낸다. 그러나 변화라는 것은 또한 기분을 돋구어 주고, 참신하고, 그리고 갱신하는 것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본질이다. 지식과 태도에서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행동이 변화될 때까지는 진짜 변화된 것이 아니다.

### 조직적인 행동

이것은 가장 복잡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충분히 많은 성도들이 세 가지를 통하여 교회의 문화를 바꾸는 쪽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두 동시에 움직이지 않고 또한 같은 속도(간격)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비전, 기도, 지속성, 그리고 인내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런 순서 속에서 만약 협력적인 행동(교회의 문화)이 변화되지 않을 경우,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도 진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라. 그들은 단지 임시적이고, 결국 이전에 했던 방법들로 되돌아가는 단명적인 수정에 불과하며, 그것들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마음만 아프게 하고 만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교회는 변화시킬 어떤 실제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들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아래의 것들을 하면서 변화시키는 힘을 발견할 것이다:

**(1) 호의적인 문화를 창조하라.** 설교, 가르침, 글로 쓰기, 모임, 그리고 모델이 되는 것은 영적이고, 감정적이고, 합리적인 분위기를 창조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것은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비전을 성공적으로 추구하는 데에 파급적인 효과가 있다. 문화는 어떤 종류의 호의적인 평신도모임을 창조하기 위해 정의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화'는 기대되고 수용되고, 그리고 알맞아야 한다. 교회의 문화와 조화되지(어울리지 않는) 모회들은 그것이 얼마나 성서적이든지, 잘 조직되었는지, 잘 추진되었는지, 또는 그들이 상당히 지지(인정)되었다 할지라도 실패할 것이다.

**(2)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회들을 발견하도록 도우라.** 은사, 열정, 경험, 인격 훈련, 그리고 모든 삶에 상황들이 그 사람이 해야 하는 모회에 공헌(관련)해야 한다. 강의, 세미나, 워십, 발간물, 그리고 컨설턴트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찾는 일을 발견토록 할 수 있다.

**(3) 모회를 위한 구조들을 창조하라.** 교회를 위해 우선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달성할 목표들을 디자인함으로써 그들을 추진해야(move on) 한다. 대부분의 모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usable) 모델들은 이미 존재한다. 그들을 채택하던가 적용함에 의해 당신은 바퀴를 다시 발명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4) 모회를 축하(인정)하라.** 제안된 모회들, 새로운 모회들, 장기간 모회들에 관심을 갖도록 초점을 맞추는 창조적인 방법들, 또는 모회를 하는 평신도의 아이디어는 즐거운 분위기(환경)를 창조할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회를 하는데 즐기도록 도울 것이다. 어떤 교회들은 일년 중에 특별한 주일을 선택하여 그들의 "자원적인 모회자들을 축하(인정)하는 시간을 갖는다. 어떤 교회는 그들의 자원적인 모회자들을 화증해주기 위해 저녁식

사, 축하파티, 또는 소풍같은 연중행사를 갖기도 한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라.]"**

## Notes

1. *NEXT*(Tyler, Tex: a publication of Leadership Network, August 1995).
2. 모세 모델의 두 도표를 위해서는 부록 A를 보라: 첫째, 중심으로 모이는 목회 두 번째, 분산적인 목회
3. Bruce Shelly, *Church History in Plain Language* (Dallas, Tex: Word Publishing, 1982), pp.42, 108,
4. Ken Blanchard, *Forum Files* (Tyler, Tex: Leadership Network, January 1994).
5. 문화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그것의 조종하는 힘과 그것을 바꾸는 방법 에서, 나는 일반연구소에서 나온 책('준비시키는 목회자 역자 번역중), 제 3장 p.40~50을 추천한다. 나는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이 책 7장과 8장에서 더 추가한다. 제 12장에서는 아리 조나의 희망 웨슬리교회 길버트 목사가 어떻게 안수 받은 목사만이 목회자라는 전통적인 생각으로부터 모든 크리스천들이 목회자들이라는 문화로 바꾸었는지를 말하는데, 이런 문화의 변화는 그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LPM을 시작하도록 할 수 있었다.

## 제6장 살아 움직이는 교회

A Mobilized Church

### 모든 성도는 사역자이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 나님의 모든 일을 한다. 나는 이런 진술이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생각들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커서 사역의 80%를 하는 성도들 중의 20%에 의해서만은 해결될 수가 없다. 또한 유급직원에 의해서만도 될 수가 없다. 사실 어느 교회이고 그것을 전부 충실히 할 유급직원은 가질 수 없다.

장로교 목사들을 위한 교단 잡지 '월요일 아침(Monday Morning)'에 서한 사람이 불평을 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목회적 관심 (pastoral care)의 부족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그 당시 얼마나 괴로웠 는지를 말했다. 계속적인 pastoral care에 대한 그의 바람은 환멸에 의해 악화(격분)되었다.

이 불평에 대한 어떤 목사의 대답은 성직자의 불공평한 방어처럼 보 였는데, 그러나 그가 옳았다:

내가 그것을 옴 4:11,12로부터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은사를 주셨는 데,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회를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얼마나 이 사역이 당신이 만난 그런 상황(instance)에서 작용될 것인가? 대 조적인 이야기가 나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첫째, 그는 신학교 동창생 한 명을 떠올리며 얘기하였다. 이 친구는 목회를 떠나서 소프트웨어 제작분야로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그는 매 일 10시간에서 14시간을 더 이상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빡빡한 스케줄(killer schedule)은 그의 사람들(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하느라고 꼭 찼다. 그는 하루 24시간 동안 그들을 위해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런 광란적인 희생적 봉사 와중에, 그의 아내는 심각한 병이 들게 되어 1년 동안 거의 병석에 누워 있었다. 교회로부터 그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않았다.

교회에 대한 이런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말은 슬픔으로 결론지 었다. 그 이유: "그는 그의 양떼들에게 그(he) 그리고 그 만(only he)이 돌보는데 책임이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르침 을 잘 배웠다. 너무 잘 배웠다. 그는 그 목회에서 또 다른 희생(재난)을 맞게 될 것이다."

그는 이것을 그가 휴가 동안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대조하였다. 그의 교회 성도가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 하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방문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그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물었다: 그녀나 그녀의 남편은 건강보험에 들었는가? 음식은 필요한가? 그들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돌아온 후에 목사는 그들이 받은 care에 대해 어떻게 느꼈냐고 물었다. 그는 그들이 방문하여 직접 도움을 주었고, 자신들을 위해 기도했었다고 말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터뜨렸다. 목사는 에베소서 4:11,12로부터 이런 분명한 말들로 결론지었다:

나와 다른 목사들은 밤낮으로 모든 위기에 응답하였는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런 귀중한 양떼는 우리가 결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pastoral care를 기꺼이 그리고 제공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하였는가? 아니다. 우리는 목사로서 우리의 회중이 24시간 동안 돌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할 때에 목사로서 우리의 소명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기로 우리는 그 소명을 어떻게 달성할지를 지금 배우는 것이다.

## 모세의 원리

수십세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움직이게 하는 모델을 21세기 교회에게 주었다. 그것에 대해 출애굽기 20~30장을 읽어 보라.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그를 불렀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재료들과 기술들을 제공할 때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 우선 모세의 역할을 검토해보자. 모든 회중은 중심적인 영적 지도자 '모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목사라고 부른다. 성막을 짓는 데에 있어서 모세의 역할은 다음의 8가지 방법들에서 평신도목회를 세우는데 있어서 목사의 역할과 병행한다.

**1. 그는 하나님과 만났다(출 24:18,34을 보라).** 그는 구름 속으로 들어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해 충분히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렀는데, 모든 것이 성막과 예배에 관련된 것이었다. 내적으로, 그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가졌다. 외적으로 그의 얼굴은 빛이 났는데 너무 심해서 그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얼굴에 베일을 써야 했다(출 34:29~35). 이런 외적인 변화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심각하게 듣도록 하는 신호가 되었다.

<병행되는 원리들>

- 우리는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
- 만약 우리의 말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충분히 오래 함께 있는 것은 필수적이다.
-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내적인 확신은 에너지, 신뢰, 능력, 그리고 통합성 (ntegrity)을 자아낸다.
-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오게 되는 우리에게 대해 뭔가 다른 것은 그의 사람들을 움직

직이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려는데 있어서 우리의 권위를 순수하게 한다.

**2.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비전을 가졌다(출 25장).** '비전제시 (vision casting)'는 회중에 대한 '모세'의 주요 역할들 중의 하나에 있어서 공통적(common term)인 것이다. 그의 비전은 아주 특수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비전은 무아지경의, 세상바깥의, 신비적인 상태가 아닌 것 같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다. 그의 마음은 건축에 있어서 자세한 것들로 복 차(reeled) 있어야 했다.

<병행 원리>

충분히 자주, 충분히 오래, 그리고 충분히 깊게 알려는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목회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타난 그 비전을 사람들에게 주는 목회자 또한 복이 있을지이다.

**3. 그는 사람들을 가르쳤다(35:1,4).** "이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들이다." 그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계시된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너무 강요적이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았으며,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었다.

<병행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 부분인 에베소서 4:11,12을 가르치는데 흥분과, 열정, 그리고 신선하게 주어진 계시의 능력으로 하라: 목사·교사는 목회를 하도록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책의 특별한 목회 초점을 가르치라 평신도에 의한 회중의 pastoral care, 이것들을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들로서 가르치라.

**4. 그는 사람들을 인도했다(출 33:12).**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 전혀 의혹이 없었다. 이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데에 대해서도 전혀 의문이 없었다. 그의 인도(지도)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그들의 참여함에 있어 조직을 만드는 것도 포함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금, 아마포, 그리고 나 무와 같은 자료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금속을 깎고 커튼을 만들고, 그리고 금막대를 잘게 쪼개는데 그들의 기술들을 사용 하도록 했다. 그들을 인도하는 데에는 그들이 즐겨하는(willingly) 마음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병행 원리>

- 목회를 위한 구조를 제공하는 것. LPM은 pastoral care를 위해 좋은(key) 구조이다.
-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회들을 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독특한 은사받은 것(giftedness)을 사용하도록 하라.
- 사람들은 의미 있게 도전했을 때에 목회하려고 준비한다.

5. 그는 그들을 교정시키고 훈련시켰다(출 32~34장),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사람들의 불인내, 회의론 적, 그리고 우상숭배에 의해서 방해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었는데-모세의 믿을만한 동료, 제사장인 아론의 지도력 아래에서 일어났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이 탈선하는 것으로 막기 위해 재빠르고 강한 행동을 취해야만 했다. 이러한 경우는 격렬하였다. 그들의 반란은 부서졌다; 사람들은 애통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계속했다.

<병행 원리>

하나님이 추진(God-oriented)하는 목회에 대한 비슷한 위협이 오늘날의 교회에서 도 일반적이다. 때때로 현대 '모세(즉, 목사)는 전진하는 움직임이 방해받지 않으려면 사람들에게 책임적이 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6. 그는 일을 감독했다(출 39:33~43).**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 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들의 사역의 우수성은 그것이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결과가 일부 였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병행 원리>

질적인 것과 책임 사이에 관계성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그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목회를 어떻게 잘(또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지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그러므로 종종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사역을 평가하는 것은 명령적이다. 이런 진행 중에서 수정(in-flight-correction)은 또한 필수적이 될 수 있다.

**7. 그는 예배에 있어서 그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출 40장).** 그는 모든 장비를 배치하였다. 설교단, 테이블, 촛대, 제단 등등. 그는 가구들을 또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었다. 그는 구름이 텐트(성소)를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을 채울 때에 그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인도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 두 번째는 그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행동으로 옮기도록 그들을 움직이는(mobilizing) 것이다.

<병행 원리>

예배, 가르침, 그리고 움직이는 것은 에베소서 4:1-12에서 함께 오게 된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주시라...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목사와 교사로 주셨나니.....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봉사 의 일을 하게(가르치고 움직이게 하는 것)."

**8. 그는 일을 완성했다(출 39:32을 보라).** 그것은 마치 공식보고서의 마지막인 것 같다: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성공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 그는 모든 낙심과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 그는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종종 만났다.



## <병행 원리>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준 일을 완수하는 것이고, 모든 어려운 때 일지라도 그 일을 계속해야 하고, 완성을 향해 계속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세상생활의 마지막에 기도하였다. "아버지께 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또 바울이 아키퍼(Archippus)에게 말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지키라 일반적인 시간관리 원리가 여기에 적용한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만큼 '하느' 나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만큼 '하였냐(done)이다.

이런 완성된 사역에 대해 한가지 더 말해야 할 것이 있다. 모세는 그것을 완성했다. 그러나 때마다 그렇게 많은 게임에서 승리를 거두는 코치처럼, 또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군처럼, 그리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건축감독처럼 했기 때문이다. 그 것을 하는 것은 확실히 사람들이다. 사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될 수 있었던 방법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라."

모세 역할에 있어서 병행원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목사들의 역할을 보도록 도와준다:

-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
-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
-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
- 사역을 완성하는 것

검토되어야 할 두 번째 역할은 사람들의 사역이다. 목사들이 그들의 역할들을 성취할 수 있듯이 사람들도 그들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축구게임이 이것을 입증해준다.

코치가 코치를 잘할 때만이 선수들은 경기를 잘할 수 있는 것이다. 각각이 그의 각 부분(역할)을 잘할 때에야 그 팀은 좋은 게임을 하는 것이다. 자원적인 목회자의 역할은 직업적인 목회자의 역할이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난다.
- 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듣는다.
-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받아들이고 당신 자신의 것을 제시한다.
- 신의 영적 은사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힘을 쏟는다.
- 예배드린다.
- 감독을 기대한다.
- 사역을 완성한다.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가 검토해봐야 하는 세 번째 역할이다. 놀랐는가? 다 생각한 다음에 이것이 왔는가? 아마 그럴 수도 있다. 우리는 종종 종우리의 일을 하는 데에 너무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을 잊을 때가 있다. 만약 그것이 그의(His) 역

할이 아니었 다면 우리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을 이 해하셨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 시니 나도 일한다....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요 5:17,19).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1. 그는 모세를 만났었다.**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셔서 시 작을 먼저 하신 분이였다. 모세에게 거기에서 그를(Him) 만나자고 부르 시면서.... "그래서 모세는 올라갔다" (출 19:20), 그는 하나님의 시작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2. 그는 비전을 주셨다.** 그는 성막의 큰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말해주 었다. 언약궤를 위한 크기와 재료(아카시아 나무와 금), 금으로 만든 촛대, 아마포로 잘 짠 10개의 커튼, 그리고 파란색, 자색, 또 홍색, 또한 수백 개의 세부적인 것들.

**3. 그는 그 자신(Himself)이 동기적이였다.** '동기적' 이란 행동의 유발 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의 기술이든지, 재료들이 어떤 것이든지를 막론하고 그들이 드려야 하는 가장 최상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 다. 그것은 모세도 아니였고, 국가도 아니고, 프로젝트도 아니고, 그들 자신들로 하여금 이 엄청난 일을 하도록 그들을 움직인 종교도 아니다. 그것은 그들을 움직이게 한 하나님이였다: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24:17) 엄청난 것이다!

**4. 그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행동과 우수성에서 그들을 개인적 으로 감동시키는데 덧 붙여서, 하나님은 즐겨하는 마음과 관대한 영을 형성하기 위해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은 또한 "기술, 능력, 또 모든 종류의 기술에 필요한 지식"을 수여했다(출 35:20~36:1).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발된 그들의 즐겨하는 마음뿐만이 아니였다.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였다. 우리의 것도 역시 그렇다; "우리의 능 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고후 3:5).

**5. 그는 일꾼들을 제공하였다.** 모세는 지도자들의 지도자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획을 수행하는 것을 인도했다. 프로젝트의 지도자들은 브살렐과 오홀리압(Bezalel and Oholiab)이였다. 그들은 일 꾀들을 인도했다. 하나님은 계획을 보여주었고, 지도자들을 불렀으며 사람들에게 기꺼이 하도록 하는 마음을 주었으며 성령으로 그들을 채웠다.

**6. 그는 재료들을 제공했다.** 모든 것의 궁극적인 자료 공급처(source) 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것들을 제공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왔 다. 사실, 그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모세는 사람들이 더 가지고 오 는 것을 멈추게 해야 했다(출 36:3~7).

성막은 완성되었다. 하나님은 그의 (His) 영광으로 그것을 채우면서 즉시로 그것을 사용했다(39:32; 40:34,35), 이제 축하할 때가 되었다. 그 들은 하나님을 들었으며, 그리고 그들이 들은 것에 따라서 행동했다.

다음의 것들은 신약성서에 부응하는 몇 개이며 이 모델로부터 내가 마음에 간직한 21세기의 현실들이다:

• **하나님은 평신도목회(pastoral care)를 위한 아이디어를 주신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목회의 일을 하게 준비시켜라" (엡 4:12).

"하나님의 양떼의 목자가 되라" (벧전 5:12).

• **우리 주님 그 자신은 목회를 하는데 우리의 동기이다. '내가 분명히 세상 아주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신을 줄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갈 2:20)

• **하나님은 목회를 위하여 자료를 제공하신다.**

"그러나 우리들 각자에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정하신 대로 은혜 (영적 은사)를 주셨다" (엡 4:7).

"우리의 능력(competency)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는 우리를 목회자로서 능력 있게 만들었다" (고후 3:5,6).

•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된다.**

"그리스도 그의 수확에 일꾼을 보내시는 수확의 주님께 구하라"(마 9:38).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지명했으니가 서 열매를 맺으라 영원히 지속될 열매" (요 15:16).

"각각은 어떤 은사이든지 다양한 형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실하게 다루면서 다른 사람을 돕도록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벧전 4:10).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도록 한다. 귀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의 모델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라.

헌신은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확실한(현저한) 열쇠이다. 이 장의 처음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 있는 여성을 돌보는 교회의 성도에 대해서 말한 바 있다. 헌신되었기 때문에 유효하였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목회들이, 헌신되지 않음으로 실패하였는가? 3년 동안 IPM 시작을 연 기한 목사가 나에게 말했다. "내가 그것을 하도록 '은사를 받고 부름 받은 사람들'을 가질 때까지 그 시스템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배웠다."

은사를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서, 이 목사는 헌신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말하였다. 헌신이란 성령께서 목회를 하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람의 의식 안에서 조용하게 부르는 소리이다. 움직이게 한다는 것 (mobilization)은 헌신의 기회라 표현화 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실은 모든 크리스천이 헌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움직인다는 것은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사실 대충 어림잡아도 80/20이다. 일의 80%를 20%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당신 교회의 성도들 중 50%는 일하게 할 수 없는가? 또 꿈같은 얘기지만 75%가 일을 하면?

단지 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은 퍼센트는 신학교, 교회, 그리고 목사들을 대상으로 공식 연구한 바에 의한 자료이다:

성도들의 반 정도가 거의 정규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은 일반적으로 열정과 긴박성, 그리고 포기로서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는 헌신된 믿는 자들의 동체를 세우려는 그들의 헌신에서 그들 신앙의 기본 교리에 대하여 잘못 배워(informed)왔다.<sup>2</sup>

목회의 목표들을 성취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소극적인 헌신은 교회들이 다루어야 하는 이슈이다. 이것은 특히 스태프들에 대해 예산을 줄이고, 성도들에게 대해 점점 더 임의적인(자유 재량의) 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이다.

어떤 교회들은 그들의 문화의 헌신구성요소를 강화함으로써 목회해택을 얻는다. 그런 교회중의 하나가 테네시 멤피스에 있는 제일복음교회이다. 담임목사 두엔 리핀(Duane Litfin)은 그것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한 성도에게 한 가지 목회를 강조한다." 만약 당신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당신의 목회는 무엇이나? 라고 묻는다면 그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 교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라고 당신이 말할 때, 그것은 헌신의 진술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에 참여하고 가까운 관계성을 갖고 능률적인 목회를 기대한다. 우리는 전략적인 목표들의 하나는 2000년까지 모든 성도가 목회의 어떤 형태 속에 있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교회에 참여할 때에 이런 기대들을 아는가? 라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예 '목회 안에서 모든 성도'는 우리의 목표 2000전략 계획 속에 들어 있다. 그리고 새신자반에서 나는 그 기대들을 최선두에 놓는다."<sup>3</sup>

이런 헌신이 그것의 문화에 강한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또 다른 교회는 알라바마의 프레저기념교회이다. 그것은 그들 성도들의 5,000명이 특수한 목회를 하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어느 주일날 나는 그들과 함께 예배드렸는데 회중은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며 어떤 목회를 했는지 서로 얘기하도록 했다. 존 마티슨(John Mathison)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목회 안에서 모든 성도'라는 주제가 그들의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었다:

평신도의 목회에 대한 강조는 교회 앞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가끔 하는 설교로는 충분치 않다. 그것은 성경공부에서 가르쳐져야 하고, 강단에서 설교되어질 필요가 있다. 각 새신자는 교회의 삶에 있어서 봉사할 만한 장소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우리는 말한다. 그 기대수준은 강단으로부터 외쳐지며 사람들은 그것을 종종 듣는다. 그것은 기대의 수준이 된다. 사람들이 교회에 참여할 때에 그들이 봉사하도록 인도되었다고 느끼는 곳을 지적하는 기회가 즉각적으로 주어져야 한다.<sup>4</sup>

헌신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지지된 목회를 위한 움직임(mobilization)은 목회를 몰고 가는(drives) 엔진이다. 적어도 7가지 신호들이 모든 성도가 목회하는 교회를 표시한다:

1. 의도적이고 잘 정리된(well-defined) 전략.
2.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은사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그들 자신들이 목회로 헌신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적인 설비.
3. 특수하게 준비시키는 기회들과 스케줄들을 공공연화 한다.
4.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목회들의 '메뉴'를 제시하기 위한 과정 이 과정은 누군가가 그것을 명명한 '구멍들을 채우기 위해 개인들이 봉사해야 하는 곳을 결정하려고 대표 선발, 지정, 또는 선출 하는 식에 대체되는 것이다.
5. 모든 성도 목회에 대해 설교와 가르침은 우선적인데,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에 의해서 잘 알려진 영적인 은사들과 신적인 부름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을 하게 되는 것이다.
6. 새신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대를 커뮤니케이션하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어떤 특수한 목회에서 하나님을 돕도록 하는 것이다.
7. 평신도 지도자들은 그들의 모든 성도 목회 방향(orientation)에 모델이 된다.
8. 목사와 다른 스태프지도자들은 은사 받고 준비된 평신도에게 목회를 양도한다.
9. 사람들은 그들 교회의 문화의 특성으로서 모든 성도 목회의 목표-기대, 과정, 신학과 용어에 편안하다.

우리는 회중의 움직임이 목회에 대한 열쇠라는 것을 보았으며, 그리고 또 헌신이 움직임에 대한 결과라는 것도 보았는데, 이제 헌신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때가 된 것 같다.

헌신이란 행동을 위해 어떤 사람의 결정을 움직이게 하는 자신 안에서 강요하는 힘이다. 그것은 '성령과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자' (Holy Spirit and the human mobilizer)가 동시에 활동함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다. 성령의 부름은 어떤 사람의 '영적인 귀'에 의해 들려지게 되고, 반면에 움직이게 하는 자의 부름은 그 사람의 '신체적인 귀'에 의해 들려지는 것이다.

이 헌신은 그 사람 안에 깊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아주 감정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느낌이 움직임에 대한 동의(feeling-driven assent)와 성령인 영간의 움직임이 포함(Holy Spirit/Human Spirit-driven engagement)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다. 내가 소설가게에서 읽은 유머스런 말을 다시 풀어쓰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차이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키스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나 요리하는 것은 오래간다." 나의 번역: "느낌들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나 헌신은 오래간다."

그 다음에 헌신은 호소(간청)로 묶어내는 성령으로서 발생된 어떤 사람 안에 깊이 있는 삶을 조종하는 에너지이다(life-controlling energy). 성령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정도에 따라 목회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자양분을 주는)이다(엡 5:18).

헌신 없이 어떤 사람은 목회를 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마치 아버지로부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내가 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해놓고는 가지 않은 큰아들과 꼭 같다(마 21:30),

헌신이 없이 사람은 잠시동안 목회를 할 수도 있으나 계속할 수는 없다. 골 4:4과 빌레몬서 24에 따르면 바울은 데마를 그의 동료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라고 불렀지만, 딤후 4:10에 따르면 "그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떠났다.

사람이 헌신될 때에 그/그녀는 목회를 할 것이며, 그리고 때때로 혼들리긴 하지만 계속 그것을 할 것이다. 이 예가 베드로이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랐다" (눅 5:11), 가끔 약해지긴 했지만 그는 헌신하였다. 우리는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울의 지속적인 헌신을 보게 된다.

이런 세 사람-큰 아들, 데마, 그리고 베드로—은 헌신에 대한 새로운 빛을 비춘다. 헌신하는 것은 한가지 일이다: 그러나 헌신을 계속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헌신의 행동은 과정을 놓는다(sets); 갱신된 헌신의 행동은 과정에 머무른다(stay).

성도들이 헌신에서 연약하다면 대개 잘못된 교회에 있다. 만약 교회가 사람들을 헌신이라고 부르는데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갱신된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 약하여 목회를 위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을 헌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성령의 에너지는 이런 부름 안에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 말미암아 회중의 에너지들이 목회 속으로 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귀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라는 말씀을 듣도록 하라!  
평신도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라. 당신의 회중들을 움직임으로써...."**

## Notes

1, Monday Morning, 장로교 지도자들을 위한 잡지, PO Box 636, New Palentine, IN 46163 (December 18, 1996): 1-6

2. The M. J. Murdock Charitable Trust," Review of Graduate Theological Education in the Pacific Northwest, PO Box 1618, Vancouver, WA 98668

3. Leadership Journal, 465 Gunderson Drive, Carol Stream, IL60188, Summer, 1989, p. 126,

4. Jorm Ed, Mathison, 모든 성도가 목회에, Discipleship Resources, PO Box 189, Nashville, TN 37202 (1988): 6,

5. 교회 안에서 대부분이 사람들이 있는 목회라는 것은 기대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적당한(알맞은) 것이다. 교회의 문화에 어울리지(조화되지) 않는 목회들은 그것이 성서적이든, 잘 조직되었든, 잘 추진되었든, 또는 상당히 보증(확증)이 되었든지 간에 실패하고 말 것이다. 문화라

는 것은 모든 추가되는 것들과 변화들을 압도하고, 오래 견디려고 하는 것이며, 추가 또는 변화 이전에 어떻게 했었던 그리고 무엇을 했었던 첫 번째 기회로 그들을 되돌리려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교화들에서 만약 모든 성도 목회가 현실화되려면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문화라는 것은 사람과 존경의 분위기 속에서 계획, 설교, 가르침, 모델, 실천, 인내, 그리고 기도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이다.

## 제7장 실패를 막는 교회

A Failure-Resistant Church

현명한 사람은... 그의 집을 바위 위에 세웠는데...  
그것은 넘어지지 않았다.

**켄터키주의** 한 목사는 본인 의 교회에서 있었던 IPM에 대한 경험을 내가 인도한 세미나에 와서 설 명하도록 한 나의 초청을 받아들였다. 2년 전에 그는 성공적인 보고를 했으며 그것의 효과에 대해 기뻐했다.

그는 그 목회가 어떻게 로케트처럼 발사되었는지에 관련지으며 시작했다. 평신도목회자들은 아주 흥분했으며, 그들이 목회한 사람들은 감사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목회의 실패에 대해 말하면서 그의 얼굴과 표정과 목소리는 변했다.

그는 실패에 대한 이유들을 말하면서 진행하였는데, 그래서 세미나 에 참석한 사람들이 같은 실수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그는 그 목회를 혼자서 다루었다.
2. 그는 목회지도그룹(MIG)을 조직하지 않았다.
3.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그는 다른 필요들을 다루느라 너무 바빴다.

어떤 교회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루이지아나에 있는 기쁜소식교회 (Good Tidings Church)는 1990년 가을에 LPM을 시작하였다. 이 교회는 교회 성장에 따른 알맞은 care의 필요를 보게 되었다. 이 교회는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3,500명석의 교회를 짓고 있다. 나는 그 교회의 평신 도목회자들을 위한 첫 번째 세미나를 인도하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

목회는 엄청난 에너지로 시작되어 처음 몇 년 동안은 잘되었다. 그러나 결국 다시 평범해졌고 쇠퇴하기 시작했다. 평신도와 교역자팀이 1994년 봄 몽고메리에서 있었던 전국대회에 참석했다. 그들은 아이디어 어를 얻고 감명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그들의 목회를 새로 출발했다. 오늘날 이 목회는 꽃이 피고 있다. 담임목사 존 보스맨(John Bosman)은 훌륭한 자료들을 개발했으며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평신 도 목회를 시작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실패 없는 목회를 하는 교회는 없다. 나는 '주름이 없는' 셔츠를 샀는데 단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발견했다. 그러나 그것은 '주름을 막 는 것 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실패 없는 목회를 하기를 바랄 수도요 다.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은 실패를 막는 목회이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우주적이고 영원한 교회만이 실패가 없다. "저승의 문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마 16:18). 그러나 오고가는 것은 개 개적인 교회들, 프로그램들, 그리고 목회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패를 막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첫째, 목회는 필요에 부응해야 (must be meeting) 한다. 평신도목회자 사역은 그것을 한다. 사람들은 항상 pastoral care를 위한 그들의 필요들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어떤 목사가 그의 교회에서 평신도 목회에 관해서 말하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정기적인 pastoral care를 얻기 시작할 때까지 그들이 인식하는 필요와 그들의 인식치 못하는 필요들에 부응한다."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라" (벧전 5:2)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든지 이기 때문에 pastoral care는 항상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것은 또한 care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개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근본적인 pastoral care-평신도가 평신도에게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pastoral care-목사가 성도들을 대신한다. LPM은 근본적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목회가 우리의 모델이다. 그가 그들의 필요들을 표현했기 (addressed) 때문에 관중들은 그를 따랐다. 그는 좋은 소식으로서 사람들의 나쁜 소식에 부응했다. 몇 가지 예를 보자:

- **마귀의 소유가 된 남자.** 나쁜 소식은 마귀가 그의 생명을 취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좋은 소식은 그 나쁜 소식들에 직접 관여했으며, 그리고 그 남자는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 **5000명의 배고픈 사람들.** 나쁜 소식은 그들이 먹지 못해서 약해졌고, 또한 지원될 음식이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좋은 소식은 그들의 필요를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음식을 제공했다; 그들은 먹었고 고배가 불렀다는 것이다.
- **강도.** 나쁜 소식은 그가 십자가 위에서 반국가적인 벌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좋은 소식은 그의 가장 두려움에 대해서 말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 23:43).

나쁜 소식은 많은 형태들에서 오고 또한 우주적이다. 그것은 다양한 방법에서, 또 정도 (degree)에서 모든 사람들을 괴롭힌다. 좋은 소식은 또한 많은 형태들에서 오게 되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의도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데, 그러므로 그것은 희망이 없는 상황들(나쁜 소식)에 희망(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 예수님과 같이 목회자는 직업적이든 또는 자원적이든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포괄적인 해답들을 제공함으로써가 아니라, 삶을 생산하는 (reproducing) 해결들을 제공함으로써이다.

실패를 막는 목회의 두 번째 방법은 질적인 것에 대해 헌신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목회를 디자인하는 가장 큰 일로부터 목회를 다루는 가장 작은 일 까지이다. 질적인 것이 목표이다.

미국의 큰 교회들 중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플로리다의 코랄리지(Coral Ridge) 장로교회는 질적인 것에 대해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다: "모든 것들에서 우수하게, 모든 것들을 하 나님의 영광에." 목회지도자들은, 우수성이란 것은 전염적이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너무 적당히 얼버무 리고, 너무 평범하고, 그리고 너무 부주의하다.

실패를 막는 목회의 세 번째 방법은 소위 내가 말하는 **12가지 기반적인 받침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성공적인 평신도목회를 한지 5년 후에 발견하였다.

나는 LPM의 효과에 대해 강의하도록 켄터키 렉싱턴(Lexington)의 남 전도 아침모임에 초청되었다. 나는 준비하면서 목회에 대하여 변명하 고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이 되게 한 것에 대해, 내 자신이 심각하게 질 문해보면서 다음의 12가지 요소들을 표면화했다.

당신은 12가지 받침들이 목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견고한 기반을 제공 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세워진 목표들에 있어서 가능 한약점들을 나타내도록 하는 평가도구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그 다음 에 수정적인(corrective) 행동은 목회가 쇠퇴하기 이전에 취해질 수 있다.

비록 그들은 시리즈로 되어 있지만, 이 12가지 벽돌들은 한 묶음(one unit)이며 그리고 전체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목회에서 건강은 신체적 인 건강이 기여하는 많은 요인들의 연합과 같은 방법에서 기여하는 많은 요인들의 연합이다.

신체적인 건강에 관련되는 심장병리학자 제임스 리페(James Rippe) 의 지혜는 12가지 블럭들을 한 단위(one unit)로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예증한다: "건강유지는 삶의 한 질적인 것이 단지 아니다. 그것은 정 말로 기여하는 많은 요인들의 연합이다: 영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다."<sup>2</sup>

그의 진술에 대한 나의 설명: "효과적인 목회는 단지 한 두개의 요소 들을 꼬집어냄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여하는 많은 요 인들의 연합이다: 비전, 주인의식, 디자인, 그리고 다른 기반적인 블럭들. 각각은 목회의 건강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 기반적인 받침 1: 비전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은 망한다' (잠 29:18).

비전이란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다른 것에 의해서 뭔가 보여 진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장님으로서 어떻게 삶을 계속할 수 있느냐 고 물었을 때, 헬렌 켈러는 비전 없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비참 하다고 대답했다. 이 목회가 의미할 것을 마음에 그리는 것(envisioning) 은 교회의 성도들(하나님의 양떼), 그리고 회중의 영적 지도자('모세) 에게 필수적이다.

- 성서적인 근거와 요청 벧전 5:1-4,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이 너의 책임이다" (2절)는 성서적이면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 님의 요청인데, 그들의 마지막 한 명까지도 사랑 받고 돌봄을 받아 야 한다는 것이다.
- 회중의 필요. 교인들의 리스트를 검토해 볼 때 pastoral care에 대한 필요를 정리해 보게 된다.
- 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은 비전을 밝게 하고 살 아있게 해줄 것이다.
- 지도자들과 나누는 것. 공통적인 비전은 연합과 초점을 창조한다.

## 기반적인 받침 2: 주인의식

누군가가 그 목회를 소유해야 한다. 즉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을 다루고, 그것의 효과성에 있어서 책임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비전을 나누고 책임을 예상하는 4~15명(교회의 크기에 따 라 다르지만)의 목회지도그룹(MLG)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 목사와 공식기관에 의해 파송받았다. 평신도목회자들은 기도와 안 수를 통해 목회에 참여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도그룹 의 회원들이 '양떼를 돌보라'는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직업적인 목사와 파트너로서 세워질 수 있다.

- 그룹의 각각에 대한 우선적인 목회 이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덧붙일 수 있는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어떤 사람 들은 이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다른 헌신들을 그만둘 필요도 있다.

- 주인의식에 대한 어떤 표시들.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것; 모 임 때보다도 다른 때에 목회에 대해 생각하는 것; 집에서, 친구들,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도 목회에 대해 얘기하는 것;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는 것; 그것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며; 진행과 성공 에 의해 기분이 돋구어 지는 것.

## 기반적인 받침 3: 디자인(구조)

알맞은 조직적인 구조는, 두뇌구조가 인간 몸에 중요한 것처럼 목회에 서도 중요하다. 목적은 분명히 설명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목표는 쓰 여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시 될 때마다 그것은 그것이 무엇인지(what it is)를 알맞게 표현할 어떤 형태를 찾는 것 안에 있다"라고 "교 회의 모델이라는 책에서 아베리 둘레스(Avery Dulles)는 말하고 있다. 디자인은 청사진인 건물을 짓는 데에 필요한 것과 꼭 같은 방법에서 목회를 시작하는 데에 사용된다.

• 목적과 목표들을 결정하라. 우리의 진술된 목적은 모든 가족을 위 해 pastoral care를 제공하려는데 있다. 두(頭)문자 'SAM'은 목표 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성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측량할 수 있는 것(Specific, Achievable, and Measurable)이어야 한다.

• 알맞은 구조를 창조하라. 조직적인 구조는 당신의 목회에 필수적 인 것으로서 보여져야 한다. 의리

• 일에 대한 설명을 개발하라. 누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 결정하고 그

다음 '그것(what)'을 써봐라.

• **12가지 기본적인 받침들을 세워라.** 각 건축받침은 중요하다. 당신의 목회가 이런 방법을 따라가는 데에는 몇 개월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할 때에, 그것은 지속될 것이다.

#### 기반적인 받침 4: 소명

"너희가 나를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요 15:16). 평신도는 목회에 임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았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 교회 목자는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쳐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각자는 그나 그녀가 하도록 요청된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서 영적인 은사 받음과 신적인 부름을 받아 들이라. 목회에 부름 받음은 구원에 대한 우리 의 부름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하는데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모든 크리스천)은 목회를 위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가 귀, 팔, 또는 눈인지를 우리 각자가 발견하도록 해줄 수 있다.

• 각 참여자의 소명을 확증하라. 평신도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목회를 위해 은사를 받았거나 알맞은 것은 아니다. 평신도목회자의 소명이 ① 그나 그녀 자신, ② 목회 지도자들, 그리고 ③ 교회지도자에 의해 인증(확증)되는 것은 활력소가 된다.

• 공중적인 인식과 수용을 제공하라. 주일 아침 예배에서, 우리는 장 로들에 의해 안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며, 이 목회를 위해 그들 을 따로 구별한다.

#### 기반적인 받침 5: 준비시키는 것

"목회의 사역을 위해 성도들을 준비시켜라" (엡 4:12, RSV), 영어성경NIV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한다: "봉사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 을 준비시켜라."

• 준비시키는 것에 대한 성서적인 요구를 채택하라. 준비시키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목회하도록 해줄 수 있다. 세 가지 준비시키는 것들이 있다. 첫째, 사람(엡 4:11,12), 둘째, 성령(행 1:8), 그리고 셋째, 성서(딤후 3:16,17).

• 과정을 계획하라. 당신의 평신도 목회 제공자들(lay pastoral care giver)이 준비될(to be equipped) 필요가 있는 주제들을 결정하라. 두 분야들이 연구되어야 한다: 그들을 어떤 사람이 **되도록(to be)** 준비시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어떤 일을 **하도록(to do)** 준비시키는 것. 나의 첫 번째 책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 (역자 번역)은 준비를 위해 12단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평신도목회자들이 시작하는데('기본적인 훈련')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 준비시키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명단을 정리하라. 이것은 공식적이 될 수도 또한 비공식적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한 시간, 반나절, 또는 하루 동안의 워킹 또는 주말(1박 2일)에 할 수도 있다.

### 기반적인 받침 6: 책임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 지에 대해 기대한 것(expected)이 아니라. 그것은 검열된 것(inspected)이다"라고 나의 친구가 말했다.

경험을 통해 볼 때 책임감이 없어질 때에 목회의 활동들은 쇠퇴한다. 책임감은 그 목회 속에서 세워져야 한다. LPM은 이것을 세 가지 주요방 별들에서 한다: 월간보고, 목회 지도감독(supervision), 그리고 목회 나눔(ministry sharing)의 시간들.

• 보고양식, 정책, 그리고 진행과정들을 제공하라. 목회지도그룹은 보고서에 관하여 정책들을 만들고, 그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피드백(feedback)은 필수적이다. 무척

• 목회지도감독. 각 평신도목회자는 어떤 평신도목회자(소위 '목자: shepherd)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목자)의 첫 번째 책임은 평신도목회자를 목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도한다.

• 작은 그룹에서 목회를 나누어라. 우리 평신도목회자들은 정기적으로 만난다. 만날 때마다 그들은 5~10명 정도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것, 그리고 그들의 고민과 기쁨들을 서로 나누도록 한다. 그들은 결코 책임감의 시간으로서 나누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다.

### 기반적인 받침 7: 확증

등허리를 가볍게 두드려 주면서 하는 격려와 칭찬의 말들은 영(he spirit)에 불을 붙이는 것

이다. 사람들을 확증해주는 것은 성서적이다.

봄 137은 우리들에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교훈한다. 대

- 공적으로 인정해 주라. 이것의 어떤 방법은 교회신문에 글과 사진들을 싣고 벽에 포스터를 붙이고 강단으로부터 확증을 통해 해줄 수도 있다.
- 연중목회 축하와 인정행사를 계획하라. 어떤 교회들은 연중 "목회 축하 인정 행사"의 기회를 갖는다. 명예를 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준다.
- 일대일의 확증. 필요시에 충실한 목회를 인정하는 메모카드, 편지, 전화 등은 확증을 해주는 것에 있어서 훌륭한 것이다.

### 기반적인 받침 8: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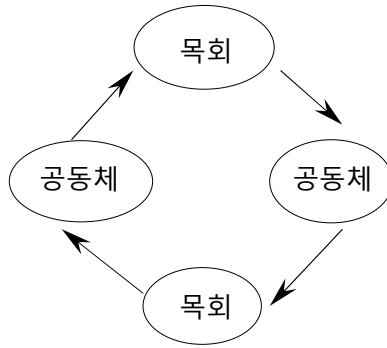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목사들이 하는 것의 대부분을 할 수 있다. 목사들의 할 일은 목회를 위해 이런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며, 행정과 모범을 통하여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 직업적인 목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을 높이 놔두고 메마르게 내버려두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줄 필요가 있다.

- 스텝과 지도자의 유효(가용)성. 목사 또는 목회적인 스텝들은 문제들을 다루고 질문들에 대답하는 데에 유효할 필요가 있다.
- 기도 동지를 구성하기. 바램과 의지는 거기에 있다. 모든 필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서로 서로가 기도하도록 하는 어떤 계획을 제공 하는 것이다.
- 목회감독. 그들은 누군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누군가 그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강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 기반적인 받침 9: 교제

목회가 창조하는 공동체는 나누고, 갱신하고, 성장하는 것이 함께 와야 한다. 목회하는 모든 사람은 목회로부터 공동체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공동체로부터 목회로 되돌아 가야 한다.



우리의 정기적인 모임, 소위 "평신도목회자 연결(Lay Pastors Connection)" 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5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예 배, 목회뉴스, 준비시키는 것, 나누는 것, 그리고 교제.

- 사교적인 행사들을 계획하라. 창조적인 것이 열쇠이다. 사회화 (socialization) 한다는 것은 목회를 재미있게 하고 사람들을 함께 묶어 준다. 연간 소풍, 크리스마스 파티, 그리고 다른 행사들은 경 작(수련)되기 위한 우정을 위해 양육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어떤 사람들은 교제 때문에 목회에 매료되기도 한다.

### 기반적인 받침 10: 커뮤니케이션

목회는 종종 있는 대화(verbal)와 글로 된(printed) 접촉이 없이는 강 해질 수가 없다.

- 월간 뉴스 소식지. 그것은 준비(equip)시키고, 정보 제공, 그리고 광고 효과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소식지는 A/4 사이즈 양면으로 되어 있다."

- 교회 신문에 글들. 평신도목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들에서 회중에게 확실히 보여져야(highly visible) 한다.

1. 당신은 회중으로부터 사람들을 목회로 부를(to be calling) 필요 가 있을 것이다.
2. 사람들은 목회의 보이는 것(visibility) 때문에 평신도목회자들을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 특별한 편지들. 때때로 특별한 편지들은 목회나 특별한 행사시에 어떤 이정표를 강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 예배시에 개인적인 간증. 세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1. 내가 하고 있는 것.
2. 내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3. 나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또는 이 목회를 하는 것이 나 개인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다른 교회들 또 네트워크교회들과 계속 관련지으라. 이것은 소식지, 강사, 출판물 등을 교환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구체적인 네트워크 과 계속 연관짓는 것도 또한 상호 유익이 될 수 있다.<sup>8</sup>

### 기반적인 받침 11: 평가

목회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보려고 시간을 갖는 것은 그것을 앞으로 가도록 해줄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함으로써 해볼 수 있다:

1. 우리가 하려고 계획한 것을 하고 있는가?
2. 우리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의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가?
3.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방법들과 도구들을 사용하는 가?
4. 우리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만약 그렇다면 무엇인가?

평가라는 것은 목회의 현재상태를 알기 위해 설정한 목적, 목표들에 비추어서 측량해 가는 것을 말한다.

• 목회 평가를 위한 디자인 도구들. 이것은 이런 기술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또는 다른 기관으로 부터의 평가양식들을 채택할 수도 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해 보라.

• 목회 개선을 위해 결과들을 사용하라. 어려운 일은 양식들(forms) 이 돌아온 이후에 시작한다. 그들은 목회를 확증하고, 수정하거나 또는 변화하는 데에 함께 맞추고, 해석하고, 또 사용될 필요가 있다.

### 기본적인 받침 12: 유지

이것은 날마다(day-to-day) 사무실의 행정적인 잡무들이다. 유지가 되지 않으면 목회는 조만간에 깨어질 것이다.

• 필수적인 사무업무를 하라. 기록, 과정정리, 보고서, 출판물, 소식 지, 발송 등등이 이런 일이라 볼 수 있다.

• 양떼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라. 목회하는 그룹의 크기는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사가고,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또 죽을 수도 있다. 양떼 속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정기적으로 검토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목회되는 것은 줄어들고 말 것이다.

• 자료들을 제공하라. 자료들은 워십, 준비세미나, 월간모임, 그리고 다른 행사들에서 모아져야 한다.



- 구조 정책 그리고 참여자들을 검토하고 새롭게 하라. 이것은 목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그룹의 할 일이다. 만약 목회가 살아 있다면 그것은 계속 변화 한다.

12가지 기본적인 받침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말들을 의인화 하게 한다. "이제 너희가 이것들을 알았으니 반 약 너희가 그것들을 하면 복이 있을지로 다."(요 13:17), 그것들을 하라. 그러면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라"**

**당신의 사역을 잘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당신 주님의 일이기 때 문이다.**

## Notes

1. 멜빈 총재에 의한 14페이지의 소논문 12가지 기본적인 받침, 등의 전체내용은 UPM연구소로부터 구할 수가 있다. 미국 오하이오 또는 서울 LPM연구소
2. 제임스 리페 박사의 책, '40을 넘어서 맞추라, 에서 인용한 것인데 세인트폴 출판사에서 나온 것이다. 1996, pp. 2~13,
3. 아베리둘레스, 교회의 모델들, (New York: Doubleday, 1974), p.66
4. 스타인브런의 '목회 혼자할 수 있는가?, pp.93-124, 이런 12가지 내용은 비디오 테이프도 가능하다. 이것을 사용해서 8~12시간 준비세미나를 만들 수도 있다. 책자, 비디오 등기 타자료는 연구소로부터 구할 수가 있다.
5. 목회 감독에 대한 더 완전한 설명은 앨빈의 첫 번째 책,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 에서 발견될 수 있다. pp. 71-78.
6. 사무엘 사우스, Comprehensive Pastoral care, 1975, p.7.
7. 희망교회에서 나오는 월간소식지(Keeping PACE)는 연구소로부터 구할 수가 있다.
8.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네트워크가 있다. 그들은 계간소식지를 발간하고 평신도 목회에 대한 연간대회를 주관하고 자료들을 나누어준다. 연구소를 통해 그룹을 얻 기바란다

## 제2부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택하는가?**

## 제8장

### 결론들: 그것을 취하는 교회의 종류

Conclusions: The Kind of Church it takes

#### 여기로부터 거기로 가는 것

*나는* 그것을 취하는 종류의 교회에 대한 결론들을 갖고 여기로부터 거기로 가는 것을 시작했을 때, LPM의 시작부터 나와 연결되었던 교회의 전화를 받음으로 나는 잠시 망성에게 되었다. 그들은 회중이 은사와 목회발견 모험(ministry-discovery adventure)이 완료될 때까지 그 목회를 연기하려고 결정했었다.

"Pastoral care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은사와 소명감에 대해 어떤 아이 디어를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 사람은 설명했다. 그들은 확실히 옳았다!

이 교회 지도자들은 pastoral care를 그들의 우선적인 필요라고 확인 하면서 급하게 메꾸는 **봉대 감기식** 프로그램에 직면하려고 서두르는 대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목회를 위한 기반을 놓으려고 계획하였다. 그들의 계획은 앞장들에서 서술한 7가지 모든 자질들을 합동시키는데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이런 자질은 품질 보증들인데 단지 평신도 목회 만 아니라, 또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평신도목회의 모든 형태들에서 도그렇다.

다음은 7가지의 질적인 문제를 검토해 본 것이다:

필요의식: pastoral care의 필요를 인식.

은사 활용적: 설교, 공부에 의해 영적 은사들에 초점을 맞추고 '은사-평가 도움들을 사용하는 것.

움직이게 하는 것: 평신도가 하는 목회에 집중함으로써 자원적인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친숙(ministry-friendly)" 분위기로 창조하는

목회균형 유지: **대사명** 뿐만 아니라 **대헌장**에 헌신하는 것

평등주의: 평신도에 대한 pastoral care의 근본적인(gross-roots) 목화를 위임하는 것은 갈라져 있는 수준의 교회를 믿는 자의 한 수준 (one-level)으로 변형시킬 것이다. '목회자'라는 직함은 이제 직책 이라기 보다는 은사와 소명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성서적인 근거: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으로서 벤전 5:2, 엡 4:11~ 12(목회의 사역을 위해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 그리고 다른 성구 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받아 들이라.

실패저항: 성공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데 에 필요한 시간을 가져라.

### 성공적인 평신도 목회를 위한 7가지 자질들을 개발하는 것

그런 자질들을 개발하는 데에 당신은 어떻게 하려는가? 더 실제적인 질문은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바꾸려는가? 이다. 우리는 경영컨설턴트 브랜차드(Ken Blanchard)로부터 도움이 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는 셰브론, 록히드, 에이티앤티(Chevron, Lockheed, At&T), 그리고 다른 중요 회사들을 컨설팅하고 훈련시켜 온 사람이다. 리더쉽저널(Leadership Journal) 기자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는데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변화를 창조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였다.

**(1) 이 변화는 어려운 것이다.**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려는 것은 살인적이다. 당신 교회의 어떤 것을 운용하는 방법에서 어떤 주요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어느 곳이든지 2년에서 5년 정도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크기와 조직의 복잡성에 달려 있다.

**(2)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세는 위원회와 같이 언덕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다. 만약 그가 그랬다면 그는 결코 내려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목회자들에게 대한 나의 충고: 비전에 대해서 분명하라."

회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라는 것에 유의하라" 라고 브랜차드는 말했다. 회중들은 대개 큰 그림을 갖고 있지 않다. 목표는 회중의 비전과 목사의 비전이 서로 맞게끔(to match)하는 데 있다.

**(3) 일하기를 원해야 한다.** 브랜차드는 유명한 축구코치던 쉼라(Don Shula)의 말을 이용한다: "나는 더 많은 게임에서 이겼는데 왜냐 하면 셔츠의 소매를 걷어올리고 그것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취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였기 때문이다."

브랜차드는 계속하여 말한다: "분명히 그것은 비전과 방향으로 오게 된다. 그러나 그 다음에 비전은 실행되어야 한다: 코치, 지원, 방향제시, 칭찬, 진행 그리고 재방향 제시."

그는 일하기를 바라는 원리를 계속 말한다: "그러나 단지 비전만으로는 그것을 완성할 수 없다. 너무나 종종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비전에 대해 사용하면서 수행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어떤 점에서, 당신은 움직여야한다."

그는 이런 능동적인 모델로서 예수님을 지적하였다. 사실 그는 "우수성의 추구』(In Search

of Excellence)라는 책을 쓴 피터와 워터맨(Peter and Waterman)을 말했는데 당신은 돌아다니면서 경영을 창안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셨다."

그는 목사와 다른 지도자들 안에서 분명히 일하기 원하는 것과 자아(ego) 사이에 관계성을 보고 있다: "변화의 여정을 다루는 것은 종의 지도력(servant leadership)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들 (egos)을 방법과 찬양, 재방향 제시, 책망에서 빠져 나가야 한다. 어느 것이든지 사람들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아 [ego]를 다음과 같은 문장의 머리 글자라고 보기도 한다: Edging God Out-즉 하나님을 끝으로 밀어내는 것).

**(4)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알아야 한다.** 지도자들(직업적이든 자원자이든)은 단지 변화를 광고만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도록 할 수 없다. 사람들이 그들의 첫 번째 놓여지는 (firstlayer) 관심들에 답할 때까지(이것은 무엇이고 왜? 그것이 되는 데에 나는 어디에 있어 야하는가? 어떻게 해야 그것이 되는가? 영향은 무엇인가? 그들은 변화에 마음을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현명한 지도자들은 리더십이란 당신이 사람들에게(to) 하도록 하는 뭔가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과 함께 하는 무엇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 다. 브랜차드는 보고한다: "지도력이란 파트 너십 그 이상이다. 따르는 자가 기꺼이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면 당신은 그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옛날 쇠귀(rhyme)가 적용된다: "그의 의지에 대항하려고 확신에 차있는 사람은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개인적인 의지에 영향을 끼치려면, 그들이 있는 곳을 알아야 하고, 거기서 부터 그/그녀와 여행을 해야 한다.

만약 변화가 일어나면, 교회의 시스템적인 관점이 필수적인데, 즉 하나의 '시스템(system)'으로서 교회를 보는 것이다. 스티븐스와 콜린즈 (Paul Stevens and Phil Collins) 그들의 책 준비시키는 목회자 (The Equipping Pastor역자 번역하였음)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변화라는 것은 단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스템적인 삶의 수준에서, 그리고 그것의 체계적인 삶에 일관(일치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2) 그들은 이런 확신을 위해 그들의 이슈를 말한다: "모든 교회는 중요한 것과 허용된 것(what is important and what is permitted)으로 새신자와 오랜 신자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하는 협력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 스티븐스와 콜린즈는 이 협력적인 느낌을 문화라고 말한다.

스티븐스와 콜린즈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두 단어 시스템적인 것과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시스템적이란 것은 교회 모든 부분의 상호관련성 (inter-relatedness)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한 부분이 바뀌어질 때 모든 다른 부분들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교회를 움직이는(mobile) 것으로서 보는 것은 시스템으로서 교회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문화(culture)라는 것은 교회의 '유전학적인 암호'로서 개념화 될 수 있는데, 새신자들과 계

승적인 세대들이 가치가 있고, 옳고, 그리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게 한다. 대부분의 교회들에게 있어서 문화라는 것은 교회를 움직여가는 탐구되지 않고 인식되지 않은 다이내믹이다. 신시네티에 살고 있는 나의 이전 친구 게리(Gary Sweeten)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만약 당신이 교회 안에서 뭔가 일어나기를 발견하기 원한다면,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라. 야단법석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모든 교회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양쪽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어디에서 당신이 시작해야 되는지를 당신에게 알려주게(informs) 된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안수받은 목사만이 pastoral care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도들이 믿는다면, '모세' (지도자)는 만약 그/그녀가 사람들 전체에 대해 pastoral care 목회를 하기를 기대한다면, 성도들을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성도들은 그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성서적 진리, 즉 그들 역시 bona fide (즉, 기만함이 없는 순수함)한 목회자들이라는 것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오래 걸리고 어려운 여행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평신도로 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런 여행을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도록 돕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브랜차드가 직업적인 목사에 대해 명명한 꼭대기에 있는 사람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목사가 평신도목회를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할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주목: 이런 8장의 내용들을 위한 실습(LAB)은 부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 **Notes**

1. Ken Branchard, Leadership Journal (spring, 1996), p.114-118
2. R. Paul Stevens and Phil Collins, The Equipping Pastor (Washington D.C.: The Alban Institute, 1993), p.45. 만약 당신이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다루기를 원한다. 번나는 이 책을 추천한다.

## 제9장 어떤종류의 목사가 그것을 취할 것인가?

What kind of Pastor does it take?

**모세: 평신도들로 그것을 하도록 하는데에 대한 우리의 모범이다!**

**이 장을** 쓰는 것은 나로 하여금 마치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있는 모세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해주었다. (출 3~14장을 보라):

"내가 누구관대 이것을 해야 합니까?"

"만약 그들이 나를 믿지 않거나 또는 나를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사람입니다."

"오 주여, 제발 다른 사람으로 그것을 하게 해주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주었다. 그의 부적합성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출생 시에 그의 삶을 보호했고, 나일강에서 그를 구했고, 불타는 나무로 그를 유도하여 그의 사람들을 인도해달라고 부탁했다.

하나님은 모든 회중에게 '모세'와 같은 사람을 제공하며 모세에게 주었던 같은 소명을 주시는 분이다:

- (1) 나의(My)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내가 그들에게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라.
- (2) 그들에게 나의 법령과 원리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들을 가르쳐라.
- (3)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지정하고, 그리고 훈련시켜라.
- (4)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경우에는 당신에게 가져오도록 하라.
- (5) 그들은 당신과 함께 목회를 나눌 것이다.
- (6) 너희는 나를 위해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모세는 목사가 수년을 통하여 저질렀던 엄청난 실수를 하였다. 그는 목회를 그 자신이 감당하려고 애썼다. "애썼다(tried)"라고 나는 말한다. 실제로 그는 목회를 그 자신이 감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대로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목회의 본질 때문인데 목회는 나누어져야(to be shared) 하는 것이다. 모세에 대한 이드로의 충고는 오늘날 지도자들에게도 잘 맞을 것이다:

네가 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 그것은 너에게 너무 많으며, 그리고 너는 사람들을 그들의 목회에서 빼앗는다. 나에게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분산시켜라!

목사인 우리는 우리의 목회를 가지고 있다; 평신도들은 그들의 것을 가지고 있다. 그들로 그것을 하도록 하라. 이드로의 충고는 이 책의 메시지 **평신도들로 그것을 하게 하라**를 확대한다. 그의 책 『제자를 만드는 목사(The Disciple-Making Pastor)』에서 빌 헐(Bill Hull)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을 표현하는 6단계들의 하나로서 "평신도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라"를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자신을 제외한 12명을 그들의 첫 번째 선교에 파송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their own) 방법에서 선교하였다. 예수님은 평신도로 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하는 데서 우리의 모델이다.

### 지도자들은 말한다

나는 증거들을 댈 때에 많은 근거를 대는 것이 안전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목회와 목양(pastoring and pastoral care) 분야에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을 제시한다.

**(1) 존 패턴(John Patten)** 컬럼비아 신학교의 목회신학교수 및 에머리 대학의 pastoral care교수: "목사는 교회에서 '보편가(generalist)' 이고, 믿음의 공동체의 '전체' 목회의 대표자라고 나는 본다. 반면에 평신도 들은 pastoral care의 목회와 같은 목회의 특별한 타입에서 '전문가들 (specialists)' 이라고 보는 것이다."

**(2) 폴 스티븐스(Paul Stevens)** 캐나다 밴쿠버의 리젠트 대학의 학장 이며, '평신도 신학'의 교수: "목사와 평신도를 교회의 '동역목회자들 (co-pastors)'과 '동역 준비시키는 자들 (co-equip pers)'로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평신도를 준비시키는 것은 목사를 돕도록 평신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목회들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3) 윌리엄 에섬(William Easum)** 21세기 전략연구소의 소장인데, 텍 사스의 산 안티니오 (San Antonio)에 있는 감리교회를 목회하면서 엄청나게 발전시킨 사람이다: "그들의 목회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를 느끼고 있는 목회자들은 실제적인 목회의 통제(control)를 회중에게 주게 되는 어려움을 갖게(hard time) 될 것이다. 평신도를 그들(목회자)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목회자들은 이런 형태의 목회를 피할 것이다. 단지 주어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목사들은 평신도목회를 잘하지 않을 것이다."5

**(4) 존 마티슨(John Mathison)** 알라바마 몽고베리에 있는 프레저감리 교회(Frazer UMC)의 담임목사인데,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감 리교회 중의 하나이다(성도들의 83%가 특별한 분야의 목회에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침체하는 교회들에 있어서 문제들 중의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란 '목사와 전문적인 스태프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라는 생각 (mind-set)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전문 적인 사람들이 목회를



하도록 고용되고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은 그 목회의 수혜자(recipients)라는 것이다.....이런 잘못된 개념은 고쳐져야 한다! 성서적인 메시지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목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피터 와그너(Peter Wagner)** 풀러신학교의 교회성장학 교수이며, 교회성장분야에 권위자이다: "만약 목사가 그들의 근본적인 역할을 준 비시키는 자(equiper)라고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평신도는 그들의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그들의 목사에 대한 생각에 마음을 연다면 교회들은 양과 질에서 성장할 수 있다."

**(6) 로렌 메드(Loren Mead)** 워싱턴에 있는 알반 연구소(Alban Institute)의 설립자이며, 수년 동안 목회한 회중교회 목사이다: "미래의 교회는 성직자주의(교회의 파워 시스템)의 힘을 깨뜨려야 한다. 성직자는 그들 자신들에 의해 그들의 힘을 그만 둘 수(포기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평신도가 그것을 취할 때까지 변화는 없을 것이다. 교회는 성직자의 손에만 남겨 두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7) 오스카 퓨케트(Oscar E. Feucht)** 루터교 목사인데 내 목회에 상당히 영향을 준 신학자이며 당시에 평신도목회 분야에서 어떤 다른 사람보다 도더 나에게 영향을 끼쳤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이 그것이 되기를 의도 한 것이 되려고 한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라: 그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회자팀(ministrieum)....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한 목회를 가지고 있다."<sup>9)</sup>

'Good Morning America'의 기상 캐스터인 스펠스 크리스틴은 나라의 날씨에 대해 "이것이 바로 이 나라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라고 결론 짓는다. 스펠스의 전환적인 진술을 이렇게 써보자: "우리는 방금 나라를 가로질러 지도자들이 하고 말하는 것(doing and saying)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있는 그 중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텍사스 안토니오에 있는 연합 감리교회에서, 그리고 알라바마 몽고메리에 있는 프레저 감리교회에서 있는 좋은 '날씨'에는 관계없이, 당신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신 회중의 '모세'로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지역 방송국에 있는 모든 기상캐스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고서이다. 그나 그녀가 날씨에 관하여는 한 가지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보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에 관해 뭔가 할 수 있다. 우리는 제 1부에 있는 7가지 자질들을 프린트된 것으로부터 실천적인 것으로 이동할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 **목사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필수적인 것: 비전, 행동 그리고 지원**

그것을 취하는 목사는 비전을 가질 것이고, 행동을 취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효과적인 평

신도 목회가 일어나기 위해 요구되는 지원을 할 것 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나는 이 장을 마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런 세 가지 필수적인 것도 각각에 대해 시간을 좀더 할애하여 다룰 필요 가 있다고 본다.

## • 비전

"교회 지도자는 비전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비전과 현실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긴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지만, 비전을 결코 현실의 수준으로 내려오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런 철학은 텍사스 휴스톤에 있 는 원즈감리교회 담임목사 캐드웰(Kirbyjon Caldwell)이 한 말이다. 10) 우 리모두는 이런 종류의 비전 존경에 푹 빠져야 한다.

잠깐동안 길을 잃어버렸던 나의 경험이 비전에 대해 좋은 예가 될 것 이다. 미네소타 북쪽 을 걷고 있는 동안에 나는 내가 머물고 있었던 휴양 소로 돌아가는데 숲을 통하여 더 짧은 길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나 는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갔는데 거기에는 길이 더 이상 없었다. 나는 방향을 잃어버렸다.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태양은 구름에 의해 가려졌다. 가시덤불이 있는 어려움을 피하 려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로 하 여금 과정을 더 멀어지게 하였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었거나, 또는 어 떤 방향으로 갔는지도 몰랐다. 두려움이 나를 둘러쌌다. "내 생각에 나 는 길을 잃었다!"라고 나는 외칠 수밖에 없었다.

비록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볼 수는 없을지라도 머리 위로 날아가는 헬리콥터는 내가 '어 디에', 또 '누구였는지'를 쉽게 볼 수 있다 휴양 소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숲속으로 800피트 정도;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 -오른쪽으로 돌아서 북쪽으로 계속가면 숲에서 나올 수 있다. 조종사는 비전, 즉 ① 내가 누구인지? 어디 에 있는지? 그 리고 ③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느헤미야는 비전을 가진 사람의 한 예이다.

-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올려놓아안 수하였으며, 예루살렘을 위해 그가 해야 될 일을 주신 것을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 그는 그가 있는 곳을 알았다 - 그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부터 아주 먼 바벨론.
- 그는 그가 가야 할 곳을 알았다 - 예루살렘으로 가서 황폐한 것들 을 찾아 그 도시를 다시 건 축하도록 유대인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교회의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 있어서 비전 이란 것은 생명이 몸에 대한 것 같이, 목회에 대한 것이다. 영국 서섹스 (Sussex)에 있는 교회 벽에 이런 글을 써 놓았다. "일을 하지 않는 비전 은 꿈에 불과하다. 비전이 없는 일은 고역이다; 비전과 일은 세상의 희망이다."

그러면 비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비전이란 미래를 상상하고 준비 하는 능력이다. 그것은

추상적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subjects)을 마치 그들이 보이는 물체들(objects)인 것처럼 분명히 인식하는 힘(또는 행동)이다. 옥스퍼드 사전은 그것을 상상적인 통찰력, 정치가와 같은 예견, 계획에 있어서 현명함(기민함)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비전은 그것 이상이다. 비전은 그것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비전이란 하나님으로부터의 설득적인 계시적 임무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는 것이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일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한국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으로부터 "당신이 비전을 만들지 않고 비전이 당신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다고 생각한다. 그는 단지 5명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의 눈을 감았을 때 그는 3,000명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성도는 이제 50만 명이 넘는다. 그것이 바 로비전의 힘이다.

비전을 소유한다는 것은(또는 아마도 비전에 의해 소유되었다고 말 해야 할텐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성, 그 사람의 삶과 하나님에 대한 목회에 신실한 헌신과의 지속적인 대화, 성서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요청을 수행하려는 강한 바람(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전이란 진행이 어려울 때에 그 과정에 계속 머물도록 우리를 지켜 준다. 사무엘 즈웨머(Samuel Zwemer)는 그의 책 『기도의 부름』에서 이것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보여준다:

좁은 길로 올라가면서 정상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알프스 등반가는 운 좋은 순간을 제외하고는 그의 목표를 보기 힘들 수 있다. 그가 보는 것은 단지 걸어가야 할 아주 좁은 길, 피해야 할 바위들과 낭떠러지들, 더 가파르게 되어 있는 날카로운 질벽을 이다. 그는 점점 더 약해지고 고독과 무거운 짐을 느낀다. 그러나 등반가의 열감 목표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 때문에 여행의 모든 어려움은 극복 (Inspiration)은 할 수 있는 것이다."

목회에서 비전의 최고 중요성은 집합적인 삶을 위한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 들음으로써 이해된다. 존 네스비트(John Naisbitt)는 "회사를 재 검토하기(Reinventing the Corporation)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회사의 비전은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촉매적인 힘, 조직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다. "<sup>12)</sup>

나는 이 말을 타이핑 쳐서 나의 워드프로세서 상단에 붙여 놓았는데 나는 글을 쓸 때마다 그것을 본다. 나는 그것을 내 자신 속에 깊게 새기기를 원한다. 비전은 힘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힘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책에서 초점을 두는 하나님의 사역의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pastoral care이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

비전이란 회중의 '모세'로 하여금 그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을 지속하게 할 수 있다. 만약 모세가 그의 회중들의 말을 들었고, 그 들을 달래려고 하였다면, 그들은 애굽에 돌아가서 다시 속박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못 했을 것이다. 단

지 그들이 원하는 것만 회중들에게 주는 목사들은 그들을 새로운 높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기는 어렵다. 우리는 비전을 새롭게 하고 에너지를 갱신하고 또 과체에 계속 임하기 위하여 종종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미네소타 트윈스(Minnesota Twins) 야구팀의 감독이 단지 사람들의 원하는 것만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씨애틀 매리너스(Seattle Mariners)가 치고 아직 단지 한 사람이 아웃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투수가 계속 던지기를 바란다. 팬들은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비전이다. 그들은 그 게임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감독도 또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비전(long-term vision)*이다. 이런 와중에서 투수를 빼내는 것은 그로 하여금 다음 경기(next season)에서 좋은 투수가 되도록 개발할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감독은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이다.

이런 두 개의 비전은 충돌한다.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에 상호사람과 존경, 긴 안목의 계획들, 갈등 취급기술, 그리고 많은 기도가 "평화의 띠를 통하여 영적인 것의 연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엡 43).

비전은 연합하는 것이어야지 교회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개 그들의 소명들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사는 그래야 한다. 그녀는 작은 그리고 큰 그림 양쪽을 볼 필요가 있는데, 필요시는 작은 것이 큰 것에 대해 양보해야 한다. 어떤 대회광고에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다: "담임목사는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확신하는 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이 그자 신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목사만 단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전이 다른 사람에게서 시작될 때, 만약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목사가 믿는다면 그는 그것을 '사야(buy into)'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의 수용과 수행 안에서 회중을 인도할 사람은 목사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목회적인 권위와 리더십의 성격이다.

다음과 같은 6가지 단계들은 목사들로 하여금 비전에 접근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도울 것이다:

1.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는 순간, 침묵의 시간을 위해 당신의 눈을 감으라.
2. 며칠 또는 몇 주간을 통하여 침묵의 시간을 반복한 후에 초점이 분명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래의 질문들에 대해 명상하라.
  - 하나님께서 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요청하시는가?
  - 이것이 일어나도록 하는 데에 나의 할 일은 무엇인가?
  - 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3. 이것이 당신의 비전이고 당신의 상상적인 통찰력이다. 그것을 기도함으로 당신의 영안에 인준(seal)하라, 그리고 그것을 써 보라.
4. 그것이 알맞게(적당하게 되자마자 그것을 다른 지도자들과 또는 친구들과 나누라.
5. 만약 그들이 그것을 확증하면, 소위 '비전 던지기(cast the vision)' 로 진행하라. 진행을 위해 공식적인 기관(예, 당회 또는 제직회)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설교함으로써 회 중에게도 환기시키라. 기억하시라: 비전이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에너지들을 모으는 것(channels) 이다.
6. 그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리더십을 주라.

이런 6단계들이 이미 두 번째 필수적인 것, 즉 행동으로 우리를 데리고간다.

## · 행동

내가 목회에 초년이었을 때, 아직 귀가 덜 닳은 시절, 비전이란 대개 '메스꺼운 느낌을 야기시킨 실재(현실)'로 번역한 것을 읽은 적이 있다. 내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이런 '편지 없음(dis-case)은 염려와 두려움에 의해 생겨졌다. 두려움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부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염려는 목사 중심으로부터 평신도 중심으로 나의 전체 목회방향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다. 나는 말씀을 설교와 고 목회를 하는 데에 있어서 목사 중심적인 모델에서 훈련받아왔다. 그 것은 그랬다. 그리고 슬픈 이야기이지만, 지금까지 해온 공부들에 따라서, 오늘날 훈련받은 목사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sup>15)</sup>

말씀을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데 있어서 전통적인 것에 그대로 매여 있는 것(to dick)이 더 쉬웠다. 가끔 의식적으로 괴롭고 좌절이 밀려오 고 시시때때로 덜컹덜컹 소리가 나곤 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전통적인 신학교에서 만들어진 것(traditional seminary-cast mold) 안에서 나는 평안하였다. 나의 성도들은 많이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 역시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것 안에서 평안하였다. 그들은 나를 목회하도록 고용했고나 는 월급을 받았다.

나는 평신도목회에 **대하여** 나의 설교를 행동으로 바꾸는데(translate) 실패함으로 뭔가를 잃어버려 왔다는 것을 수년 동안 몰랐다.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그들에게 목회를 주지 않음으로 나의 성도들을 내가 속 였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훨씬 더 안 좋은 것은 나는 나의 신적인 요청(divine call)에 대해 태만했다는 것이다.

"지금 하라(just do it)! 얼마나 많이 당신은 이런 나이키 광고(Nike ad)를 듣고 보았는가?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말씀하신다. 나는 그것을 정기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나의 나쁜 습관들 중의 하나가 미루는 것이다 어떤 일을 더 편안한 시간까지 연기하는 것. 하나님의 영은 **지금 행동(action now)**을 바라는 대상으로 나를 지적했음에 틀림 없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나는 하나님과 아침시간을 가지면서 그러한 영양분을 섭취했기 때문이다.

내가 읽는 모든 성서로부터의 메시지는 작은 폭포수와 같았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번성한다(시 1:3), 만약 당신이 나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번성케 했다. 이런 네 개의 단어들 나에 나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하라 (약 1:22).

당신은 그의(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행동이 함께 했었다는 것(working together)을 보게 되며, 그리고 그의 믿음은 그가 한 것(he did)에 의해서 완성되었다(2:22).

"이제 이런 일들을 알았으니, 만약 네가 그것을 하면(do) 복을 받을 것이다."(요 13:17)

그러나 너(멜빈)(나는 나의 성경에 썬표 앞에 나의 이름을 적었다. 강하고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의 일(your work)은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대하 15:7).

성경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는 분명히 힘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을 번성케 할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가 말하는 특수하게 하는 것(doing)은 근본적이며, 사람들에게 일대 일(one-on-one)의 pastoral care목회를 주는 것이다. **평신도로 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하라!**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만약 우리가 하도록 한다면 평신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돌본다는 비전은 현실이 될 것이다.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처음 몇 장을 읽음으로써 행동을 통하여 비전을 보이는 형태로 가고 가는 것에 대한 엄청난 것들을 배우게 된다.

느헤미야의 보이지 않는 관심은 새로이 지어서 보이는 성벽을 향한 행동으로 움직인다. B.C. 445년,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수도 수사에 있었 는데, 수백 명의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포로되어 있었다. 예루살렘은 750마일 떨어져 있고, 황폐해졌다.

도시의 황폐 소식을 듣게 되자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고민하는 데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도시를 다시 세우 라는 비전을 주었다. 그는 낙망적인 장면을 아름답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도시로 바꾸려는 열정으로 마음이 꼭 찼다.

그 비전은 바벨론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유대로 가야 한다는 **허락을 요청**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그는 도착하여 그것이 정말로 황폐해 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도시를 조사하였다. 그 다음에 그는 비전을 제사장들, 관리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일하려고 포함된)에게 나누었다(느 4:19).

그의 다음 행동은 사람들을 요청하면서 그들을 움직이는 것 (mobilize)이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그것의 문들은 불로 타버렸다.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서 더 이상 수치를 받지 말자" (2:17).

당신은 낙담되는 목회현실(scene)을 아름답게 잘 돌봐진(well-cared-fox) 회중으로 바꾸려는 열정으로 사로잡힌, 그런 마음으로 온통 짝 찬 목사를 그려보고 있는가? 그의 비전은 필요한 채널들을 통하여 진행되었 으며, 그리고 사람들은 움직여졌다: "너희가 보다시피 우리는 문제가 있다. 우리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그들의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다. 왜냐 하면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평신도목회 자들로 준비되어 내 양떼를 돌보라' 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성취하는 데 도우라".

그의 행동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비전-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형태가 되었다. "재건을 시작합니다" (18절)라고 사 람 들은 말한다. 그들은 함께 일하여, 성벽은 올라갔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것이다" (20절) 라고 느헤미야는 약속 했 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랬다!

당신은 내가 이 신나는 모험(여정)을 다시 읽으며 가졌던 그런 경험 을 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비전으로부터 현실로 옮겨진 느헤미야의 여정을 당신 자신의 스타일과 비교해 보았 는가? 평신도목회(LPM)에 대한 당신의 열정은 아직 비전단계에 있는가? 또는 당신의 사 람 들의 pastoral care를 위한 필요에 대한 비전 이전 단계(prevision-phase)에 있을 수 있다. 당신은 상황(condition)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그것에 대해 기도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당 신에게 비전을 주신다. 또 는 이미 비전을 가졌으며(또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은 생각 속 에 계획들을 구상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확신 속으로 데 리고 오 며, 공식적인 승인을 받으며(느헤미야가 한 것과 똑같이 먼저 왕 으로부터 그리고 그 다음 에 유대인들로부터), 요청을 구하고 목회를 시 작할 수 있다.

느헤미야의 단계들을 다시 추적(retrace)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 우리들 각자가 비전으 로부터 현실로 계속되는 동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준다:

1. 필요의 인식(1:3)
2. 상황에 의해 어려움을 겪었다(1:4).
3. 금식기도하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했다(1:4,5).
4. 첫 번째 행동: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2:5)
5. 두 번째 행동: 시작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2:11~18)
6. 세 번째 행동: 비전을 던지는 것(2:17,18)
7. 네 번째 행동: 사람들의 응답을 모으는 것(2:18)
8. 다섯 번째 행동: 프로젝트를 시작  
느헤미야는 그것을 혼자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라.
9.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재확인하라.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나에게 닿 았다" (2:8,11).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의 마음에 주셨다" (2:12).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 실 것이다" (2:20).

이제 당신은 과정(on the continuum)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였 으니 예수님으로부터 들어라: "이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았으니, 만 약 너희가 그것을 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 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계시 록으로부터의 후렴을 다시 들어 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라." 만약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이제 다음의 시간을

가져라:

-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라
- 당신이 있는 곳을 보라
- 당신이 가고 있는 곳을 보라

행동을 위한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위탁(entrust)**이다. 마치 하나님과 바울이 목회사역을 디모데에게 위탁 한 것처럼("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딤편 6:20) 목사들은 목회에 있어서 평신도를 신뢰해야 한다. 다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목사가 목회를 평신도에게 위임했는가를 보여준다

거의 8년 동안, 밥 라다츠(Bob Radatz)와 나는 희망장로교회의 집사 목회(deacon ministry)에 대해 말하기 위해 아침식사를 함께 하곤 했다. 그것은 전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중요하다: 밥(Bob)은 평신도이고, 가 구수리와 페인팅 직업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집사들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역자 중의 한 사람이다.

어느 날 아침, '밥, 당신을 위해 주님으로부터의 말씀이 있는데 라고 나는 말했다. 그는 히죽이 웃었다. 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내 자신의 말로 바꾸어 쓴 종이 스크랩을 그에게 주었다: "밥, 너에게 돌보 도록 맡겨진 것을 지키라.

수 년을 통하여서 밥이 '집사목회'에 있어서 위임되었다는 것 (entrusted)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는 점점 집사목회를 인도하면서 교역자로서 내가 한 것과 같은 스타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흥미 로운 과정이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모든 목사들에게 추천하는 것이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인의식(ownership)을 갖게 될 때에, 나는 능동적인 참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밥의 지도력 아래, 그들의 목회들은 12그룹으로 나누어졌으며, 각 그룹에 밥과 같은 지도자가 생겼다. 이런 중요한 목회를 밥에게 위임하는 (entrusting) 그것 이 '그의 목회를 만들었으며, 그의 창조성과 에너지는 내가 그들을 인도했던 곳을 훨씬 넘어서 집사들을 인도하도록 방출되었다.

위임한다는 것은 물론 은사를 받음, 소명, 그리고 준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또한 지지를 전제로 하는데 우리가 곧 다루게 될 세번째 요소이다.

아무튼, 이제 행동의 다음단계로 기본적인 부분이 **합법화되는 것 (legitimize)**으로 옮겨보자, 목사는 '합법화시키는 자(legitimator)' 이다 (나는 단지 용어를 바꾸었다고 생각한다). 성도들은 하나님에 관한 그들의 느낌들을 목사를 통해(onto the clergy) 종종 반영(project)한다. 성도들은 서로 격려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들에 있어서 목사만이 단지 의미 있는 허락을 할 수 있다. 기억하시라: 목사는 회중의 '모세' 이다.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말이 있는데 "만약 최고지도자(top person)가 배후에서 그것을 밀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다."

행동의 또 다른 기본 부분은 **양도하는 것(Relinquishing)**이다. 평신 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해질 때에 만약 목사가 그 목회를 양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목회를 주려는 그 비전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목사가 '그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일하기를 바라는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평신도를 알고 있다. 그는 매주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기를 제안했다. 그 목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그것을 양도함이 없이), 신실한 목회를 한지 몇 달 후에, 목사님이 하시던 방법을 줄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 남자는 발견했다. 왜냐하면 그 목사는 그와 똑같은 방문 스케줄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추측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남자는 그만두었다.

내가 밥에게 한 것은 소위 양도하는 목회이다. 나는 그 과정이 의도적이기보다는 직관적이었던 것을 고백해야 한다. 단지 내가 지난 수 년을 되돌아 볼 때에 내가 한 것을 나는 볼 수 있다. 이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알면서 나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 세 가지 주의할 점:

첫째, 양도를 한다고 하여 책임감까지 넘겨주지 말라. 사람들에게 목회를 너무 빨리 넘겨주는 것은 그들을 좌절시키고 실패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목사들은 불법적으로 목회를 빼먹는 것(skipping out) 과, 평신도를 '높이 그리고 메마르게 남겨두는 것, 그리고 시간적인 양도 사이에 너무 좁은 길(narrow-line)을 걷고 있다.

둘째, 양도하는 것을 파견하는 것과 혼동하지 말라. 당신이 파견할 때에, 당신은 주인의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마치 그것을 완성해야 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기대한다.

교회갱신협회의 총재인 하워드 벨(Howard Bell) 15)은 그의 전반적인 후원 아래 주요 책임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예화로 들고 있다. 그는 그 남자가 미리 설명된(prescribed)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 남자가 말했다. "하워드, 당신은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당신 마음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낫다. 만약 그렇다면, 그 다음 거기서 벗어나서(get out of the way), 그리고 내가 최상으로 운용하는 방법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성취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보이도록 하라." 양도(포기)하는 것(relinquishing)은 놓아주는 것이고, 파견(위임)하는 것(delegation)은 얼어붙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어떤 평신도는 목회를 양도(포기,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목회를 주는 것)하는 것을 게으름으로, 당신의 할 일을 줄이는 것으로서, 피병을 부리는 것으로서, "당신이 하기 원치 않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목사들이여, 우리는 이런 비난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비난은, 목회를 풀어주는 것은 성서적으로 환기되지 (oriented)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것은 목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다음의 이야기는 한 목사(Vic Winqvist)가 그의 회중이 근본적인 목 양(pastoral care), 그것을 받도록 준비된 38명에게 어떻게 공적으로 풀 어주었는지를 입증해준다. 빅(Vic)은 미네 소타에 있는 스프링 침례교회 (Spring Lake Park Baptist Church)의 목사인데, 나는 그 교회에서 준비시 키는 세미나(equipping seminar)를 인도하는 특권을 가졌던 곳이다. 내 가 종종 하듯이 나는 그 목사에게 10~15분 정도 새로 임명된 평신도목 회자들에게, 목회가 그 와 그의 회중들에게 어떻게 의미를 주는지를 설 명하도록 부탁했다.

그는 그의 딸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녀의 새로 태어난 얘기를 다른 사람이 돌보도록 하는 것을 거절당한 경우이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그 녀와 그녀의 남편은 얘기를 데리고 갈 수 없는 어떤 행사에 참석할 필요 가 있었다. 할 수 없이 이 애기 엄마는 할머니인 빅의 아내에게 전화해 서 그녀의 얘기를 좀 돌봐 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 날 저녁 빅의 딸은 그들의 집에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할머니의 팔에 안겨 드리고 조 용히 문을 나 갔다.

진지한 어조와 눈물 글썽이는 눈으로 빅은 사람들에게 말했다. "수 년 동안 나는 여기 있으면서 목양(pastoral care)은 나의 애기(baby)였습 니다. 오늘 나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는 앞기 전에 다음을 덧붙였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 중의 누군가가 나의 평신도목회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4년 전에 일어났는데 이 글을 쓰 고 있을 때 그들의 LPM은 회중의 모든 가정 들을 위해 기본적인 목양(pastoral care)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비전에서 행동으로 옮겼는 데, 무엇이 행동을 지탱하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그것은 권위를 취한다.

목사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주어진(derived) 권위이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 으로부터 오며 우리는 그것의 사용에 있어서, 사 용하지 않거나 또 잘못 사용할 경우에 그 분에게 책임이 있다. 권위의 본질의 부분은 우리가 닿아야(reached out; 사용해야 하며 그것을 주장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목회적인 역할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오는 것이 아 니다.

권위는 또한 목회자들을 영적 지도자들로서 인식하고 그들로 하여 금 인도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목 회자들에게 권위를 주지 않으면, 목회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권위를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의 한 가지 지적은 그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는 것이다.

모든 영적인 은사들과 같이 하나님은 사용되기를 바라는 권위를 주 신다. 히 13:17이 무서운 말씀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 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 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 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권위의 본질의 부분은 닿아야(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해야 한다. 미국 연합감리교의 목사 안수식에서 감독은 안수 받는 각 사람에게 "당신의 권위를 가지라"라고 말한다. 감독은 권위를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offer)하는 것이다. 만약 목회자가 그것을 주장하기에 실패한다면, 디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이행에 의해서 그는 권위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사용하라.

권위는 가끔 권력(power)으로서 잘못 생각되어지고 있다. 권력은 자격증(credentials)에 의존하고 일을 성취시키기 위한 위치 또는 물리적 힘에 의존한다. 권위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 설득력, 신실성, 존경, 그리고 노력의 가치성에 의존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과 같은 종류의 권위를 갖는데 우리의 사랑, 종의 마음, 이타주의, 신실성, 그리고 진리 때문에 우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것들이다. 서기관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 씀을 들었을 때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 함일러라"(마 7:28,29)라고 고백한다.

가끔 목사는 자신의 권위를 남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결과들은 심각하다. 어떤 남용들은 다음과 같다:

1. 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뢰함(consulting)이 없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
2. 어떤 구성에 있어서 그것의 수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그룹 또는 개인에게 상의 없이 변화나 새로운 정책들을 소개하는 것
3. 좋은 일이 이루어진 것을 인정치 않으려는 것; 사람들을 확증하는 데 부주의하여 실패하는 것
4. 사람들이 그들의 목회들에서 어려움이나 문제들에 심각하게 빠질 때에 그들을 지원하지 않는 것
5. 모든 것을 붙잡기를 원하거나 적어도 파이(pie) 안에 손가락을 찍고 있는 것(계속 간섭하는 것)
6. 다른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것

평신도들 역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담임목사가 그것을 양도해 (relinquishes) 줄 때만이 그것을 주장할 수 있다. 마치 목사들이 그들의 모세 같은(moseslike) 목회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평신도들도 그들의 목회들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려고 한다. 평신도들은 그들의 목회들에 있어 담임목사로부터 부여받은 권위(projecting authority)를 멈출 때까지는,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목사는 그들의 목회들을 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대해 권위적이 되려는 것을 거절해야 한다.

행동이란 또한 **용기(courage)**에 의해서 지탱된다. 비전에서 현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데에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되게 하는 지속적인 용기를 필요로 한다. 용기는 전통을 깨는 것이 요구된다. 용기는 사람들을 부르는데 필요한데, 단지 주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목회에 헌신하도록 록부를

때에도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설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여러분의 사람들을 불러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꾸짖고, 수정하고, 훈련하고, 또는 필요시는 거절하는 데에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랑 안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세와 같은 목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종종 모세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유는 바로 당신은 때때로 **혼자이기(are alone)** 때문이다.

행동은 또한 **인내(patience)**를 필요로 한다. 장미가 꽃잎을 지속적으로 열어놓음으로써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이, 또한 역시 평신도목회자는 올바른 시간 맞추기(right timing)가 요구된다. 그의 교회에 LPM을 시작하려고 마음이 뜨거워진 한 목사가 구비 세미나(equipping seminar)를 갖기 위해 나에게 연락해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취소해야 했다. 그는 낙담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그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입장(at square one)에서 시작할 것을 생각해보고,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크리스천을 부르셔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리라고 충고하였다.

**지구력(perseverance)**은 또한 행동을 지지하는 데에 결정적이다: 그 것을 계속 그리고 계속 지속하라. 성서가 우리를 독려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히 10:36); 그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 12:1).

행동을 지탱하는데 근본적인 것(bottom line)은 **열심히 하는 것(hard work)**이다. 권위를 가지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인내는 백빠지게 하는 것이다. 지구력은 당신을 지치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리더십 역할을 탐내고 싶어하지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나는 '성공적인 교회 리더십에 대한 로버트 솔러의 세미나에 참석 했는데(나는 평신도목회 워크숍을 인도했다). 솔러 박사는 리더십에서 성공하기 위한 6가지 자서전적인 진술을 하였다.

1. 나는 서두르면서는 어떻게 성공하는지 모른다.
2. 나는 혼자서는 어떻게 성공하는지 모른다.
3. 나는 고통 없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모른다.
4. 나는 목표 없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모른다.
5. 나는 지속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성공하는지 모른다.
6. 나는 인간 필요에 대해 예민함이 없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모른다.

각각은 따로 따로 **힘든 일(HARD WORK)**이라고 쓰여진다. 그들은 함께 **계속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쓰여진다.

가끔 나는 소설, "지붕 위에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에 나오는 테비 (Tevy)와 같이 느껴진다: "하나님이여, 만약 우리가 당신의 선택된 사람 이라면, 잠시동안 다른 어떤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애절한 외침은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다: "하나님이여, 만약 당신 이 이 목회를 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면 잠시동안 어떤 다른 사람을 부르 지 않으시겠어요?" 그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정(the distance)을 가는 데에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신다.

목회에서 성공하면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마 25:21)이라고 보상해 주신다.

## · 지원(support)

평신도목회자 사역을 하려는 목회자에게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지원 이다. 자원적인 (volunteer) 목회자들은 우리가 TV광고에서 보는, 밧데 리가 계속하여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토끼와 같지 않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들을 넘어서 생겨지는 문제에 대해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조종(control)하려고 하지 않고 주의 깊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단히 말해서 목사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는 평신도들로 하여 금 그들의 목회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지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확증, 양육, 협조, 그리고 변호 (affirmation, nurture, assistance, and advocate),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은 목회자로 하여금 부모의 무서운 어조가 없이 목양적인 역할의 이런 부분을 성취하도록 할 것이다. 지지하고 관계성을 수립하는데 간단하지 만 힘있는 몇 가지 방법들 (1) 일터 방문, (2) 알맞은 때의 전화, (3) 메모 와 또는 팩스들.

이 장에서 우리는 평신도목회를 자신의 교회에서 가지려고 하는 목사를 위해 3가지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비전, 행동, 그리고 지원이다.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나는 어떤 경고를 하고 싶은 생 각이 든다. **타성(inertia)과 원상태로 돌아가기(homeostasis)를 조심하라.** 타성은 휴식의 상태에 머무르며 쉬려고 하는 사람의 경향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비전이 아직도 단지 비전이고, 행동으로 나가지 않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 것은 너무 쉬워서 둔한 상태로 남아 있으려고 한다. 성경을 경고한다: 너의 목회의 모든 할 일을 이행하라" (딤후 4:5).

**원상태로 돌아가기**는 그것의 이전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스프링과 같은 작용이다. 교회의 문화를 바꾸거나 목회를 계속 진행하게 하는데 있어서, 이전의 실천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는 힘을 계속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성경(바울이 아그립바에게)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골 4:17)라고 말한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도록 하라."**

## 목사들이여 평신도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라.

주목 : 이 장에 대한 실습(LAB)은 부록 C를 보라.

### Notes

1. 출애굽기 2장, 3장, 이 본문에 대한 더 깊은 연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회를 고려하여 당신에게 주는 독특한 메시지가 산출 되어야 한다.
2. Bill Hul, *The Disciple-Making Pastor*(Old Tappen, NJ : Flemming H, Revel, 1988) p. 190.
3. John Patton, *Pastoral Care in Context*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p.8.
4. Paul Stevens and Phil Collins, *The Equipping Pastor*(Washington, D.C.: The Alban Institute, 1993) pp.xxiii, 34.
5. William Easum, *Dancing with Dinosaurs*(Nashville, Tenn: Discipleship Resources, 1983) p.77.
6. John Ed Mathison, *Every Member in Ministry*(Nashville, Tenn: Discipleship Resources, 1988) pp.1,2.
7. C. Peter Wagner, *Leading Your Church to Growth* (Ventura, Calif: Regal Books, 1984) p.79,
8. Loren Mead, *The Once and Future Church* Washington, DC: The Alban Institute, 1984) pp.95~97.
9. Oscar E. Feucht, *Everyone A Minister*(St, Louis, MO: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74) pp.8,51.
10. Kirbyjon Caldwell, "Jesus as the New Paradigm," *Forum Files* (August 1994),
11. Quoted by Rowland Croucher, *River in the Desert* (Southerland, NSW, Australia: Albatross Books, 1991), p. 115.
- 12, *Ibid.*, p.113
13. 멀독 자선재단(MJ, Murdock Charitable Trust: Vancouver, Wash)은 퍼시픽 노스웨스트 신학교의 논문집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Preview Copy 가 1994년에 인쇄되었다는데 요약된 문장 중의 하나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들의 목회적인 업무를 위해 잘 준비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평신도 리더십의 개발 또는 리더십의 정확함(엄격함)들을 버티는... 그런 능력과 같은 분야들에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믿고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거의 신학교에 대해 분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목사들이 그들의 교육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많은 목사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설교에 대한 도구들을 가지고 신학교를 떠나지만 필요한 리더십기술을 배우기 위한 다른 자료들(sources)을 발견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되기를 원한 것보다도 덜 효과적이 되도록 만들었다. '모델 신학교 가 되기 위한 제안들 중에서 영적인 은사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요청하는 것을 하도록 고무하는(inspiring) 것이다.
14. Op, Ot, (Stevens and Collins), pp.64-69,156, '능동적인 참여'는 스티븐스와 콜린즈가 가르친 4가지 리더십 스타일 중의 하나이다. 목사는 '수동적 참여의 스타일로부터 옮겨져야 하는데 '능동적인 참여자'로 옮겨진 헌신되고 능력 있는 평신도에 대해 일종의 안전한 그물이 되려는 것이다. 네 가지 스타일의 대표적인 예와 그들에 대한 완전한 정의는 그들의 책 4장 에 나와 있다. 나의 목회 스타일은 이 책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 제10장

### 어떤 류의 사람이 그것을 취할 것인가?

What kind of people does it take?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나는** 한번은 어떤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어깨까지 높은 눈 속에 서서 길을 치우려고 애쓰는 남자의 모습이다.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이 제목은 단지 어깨 높이의 미네소타 눈 속에서 삽질을 하고 있는 그 남자에게만 맞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평신도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맞는 것이다. 또한 훈련을 받고 첫 번째로 접촉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맞는다.

그것을 소집하여, 준비시키고, 그리고 평신도목회자들을 배치하려는 업무를 가진 교회 지도자들(직업적인 그리고 자원적인)에게 맞는다. 그들은 이상적인 사람들(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미 분명히 보았듯이 평신도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수백 명의 성도들의 삶 속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런 평신도목회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류의 사람이 이것을 하게 되는가?

#### 방향을 생각하라

목양(pastoral care)을 하기 위해 그것을 취하는 종류의 사람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not perfection) 방향을 생각하는(direction)** 사람이다. 방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서 찾는 것이다: 그를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 혼자만이 **완전(perfection)**이다. 당신 그리고 나와 같이 제자들은 허물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방향은 허물이 없었다. 그들은 그(Him)를 따랐다!

예수님은 그들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결코 그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마태복음에서 다음과 같은

불완전들을 발견하였다:

1. 다섯 번이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적은 믿음(little faith)'을 가졌다고 말했다(마 6:30; 8:26; 14:31; 16:8; 17:20).
2. 그는 종종 그들을 꾸짖고 고쳐주어야 했다(16:23; 19:13, 14; 20:22,23),
3. 3년에 걸쳐 그들을 가르친 이후에 "너희는 아직도 그렇게 모르겠느냐?"라고 그는 물었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는 아직 이해하지 못 하겠느냐?"라고 말했다(15:16; 16:19).
4.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안타까워 하였다(26:40).
5. 그들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서로 질투했으며,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크냐하는 문제로 다투었다고 마가는 보고한다(막 9:34을 보라).

당신과 나에게도 이런 결점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거절하지 않는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 역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이 중요한 목회에 대해 알맞은가를 생각할 때에, 방향을 생각해야지 완전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당신도 자격이 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한 것보다도 더 제자들의 잘못들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들의 잠재력을 더 보았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들을 고기 잡는 어부로 보았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보았다. 마태는 자신을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 보았다. 예수님은 마태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보았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예수님은 당신을 목회자로서 보는 것이며, 아마도 그의(His)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평신도목회자로 볼 것이다. 그는 당신의 허물을 넘어서 보며 당신의 잠재력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 즉 '바위'라는 뜻의 이름을 다시 불러 주었다. 그러나 그때에 베드로는 바위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3년 후까 지도 잘 형성된(well-formed) 바위가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가르치고 또 성령이 그의 삶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완전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목회를 위해 완전히 준비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이런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향을 생각해야지 완전을 생각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당신이 이 장을 읽어가면서, 목양을 하려는 종류의 사람에 대해 점점더배우게 되는데, 만약



당신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면, 또는 응답 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자격이 있는 것이다. 당신은 중요하고 효과적인 목회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평생동안 계속적이고 완전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순수하게 인간 관점으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회를 수행하는 데에 알맞은 사람들은 아니었다. 나는 다음의 '공개편지'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수천 번의 나의 세미나에서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그를 위해 목회를 하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면서 부르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이다.

### 리더쉽에 대한 공개편지

To: 나사렛 25922번지/나사렛목공소      From: 요단 경영 컨설턴트  
요셉의 아들 예수께                          예루살렘 26544번지

존경하는 선생님께!

당신의 새로운 조직에서 책임자들을 세우기 위해 당신이 뽑은 12 명의 이력서를 잘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를 우리는 엄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컴퓨터를 통한 결과뿐만 아니라, 그들 각각을 개인적으로 인터뷰 했는데,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직업적인 적응 능력 테스트에 준하였습니다.

모든 테스트의 결과를 동봉합니다. 당신은 그들 각각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당신의 지도해준 바에 의해 우리는 일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스텝진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스텝진들에 의하면 당신이 제출한 이력서의 사람들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배경, 교육, 그리고 직업적인 능력이 결여됩니다. 그들은 '팀웍'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추천하기를 계속해서, 능력 측면에서 경험이 있고, 적응력이 입증된 사람들을 다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성격이 급합니다. 안드레는 분명히 리더쉽의 자질이 없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명예만을 추구하는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도마는 의심하는 태도가 지나치며 사기꾼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마태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피하고 싶지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시경에 의해 흑색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는 확실히 급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둘 다 '미친 병 증세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사람들을 잘 만나며, 예리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또 상류층의 사람들과도 친분이 두렵습니다. 그는 상당히 동기부여적이고, 꿈이 있고,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가룟 유다를 당신의 수석비서로, 그리고 오른팔로 사용하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단 경영 컨설턴트

## 목회를 하려는 열정

"왜 당신은 그것을 하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목양을 하는 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그들의 대답은 새로이 모집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한 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 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 나는 뭔가 되돌려주기를 원했다(wanted)."

다른 사람은: "나는 뭔가 되기 이전에 오랫동안 평신도목회자가 되기를 정말 원했다. 그러나 나는 뭔가 내 삶 속에 있어서 먼저 강화되어 야만 했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뭔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기회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을 하기를 원했다."

**원했다는 것(wanted)**이 이들의 공통분모이다.

브루스 브그비(Bruce Bugbee)는 계간지 '네트워킹」(Networking)에서 이런 공통적인 분모를 **열정(passion)**이라고 부른다. 열정이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 소명, 은사, 그리고 열정은 한 점에 모인다. 그들 중의 어느 것은 그나/그녀의 특수한 목회를 개인적으로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이런 목회를 취하는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즉 바램(the desire)과 열정(the passion)이 있는 사람이다.

목회에 있어서 열정은 헌신을 낳게 한다. 평신도목회의 근본적인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다. '구세주(Saviour)'라는 명칭은 구원(salvation)에 중심이다. 그러나 '주님 (Lord)'이라는 명칭은 목회(ministry)에 중심이다.

예수님은 그의 12제자들에게 헌신을 가르쳤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막 8:34).**

**누구든지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막 9:62).**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종도 또한 있으리라(요 12:26)**

우리 네트워크의 모든 교회들은 그들의 평신도목회자들('목자, '평신 도사역자'로 불리기도)에게 그들이 PACE에 헌신하기를 요구한다. 이런 머리글자는 목양(pastoral care)을 하는 사람들의 할 일에 대한 설명 (job description)이다. (PACE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책의 서론

에, 그 리고 또 나의 첫 번째 책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 p.85~89 참조). 평신도목회자들은 그들이 맡은 5~10 가정을 위한 **기도(praying)**에, 그 들에게 **유효(available)**하는 데에, 그들과 **접촉(contacting)**하고, 그들에게 **모범(example)**이 되는 때에 성실하도록 헌신해야 한다.

다: 우리가 평신도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또 다른 약속들은 다음과 같다:

1. 시간과 에너지의 투자
2. 주님께서 인도하는 한 오랫동안 헌신
3. 계속적으로 준비된다는 약속
4. 책임적이 된다는 것에 대한 약속
5. 교회와 그 지도자들에 대한 헌신
6. 평신도목회자들의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한다는 약속.

약속(헌신)은 필수적인데, 첫째, 주님께; 두 번째, 교회(목회조직과 지도자들께)에 그리고 세 번째, 5~10 가족에게 해야 한다. 평신도목회자 목회는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PACE를 약속한다. 만약 이 약속 (promise)이 평신도목회자들의 약속(commitment)에 의해 일치되지 (matched) 않는다면, 그 목회는 신실성(integrity)을 잃을 것이다.

### 헌신의 단계

평신도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또는 열정)은 **결정**을 통하여 **헌신**의 단계로 움직여야 한다. 결혼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준다. 한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관심(흥미)을 갖는다. 그는 그녀에게서 매력적이고, 귀 얽고, 매력적인 것을 발견한다. 그녀의 신비스러움과 성품이 그의 관심을 끈다. 화학적인 반응은 올바르다. 그는 그녀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그는 그녀가 그의 아내 되기를 원한다; 그는 청혼을 한다. 대답은 "예이다. 이제 약속(헌신), 즉 결혼하게 된다.

이런 예를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평신도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으로부터 결정단계를 거쳐 헌신으로 움직이는 변화를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평신도는 그 목회가 매력적이고, 즐겁고, 그리고 매력적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그녀는 평신도목회자가 되는 가능성들을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멈추는 것은, 20년 동안 사랑을 호소한 행크와 루실레(Hank and Lucille)와 같이 되는 것이다. 루실레는, 따뜻한 달빛 비치는 밤에 그 들이 결혼했던 때를 생각나게 하지 않느냐고 행크에게 물었다. "분명히 생각나지, 그러나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그는 얼떨떨하게 대답하였다. 만약 결혼이 되려면, 관계성은 원하는 것을 넘어서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원한다는 것은 항상 결혼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목회에서도 사실이다. 시발점의 열정은 계속적으로 기운을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 디모데의 목회에 대한 '열정(불꽃)'은 계속 번득이어야 한다고 바울이 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사를 불 일 듯하게 하라" (딤후 1:6). 그는 또한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상기 시켜야 했다. "열심에 있어서 결코 부족하지 말고, 너의 영적인 열정을 계속 지키며, 주님께 헌신하라"(롬 12:11), 바램(desire)은 항상 거기에 있어야 한다.

어떤 류의 사람이 평신도목회자가 되려고 하는가? 그것을 하는 데 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헌신하는 것으로 변형되기를 바라는 남, 여이다.

### 평신도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헌신의 4가지 요소

헌신은 목회를 하도록 하는 에너지를 방출하며, 그리고 헌신의 핵심 은 4가지 요소들을 포함한다.

#### • 행동

첫 번째는 **행동**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에 번성을 약속하였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에 한 것은 아니다. 시편 1:3에, "그가 하는 것은 무 엇이든지 번성한다"라고 되어 있다.

예수님은 **하는 것(doing)**에 대해 강조하면서 산상보훈을 결론 지었 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마 7:24). 당신이 하는 모든 것, 소자에게 물 한잔 주는 것과 같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아야 한다.

위대한 야구 선수들 중의 한 명인 매트 윌리엄스(Matt Williams)-샌 프란시스코 자이언트의 3루수는 그의 스포츠를 이렇게 말했다. "야 구라는 것은 위대한 게임이다. 나는 그것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그냥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루하기 때문이다." 이 것 또한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보는 것보다 하는 것에 더 즐거움**이 있다.

#### • 성숙

두 번째 요소는 **성숙** 또는 성숙하는 것(과정이 계속되는 것)이다. 헌 신은 성숙의 방향으로 우리를 움직인다. 어떤 이는 자신이 평신도목회 자가 되기에 충분히 성숙하다고 믿지 않지만 그러나 성숙하는 것이 헌 신의 시작 단계(entrance-level)의 요구조건이다. 헌신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기도 한데 우리를 더 큰 성숙으로 향해 움직여 간다. 나는 나이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아니라, 또는 그나/그녀가 얼마나 크리스천 삶에 있어서 경험을 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성장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성숙의 과정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베드로 에게 말할 때에 그는 얼마나 성숙했는 가요 21:16,17), 예수님이 72명을 파송할 때에 그들은 얼마나 성숙했는가? 12제자는 얼마나 성숙했는가(막 6:7)? 별로 많지 않 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헌신했으며, 그리 고그들은 모두 성숙에서 자라갔다.

#### • 인정하는 리더십

세 번째 요소는 **인정하는 리더십**이다. 당신이 평신도목회자로 헌신 할 때에 당신은 교회의 삶에 있어 수동적인 참여로부터 적극적인 참여 로 움직인다. 어떤 이는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심포니의 청중으로부터 나와서 바이올린을 들고 그리고 그 자신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비교한다.

그 목회는 당신의 것이다. 그러나 목회에 대해 소유의식을 갖는 것이 지휘자의 리더십을 무시하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과 같이 목사의 리더십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리더십은 하나님의 것이다. 리더들은 비전, 일치, 방향, 그리고 활력을 공급한다. 이것은 독불장군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지도자들과 함께 '손잡고(hand in glove)' 일하는 사람들 위한 것이다.

#### · 당신이 그것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아니면, 그러면 누구란 말인가? 네 번째 요소는 만약 목회라는 것이 제대로 성취되려면 **당신이 그것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직업적인 목회자는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돌보려는 성향도 없고 영적인 은사 들도 없다.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은 일반적이거나 또는 전반적인 측면 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평신도는 특수하면서도 계속 적인 의미에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직업적인 목회자는 야구팀의 매니저에 비교될 수 있다. 그는 선수들, 투수 코치, 타격 코치, 1루 베이스코치, 트레이너, 장비 매니저, 스카웃 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존한다. 그는 전반적인 의미에서 선수들과 또 다른 일들을 돌본다. 그러나 그의 최상의 에너지 들은 전략 을 세우고 사기적인 측면과 공적인 관계들에 둔다. 만약 그가 그것을 모두 하려면 그에게, 팀에게, 그리고 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만약 목양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려면, '선수들 (자원 목회자들)이 그것을 해야 할 것이다.

### 목양(Pastoral Care)'에서 Pastoral과 Care

헌신의 마지막 요소는 'pastoral care'에 있어서 Pastoral과 Care 것이 다. 무엇이 돌봄(care)을 목회적(pastoral)이 되게 하는가? 예수님이 대 답을 주신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겠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이름으로 너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결단코 그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막 9:41).

아래의 세 가지 방법들이 당신의 돌봄이 확실히 목회적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

#### 1. 네 자신이 되라.

- 당신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곳에는 당신의 특별한 크리스천 향기가 방출할 것이기에 다른 어떤 사람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

2. 하나님의 임재감을 시발하는 데에 대해 의도적이 되라:

- 믿음을 표현하라. 예를 들어 문제들이 표면화 될 때 "내가 믿기로 하나님이 너를 도와 줄 거야"라고 말하라. 격려의 말을 하라.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려고 불렀다고 나는 믿어"와 같은 말을 하라.
-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라. 당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거나, 또는 필요시에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 즉각적인 기도는 위의 두 가지보다 낫다. 우리는 다른 여러 사람과 얘기하는 중에 "당신은 나의 30초 기도자 중의 한 사람이 되어 줄 수 있는가?"라고 묻는 평신도가 있다. 그다음에 그의 손을 그 사람의 어깨에 얹고 기도한다. 그가 나와 함께 이것을 할 때에, 나는 정말로 목회했다는 것을 느꼈다.

3.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삶 속에 있는 문제를 받아들이라.

-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열망하여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 그들의 알려진 연약함과 죄들에 대해 슬퍼하라. 주의 :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조심하라; 목회적이 되라!
- 그들의 교회 참여에 대해 당신 자신이 관심을 가지라.
- 당신은 당신 교회의 목회 팀의 한 사람이지만 단지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순수한 목회자로서 당신이 목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영적인 삶에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제, pastoral care의 care를 살펴보자. 당신의 돌보는 태도와 돌보는 행동은 당신의 사람들이 최상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입증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불려서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창조하여 그들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사랑을 하도록 불렀다는 소명감을 가진다. 당신의 설교하고 돌보는 병을 당신의 향수냄새가 그들의 외적인 분위기를 관통하듯이 당신의 내적인 분위기를 관통할 것이다.

돌보는 것의 보이는 행동은 PACE에서 'A'와 'C'의 형태를 가진다.

**'A':**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에서 저들에게 유용하게 (available) 된다. 이것은 아기를 돌보아 주는 것이나, 도배하는 것을 돕는 것에서 이삿짐을 날라주고,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또 한편, 당신의 유용성은 당신 자신이 이것들을 행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부탁하는(referring) 것이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저는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을지라도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C:** 당신은 그들을 정기적으로 접촉(contact)한다. 이것은 직업적인 목회자들이 과거에 행한

심방고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1년에 한두번 교인들을 방문하였다. 이것은 하는 만큼 좋았는데, 그것은 단지 그것을 필요로 한 것의 한 측면이었다.

목회자는 보통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좀 나이든 부부가 나에게 존스 목사님(Pastor Jones)은 어떻게 그의 가정에 자주 오는지를 말했다.

그는 자기 집처럼 편안해 하면서, 한 컵에 커피를 붓고, 쿠키박스를 들여다본다. 그는 그들과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웃고 울며, 그들의 자녀 들에 대해 마치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염려한다. 이들은 분명히 그가 장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 있다.

목회자들은 오늘날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 시대는 과거이다. 그러 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각자가 '좋아하는 사람' 같이 대우해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날 평신도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옛날 방문하던 것보다 더 우수한 식으로 특별히 돌봄을 베푼다. 각 평신도목회자는 다섯 내지 열 명의 '좋아하는' 가족들을 돌보고 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족이 특별한 관심을 받는다.

이 사역을 위탁받는 평신도목회자는 자신이 언제 시간을 내야 하는 지 또는 접촉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그 만남은 개인적인 가정방문, 전화 거는 것, 뒤뜰에서의 바베큐 식사를 하는 것, 식료품가게에서 담소하는 것, 교회 예배 후 등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평신도목회자들이 일 년에 두 번 정도 가정방문을 하면서 만나기를 요청한다.

어떤 류의 사람이 목양적 돌봄 사역을 행할 것인가? 그 사역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 즉 그 사역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 소명감

전국 평신도목회자 자문단의 한 회원은 자신이 이 팀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있었다. 나의 단순하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즉흥 공 식은 그에게 도전을 주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나는 말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둘째: 하나님은 당신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결정하려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다.

당신의 교회에서 평신도 목양돌봄 사역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 것을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Yes)*라고 말하자. **이것은 당신의 소명 이다!** 나는 평신도들과 목회 사이를 연결하는 것 중에 빠진 것은 **소명감(a sense of call)**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왜 소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 이 소명이라는 말은 기독교 교교회 역사의 중심적인 부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소명으로 시작하셨 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동안 그 들을 부르사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9:9)고 부르셨다. 또 다시, 그는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 를 불러

서 "나를 따르라" (9:9)고 했다.

신약성경에서 '소명' 또는 '부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레오*)(*kaleo*) 인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았거나 초청됨.
- 어떤 직분에 부름 받음.
- 그것에 참여하고 그 일을 즐기라고 초대받음.
- 어떤 일을 행하라고 소환 받음.

(*카레오*)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요청한 것으로 말하는 마태복음 18:2에서 사용된 말이고, 사도행전 23장 17절에 서는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 그가 심부름을 하도록 보낸 것에 사용된 말이다.

나는 노회에서 안수후보자로서 "당신은 왜 복음 사역자로 부름 받았다고 믿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 당시 나는 보고할 가치적이거나 내세울만한 체험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나의 대답은 내가 어디에선가 기억한 인용문, "이해하지 못하는 이 유이지만, 마음은 이유들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용납하였다.

모든 평신도는 모든 목사만큼 분명한 소명을 받아야 한다. 우리 성직 자는 소명에 독점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우리가 하는 것을 잘못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사역에 참여하라고 초청하고 그 사역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신다. 그는 그의 사람들을 속이지 않으시고 그들을 부르지 않거나 소명을 알리지도 않은 채 선택하심으로써 인류 계층으로 배정하지도 않으신다.

### 소명을 들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가?"라고 당신은 질문 한다. 어쨌든 그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들과 교통하고, 그의 임재 안에서 조용함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여러 번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장 잘 듣고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대화를 나눌 때 가장 분명한 소명감을 갖는다.

때때로 우리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욕구들과 기회들에 대해 듣는 것을 통하여, 교회 뉴스레터, 강단 광고,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러한 음성들 중의 한 음성을 놓치고, 그리고 잘못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다면, 그것도 괜찮다. 우리는 다시 해나갈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시도 함으



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부르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금(gold)을 발견할 때까지 그 금을 찾는 것을 중지하지 말아야 한다. 찾는 것은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필요로 하면 도움을 구하라, 많은 영적 은사들과 사역목록들과 프로그램들은 당신이 이 일을 행하도록 돕는데 유용될 수 있다. 가장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것은 케넌 킹혼 박사(Dr. Kenneth Kinghom)가 제시한 6단계 「자기 돕는 테스트인데 나의 처음 책에 포함되어 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킹혼 박사의 6단계 테스트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책에 포함시켰다.

1. 하나님의 사용통로로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열라.
2.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 당신의 열망을 점검하라.
3. 당신이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욕구들을 규명하라.
4. 봉사하고 섬기는 데에 있어서 당신의 노력 결과를 평가하라.
5.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대로 이끄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6.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에 민감하라.

"사역하도록 당신을 부르셨을 때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지? 물어 볼 시간이다. 다섯 사람이 어떻게 그분의 제자들이 되었는가를 살펴 보도록 하자.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독특하게 연관시키는 방법들에 대해 민감하게 되어야 한다.

■ 안드레는 세례요한의 제자였다. 그는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받으셨다. 그분의 용납은 그의 소명을 세워주었다(요 1:35~39).

■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께 오게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도 받으셨다(40~42절). 그분의 용납은 그의 소명이 었다.

■ 빌립은 예수님이 찾으셨는데, 빌립에게 따라 오라고 부르시면서 먼저 시작하셨다(43절).

■ 나dana엘은 회의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친구 빌립은 예수를 만난 것이 아주 신바람 나서 나dana엘에게 "와 보라"고 초청하였다. 이 갓 태어난 제자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생길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dana엘은 예수를 만났을 때에 즉각 신자가 되었다(44~46절).

■ 마태는 일하는 중에 부름 받았다. 예수님께서서는 세금을 모으는 자리에서 그를 보고 부르셨다. 마태는 즉각 일어나서 그를 따랐다(마 9:9).

당신이 이미 영적으로 헌신되어 안드레가 한 것처럼 자신이 먼저 주 도적으로 목록에 들었든, 또는 베드로가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권함에 따랐든, 또는 빌립의 경우처럼 예수님께 서 먼저 찾아 오셨든, 또는 나다 나엘의 경우처럼 의심하면서 예수님께 접근하였든, 또는 마태의 경우 와 같이 생각이나 의향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 서는 당신을 부르시고, 그 분은 과정의 주님이시다.

### 목회 은사들

우리 모두는 자동차를 갖고 있다. 만약 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 려면, 파워는 엔진에 서 바퀴로 전달되어야 한다. 기어는 이런 힘을 전달 하는 중심 기계 장치를 형성한다. 톱니 바퀴로 된 기어들이 서로 연관이 있지 않으면, 엔진은 고속으로 돌지만 자동차는 아무 쪽 으로서도 나아가 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사역도 똑같은 식으로 작용한다. 맞물려야 하는 두 기어 톱니들은 소명과 은사 이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 우리가 뿜어내는 이 너지는 우리의 사역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우리의 최대 노력을 훨씬 뛰어넘는 결실들을 낳게 한다. 소명과 은사들이 연결될 때 풀려나는 사 역 능력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생생하게 묘사된다: 보드

- 하나님은 당신이 결코 채울 수 없었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
-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당신을 데려가기 위해 당신이 있는 곳을 사용하신다.
-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한번도 성취하지 않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
-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결코 되어 보지 않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 당 신의 있는 그대로 를 사용하신다.<sup>4)</sup>

나는 소명에 관해 여러 페이지에 걸쳐 말하였다. 이제 다른 톱니바퀴 인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 말해 보자.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아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거의 모욕적이 다: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성령 의 은사들에 관하여는 이제 너희가 무식하기를 원치 아니 하노라"(고전 12:1).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무식하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는가? 나 는 이것을 통해 인기 있는 코미디언 빌 코스비(Bill Cosby)가 그의 사위 에게 말한 것이 생각난다: 그의 사위 엘 빈(Alvin)은 여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 "여보게 젊은이, 당신은 똑똑하고, 영리한 청년이지만 바보 같군! 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게 "당신은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영리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바보 같군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놀라운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은사들에 이르게 될 때 바보'임을 인정한다. 한 장로교회 장로님은 자신의 영적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소원했던 수련회에서 나를 확신 시켜 주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영적 은사의식을 찾고 있다.

"성령의 은사들은 **영적**이기 때문에 사랑, 기쁨, 화평 그리고 다른 내적인 것들이 특성들이다(갈 5:22). 영적이라는 말은 또한 원천, 즉 하 나님의 성령을 나타낸다. 은사들의 기원은 유전적이지도 않고 환경적이지도 않다. 우리는 은사를 상속받거나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은사들의 분배는 주는 사람(Giver)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교회의 배정이나, 위임이나, 선택에 의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다.

은사들은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은사들은 획득하거나, 공로로 얻거나 또는 계획되는 것이 아니다. 은사들은 우리의 의지로 생길 수 없 고, 우리의 열정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이 주는 것이 아니 다. 은사들은 주어진 능력이기에 기술과는 다르다; 그들은 가르쳐서 배 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술들은 우리가 학습과 실습을 통하여 얻는 능력들이다. 두 가지는 기술들이 우리의 영적 은사들의 효과성을 고양 시킨다는 점에서 연관되어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14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가르치는데 3장 을 할애한다. 그는 성령의 은사목록을 나열한다. 그 다음 바울은 우리 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사랑 없이는 역사되지 않을 것임을 말한다. 이어 서 바울은 은사들의 사용과 남용에 대한 몇 가지 충고를 한다. 또 바울 은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서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 말한다. 베 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영적 은사들에 대해 말한다(그런데 영적은 시는 또한 목회은사, 또는 그냥 은사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어떤 선생님 은은사능력들이라는 말로 바꾸기도 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다 음 네 성경구절의 원리는 여섯 가지 공통된 요소를 보여준다.

성경	모든사람	출처	리스트	사용	사랑	유익
롬 124~9	우리들 각각(4절)	주어진 은혜(6절)	7가지 (6~8절)	그것을 사용(6절)	사랑 (9절)	하나님의 뜻(2절)
고전 12-14	각각에게 (12:7)	영 (12:7-11)	13가지 (12:7~19:28)	위해서 주어 졌다 (12:7)	사랑 (13:1-13)	교회를 세움 (14:12)
벧전 4:8-11	각각에게 (10절)	하나님의 은혜(10절)	3가지 (9절,11절)	그것을 하라(11절)	사랑 (8절)	다른 것을 봉사(10절)
엡 4:7,8 11~1	각각에게 (7절)	그리스도 7절	5가지 (11절)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12절)	사랑 (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12절)

다음 세 가지 간단한 문장은 이것을 한 마디로 말해 준다:

- 하나님은 목회를 위한 은사들을 주신다.
-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들을 주신다.
- 하나님은 그의 은사들이 사랑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하신다.

신약 성경에 수록된 27가지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세 가지 은사는 목 양돌봄을 위한 은사들로 구성된다. 즉 자비, 격려, 그리고 봉사이다. 어 떤 사람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은사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평신 도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비**는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적인 느낌 또는 내적인 자각이다. 도움을 주기 원하는 것; 동정적이거나 감정이입적인 것; 다른 사람의 삶의 상황에 의해 마음이 움직이는 감정들, 그리고/또는 생각이다.

**격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위로하고, 달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영감을 불어넣고, 재 확신시키고, 힘내게 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다. 그것은 강화하고 돕는 것을 목적으로 훈계, 대항, 그리고 권고의 접 촉을 포함한다.

**봉사**는 종으로서 가담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구제하고, 돌봐주 고, 실제적인 방법에서 그리스도인의 애정을 표현하며, 위로와 도움을 베푸는 것이다.

만약, 목회적인 은사에 대한 것을 읽으면서 '**그것은 나다!**' 라고 당신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당신의 그 다음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 해야 한다.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다.

당신의 은사들을 발견하는 분명한 길은 당신이 소명과 은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역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 안에 있는 기어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 지에 대해 민감하라. 당신은 기어 들이 맞물려지는 것보다 갇혀먹는다고 느끼면, 다른 사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할 수도 있다.

우리 평신도목회자들 중의 한 사람은 평신도목회자 사역에서 자신을 우리 교회의 음악과 예배사역에 헌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럴 수도 있다. 왜 기어들을 갇혀먹는가? 음악과 예배 사역을 하면서 기어를 갇혀 먹는 사람이 있다면 평신도목회자 목회에 헌신할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역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 중의 한 이유 때문에 그럴 것 같다: ① 기어들, 즉 소명과 은사가 아 의 만남(engaged)이 되지 않았다. 또는 ② 그들은 '톱니바퀴가 달아버 했다. 즉 소명과 은사가 서로 맞지 않았다. 또는 ③ 과도한 사용, 즉 탈 진이다. 목양돌봄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부름 받고 은사 받은 자 이다.

## 구비되도록 요청함

이전 나의 한 동료는 두(頭-머리글자) 문자어를 창조하는 데에 천재 적인데, 우리는 사역을 위해 FAT사람들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충실함(F-faithful)
- 유용함(A-available)
- 가르칠만함(T-teachable)

충실함과 유용함은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가르칠만함은 구비되는 것(being equipped)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에베소서 4장 11,12절의 "목회의 사역을 위해 성도들을 구비시킴"은 목회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formula)에서 불가피한 부분을 구비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열정과 신앙으로만 목회에 뛰어들지 않는다. 헬라어 < 카타르티스모스(katartismos)는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기 위해 부득불 준비되게 하는 복합적 의미들을 갖고 있다. 이 복합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온전하게 되는 것;
- 순서대로 정렬시키는 것;
- 훈련받고 가르침 받는 것;
- 어떤 사람이 자신의 원래 창조 의도대로 되도록 록하는 것;
- 필수적인 것들로 채비하는 것;
- 완전히 갖추는(furnish) 것.

구비시키는 **프로그램(program)**은 단지 몇 시간만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process)**은 일생에 걸쳐 계속된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구비시키는 **프로그램**은 평신도목회자들에게 열시간 내지 열 다섯 시간의 훈련을 거치게 한다. 그 프로그램은 곧 끝난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들이 사역을 행하는 동안 계속된다.

구비되는 것은 가볍게 취급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어떻게 교회들이 구비시키는 것을 선택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사람들이 구비되는 것없이 평신도목회자가 되게 하고, 또 다른 어떤 교회들은 그들의 기준에도 못 미친 것을 보았다. 이것은 허약한 사역을 조성하게 되며 때로는 실패한 사역의 원인이 된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의(His) 백성들을 돌보고 구비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비시키는 것을 행해야 하고, 잘해야 하며, 그리고 그것은 사역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구비시킨다는 것은 지도자 쪽에서도 훈련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린베이 파커스(Green Bay Packers) 팀의 전설적인 감독 빈세 롬바 르디(Vince Lombardi)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옆에 앉은 사람에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의 대답은 이랬다: '나의 직업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도록 행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목회자들은 성공적인 사역자가 되기 원 하는 것  
임으로, 그들에게 구비됨을 요청하지 않거나 그것을 형편없이 행함으로 미숙한 변화를 가  
져오게 해서는 안 된다.

구비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여 직업적인 목회자들은 기본적인(또 는 신학교) 훈련을 받는  
것이 요청될 뿐만 아니라 매년 '계속적인 교육' 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구비시  
키는데 필요한 예산항목을 소명(부름)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구비시  
키는 양 (amount)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구비되는 것은 교회  
가 프로그램과 과정을 제공하고 요청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만큼 중요하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목 사들과 교사들은 목회  
의 사역을 위해 성도들을 구비시켜야 한다.

### 순종하고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펜실베니아주에서 세미나를 열 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  
의 교회에는 자원자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 님께 순종 아니면 불순종, 둘 중에 하나입  
니다!라고 외쳤다. 그는 확신 을 가지고 이것을 말했다. 그는 옳았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 고한 것을 행하지 않을  
5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댔다. 그는 가시떨기나 무 앞에서 매력을 느꼈는데, 가시덤불은 불  
타고 있었지만 꺼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현상을 사용하사 모세가 이집트에게 가  
서 그가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부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관심을 사로잡으셨다. 하나님께서  
는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그러한 방식을 갖고 있지 않는가!

모세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난다. (다음은 내가 이 이야 기를 풀어서 쓴 내용  
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나는 내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노라'라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이 말씀을 스릴감 있게 느꼈지만, 그 의 스릴은 순간적이었다. 그 스릴이 넘치는  
체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말씀하셨을 때 겹나고 말았다. '나는  
너를 보 내노라."

모세는 뒤로 물러났다. 모세는 하나님께 5가지 두드러진 사항 즉 신 분, 권위, 용납, 유능  
성, 그리고 의지력을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 하였다. 이러한 핑계들은 이상하게 익숙  
한 것처럼 들리는가? 나는 이 모든 5가지 두드러진 특징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였  
는데, 당신 도아주 다르지 않다면, 당신도 역시 그럴 것이다.

"그러나"라는 단어는 모세의 강한 거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민감 함을 나타냈음에 틀림  
없다. 모세의 반응은 "예, 하나님 제가 무엇을 먼 저 해야 합니까?"라고 했어야 했다. 그러

나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는 가? 그 과업은 너무나 엄청났다.

#### **첫째 저항:**

내가 누구관대 이것을 해야 합니까? 그는 자격이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다. 나쁜 핑계는 아니다. 모세는 그런 자격이 없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하나 님께서 모세에게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던 것이다. 그것은 신분문제에 있었다. "내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은 옳은 것은 아니다. 옳은 질문은 "누가 나를 부르고 계십니까?" 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누군가를 부르실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였다. 이해하여 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다(12절).

#### **둘째 저항:**

"나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들은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을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자신 안에 스스로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지금까지는 위탁을 하지 않았었다. 문제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자리에서 권위를 주셨다: "그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노라고 말하라."

#### **셋째 저항:**

"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는 용납에 관계된 문제이다. 어떤 사람도 거부당하기를 무릅쓰는 상황에 뛰어들 기 원치 않는다. 거절당할 가능성은 현실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가?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에 완전히 패배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서는 종국적인 용납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표적을 모세에게 주

#### **넷째 저항:**

"나는 무능합니다." 이것은 알팍한 핑계는 아니었다; 그는 유능하지 는 못하였다. 유능성 문제에 대하여 당신과 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 신시키려는 바울의 인준(허락)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 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고후 3:5,6). 하나님의 약속,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도와서 말하도록 하고 그리고 너에게 말할 것을 가르칠 것이니라"는 그에게 순종을 일으킨 것임에 틀림없다.

#### **다섯째 저항:**

\*오 주님(그는 아직도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제발 그 일을 행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문제는 이제 그의 의지였다. 그는 가기를 원치 않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모세는 갔다'라는 문구를 읽게 된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 일을 시행하게 했다. 모세는 아직 확신이 없는 것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의도하셨음을 알았다. 모세는 확 신이 임하는 몇 달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의도하 셧음을 발견하였다. 주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 모세는 권위를 **가졌다**. 그의 백성과 바로는 그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용납**되었고**, 그는 유능**하였다**. 그는 일을 이루어 냈던 것이다.

모세의 모든 저항들은 평신도목회자로 부름 받은 자들에게는 아주 실제적인 것이다. 누가 다른 사람을 목양할 가치가 있는가? 목회자가 될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거절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유능한 자가 누구인가? 실제로 힘든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자가 있는가? 우리의 반 대들은 정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러한 반대는 아래의 두 진리들 중의 첫 부분을 이루기 때문이다:

- 당신은 자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 때문에 자격이 있다.
- 당신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주 어진다.
- 당신은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하든 당신 을 사용할 것이다.
- 당신은 유능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능함이 되신다.
- 당신은 다른 사람이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대 소리를 들으려 생각한다고 믿지는 않 는다. 하나님께서는 수 천년 동안 사람들의 반대를 들어오셨다. 사실 우리의 진실한 생각과 감정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것들을 발산할 필 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별주시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상세하게 들으신 다음 그의 임재와 공급책을 우리에게 은총으로 확신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핑계 가없어질 때까지 붙들어 놓기 원 하신다. 그 다음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 로 순종할 준비가 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말한 그 사람의 표현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교회에는 자원자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해야 합 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임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자원자 (volunteer)와 목회자(minister/사역자)의 차이점을 생각해보자:

- 자원자는 봉사를 위해 자신을 제공한다.
- 목회자는 봉사를 위해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한다.
  
- 자원자의 봉사는 자기 편리에 따른 선택이다.
- 목회자의 봉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이다.
  
- 자원자는 자기 자신의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다.
- 목회자는 예수를 자기 생명과 시간의 주인으로 인정한다.
  
- 자원자는 조직체와 그 지도자들에게 책임 진다.
- 목회자는 먼저 하나님께, 그 다음은 조직체와 지도자들에게 책임 진다.



■ 자원자는 필요와 인식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다.

■ 목회자는 성령,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필요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다.

■ 자원자는 자신이 어떤 것을 행할 것인지를 자신의 권리로 보존한다.

■ 목회자는 자신이 더 높은 영적인 은사들과 신적 소명의 원리에 따라 행할 것의 선택을 양도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옳았다. 우리는 자원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종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게 됨으로써,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의도하신 것을 체험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일을 얻되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마 16:25),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순종은 내적 태도요 봉사는 외적인 행동이다.

### 영적으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음

전국에 걸쳐 유머 워십을 시행한 한 희곡 배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한 번은 '시내가 깊을 때 물이 느리게 흐른다'는 표현을 들었는데, 나는 깊이 또 깊이 내려 갈수록 알아진다." 이것은 진실만큼 풍자적인 것 같지 않다. 사역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영적 삶에 깊이 헌신되어야 한다. 돈 포스테마(Don Postema)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 (Space for God)"이라는 책에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다:

세상은 실제로 더 바쁜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마도 더 똑똑한 사람들은 훨씬 더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세상은 깊은 사람들, 즉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것 같으면 고독하고, 자신들의 말이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면 침묵하고, 그들의 행동이 어떤 중요성을 갖게 되면 명상하고, 그들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눈여겨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것 같으면, 또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려야 할 것 같으면 기도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의 시간: 성경을 읽고,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 성경을 명상하고(때로는 메모를 하고, 성경 가장 자리에 글을 남기고, 초록색, 빨간색 그리고 검은색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다음의 네 가지를 해준다.

1. 그것은 나로 하여금 **믿게 한다**(believe).
2. 그것은 나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한다**(discipleship).
3.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란 것을 **알게 한다**(identify).
4.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게 한다** (relationship).

성경을 읽는 것, 명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수세기에 걸쳐 '훈련사 향'으로 알려져 왔다.

왜냐하면 훈련은 인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역을 짊어질 사람은 훈련된 영적 성장에 헌신된 사람이다.

만약 당신이 평신도목회자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당신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돌보라고 준 사람들이기에 '당신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자). 모세는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모범이다.

출애굽기 34장의 기록을 보면 산에서 하나님과 40주야를 보낸 후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껍질에 광채가 나타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29절).

당신은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함을 알 것이다. 어떻게? 그들은 그냥 그럴 것이다. 이것에 대한 신비가 있다. 이것은 고전 3:18이 뜻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증거는 다시 오순절 날 나타난다. 120명의 신자들이 온 함께 기다리고, 예배를 드렸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강림하셨다. 저들의 행동은 변화되었다. 저들에게 일어난 것은 불신자들을 아주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저들이 술 취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저들은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행 2:12)라고 물었다.

나중에 사도들 중 두 사람은 또 다른 형태의 동일한 현상을 보고 통치자들, 장로들,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 제사장들을 예상치 않게 놀라게 만들었다.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그 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느니라(행 4:13)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났고, 사도들은 다른 방언을 말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카리스마(은사, 임재)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 시간 때문에 왔다. 당신은 매일 하나님과 특정한 시간을 보내기로 언약할 것 같으면, 당신이 계획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당신의 사람들'에게 은총있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당신의 뭇 목양사역에서 하나님과 또 '당신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뭇 목양시작을 효과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일어날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당신이 막 읽은 내용을 잘 설명해준다. 유명한 성경교수가 연속적인 강연을 할 교회에 초대를 받았다. 그는 각 모임에서 방마다 스며들어 오는 유쾌하고, 꽃의 향기와 같은 것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두 번째 저녁 모임 후에 그 유쾌한 향기가 어디

서 왔는지 물었다. 그 목사는 향수 회사에서 일하는 몇 사람이 자기들 직장에서 오늘 모임으로 직접 왔음을 설명했다. 그들도 모르는 새에 그들의 옷은 향기가 배어 있어서, 그 향기를 방에까지 풍기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향기'를 빨아들여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령게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역은 효과적이다.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을 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 원리는 1920년대 영국에서 성공회 사제들에게 연속적인 얘기를 한 한 평신도 에벌린 언더힐(Evelyn Underhill)에게로 거슬러 올라가게 한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당신의 제일가는 신앙 행위여야 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없는 다른 모든 신앙활동들은 그 가치들을 잃을 것이라는 것이 철저히 실제적인 이유다... 다른 일들, 지적이고 사교적인 적성, 좋은 설교, 조직능력 등 등은 이 사역에 도움이 되며 그리고 그것은 꽤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기도만이 필수적이다.

### 어떤 것에서든지 준비를 함

사역을 행하는 동안의 즐거움, 기쁨, 만족은 시작할 때 갖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나 고통은 또한 사역의 일부 요소이다. 예수님께서 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또 예수님께서 는 사역을 행할 때 '생명'을 발견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 는 우리가 사역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유쾌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평신도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쁨과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

바울은 돌보는 고통을 체험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갈 4:19). 그러나 이 고통은 기쁨의 흔적 그 이상의 것이다. 왜냐하면 빌립보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면류관" (빌 4:1)이었기 때문이다. 또 예수님께서 는 고통과 기쁨을 다 아셨다. 평신도목회자들 도 그럴 것이다. 이들은 사역을 위해 어떤 것이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들은 기꺼이 '모험을 무릅써야 하고 안전함, 편안함 그리고 위 로를 초월하여 모험을 해야 한다.

나는 어디에선가 이런 글귀를 읽었다. "당신이 근심이 없다면, 당신 이 직면한 모험은 아마도 당신에게는 소중한 것이 아니니라. 당신이 항상안락하고, 항상 위험이 없는 삶을 창조한다면, 당신은 바보의 낙원을 만든 것이다."

고통의 3가지 원천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들에게 공통되는 것이다. 첫째는 **거절** (rejection)이요, 둘째는 **고통**(trauma)이요. 셋째는 **실패** (failure)이다.

#### • 거절

첫째 거절을 보자. 연민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항상 용납 받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고

통의 모험을 걸 것이다. 거절당하면 상처를 받는다. 우리는 앞에서 봤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주요 이유들 중의 하나는 "저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거나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출 4:1)이었다. 대부분의 평신도목회자들은 이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 그 두려움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좋은 동료 중에 끼어 있다. 예수님은 거절의 종국적 고난자이시다: "그가 자기 땅에 왔으나, 그의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 하였더라"(요 1:11), 거절당함의 고통은 일을 행하는 대가이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것이다. 영접 받지 못하거나, 또는 냉혹하게 거절당하는 것은 실제로 온유한 마음, 민감한 마음, 자기를 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로 파고 든다. 그것은 상처가 된다!

## • 고통

아픔의 둘째 원인은 고통이다. 나는 한 평신도목회자를 기억하는데 그는 당시 병원에서 입원하는 환자를 배당 받았다. 참으로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녀는 방문하려고 홀을 걸어가고 있을 때 파란색 코드! 파란색 코드라는 통화장치 소리를 들었다. 간호사와 의사들은 그녀가 가고 있던 방으로 몰려들었다. 이것은 그녀가 사람이 죽는 것을 본 일생의 첫 번째 경험이었다. 그녀는 고통의 감정을 겪었고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때때로 계속 상처를 받는다.

물론 이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다. 그러나 또한 덜 고통스러운 경험들도 아픈 것이다. 사고들, 오랜 질병들, 유산, 수족절단, 이혼, 재정적 파산, 기타 신경을 끊어버리는 듯한 비극들은 아픔을 가져온다. 당신은 평신도목회자가 될 때, 고통스러운 사건들로부터 받게 될 괴로운 고통의 모험에 자신을 열어야 한다.

## • 실패

셋째 아픔의 원인은 실패이다. 당신은 때때로 실패하고 그것을 실패했다고 느낄 것이다. 이것은 살아 있는 자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이것은 굴욕적인 것이다. 그러나 기다려라. 모든 것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그 다양한 형태의 실수, 무능함, 어리석음, 오해, 나태함에서의 실패는 긍정적일 수 있다. 어떤 실패들은 오로지 인식된 실패들이므로 실제적으로는 전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실패들은 참 실패(재난)이지만, 이러한 실패들은 훌륭한 교사들이다. 우리는 실패들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그 실패들을 성공으로 바꾸게 된다.

우리의 가장 훌륭한 사역 모델인 예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가장 훌륭한 모델인데, 여러 경우에서 여러 가지로 실패하였다:

1. 제자들은 고통받고 있는 소녀를 도울 수 없었다. 그 소녀의 아버지는 절망하였다. 이런 종류의 실패는 **무능함**이다.
2. 제자들은 자신들이 굶주린 5천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이런 유형의 실패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판단착오**와 **무지**이다.

3. 제자들은 자신들 중 가장 큰 자가 누구냐고 논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였다. 이런 유형의 실패는 **자만과 질투**이다.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선(앞선) 제자(pre-disciples)의 삶으로 빠져들었다.
4.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의 부모를 내어쫓았을 때 실제적으로 그런 실수를 했다. 이런 유형의 실패는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오해였다.
5.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를 내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불로 멸망시키기를 원하였다. 이런 종류의 실패는 **앙갚음**이었다.
6.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괴로워하실 때 잠자고 있었다. 이런 유형의 실패는 오로지 **신체적인 허약성**일 수 있지만 제자들이 **감정이입이 부족**하고 예수님의 씨름의 심각함을 판독하지 못함인 것 같다.
7.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 중 한 사람의 귀를 칼로 쳐내려 실패했다. 이러한 종류의 실패는 위협적인 환경에서 **과도한 반응**이었다.
8.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고기 잡으러 되돌아갔다. 이런 유형의 실패는 **비전 상실**이요 아마도 **자기 동정**이었다.
9.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성령강림의 유익을 가졌던 오순절 후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차별하였다. 이런 유형의 실패는 하나님 사랑의 넓이, 예수님 희생의 관대함, 교회의 포용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패들이 있었는가?, 베드로는 그 실패들중하나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쓰디쓰게 울어댄 고통을 갖게 되었다. 실패는 상처를 준다. 실패는 평신도목회자의 사기를 꺾고, 그의 사역을 망가뜨리려고 한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에서 분명히 회복되었고, 그 실패들로부터 배웠고, 그 실패들을 뒤로하고 교회를 발견하려고 그 리고 지상 대 사명을 성취하려고 전진하였다.

그러므로 평신도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다.

- 방향을 생각하지, 완벽함을 생각지 않고;
- 사역을 행하기 원하고;
- 소명감을 갖고;
- 목양 은사들을 갖고;
- 순종하고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고;
-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다.

당신이 사역하는 것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신의 생애에서 이러한 특성들이 무르익기를 기다리지 마라.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자신들이 결혼할 여유가 생기기까지 기다린 만화에 나오는 남녀와 같이 될 것이다. 회초리 막대를 가진 신랑은 휠체어 통로 쪽으로 신부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이 장의 첫째 단락을 심각하게 생각하라. 그것은 마치 당신이 지금 당장 평신도목회자가 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그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랬던 것처럼 김당신이 사역함으로 성숙에서 성장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평신도사역에 관한 이 책을 여기까지 읽을 정도로 성장 해 있다면, 나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사역을 위해 구비되지 않겠다고 변명할 수는 없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 라순종이다. 자신에게 헌신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라." 교인들이여, 목양이 당신의 소명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하라.**

## Notes

1. Bruce L. Bugbee, *Networking*, (1989): 4, 106-108.
2. Melvin J. Steinbron, *Can the pastor do it Alone?* (Ventura, Calif: Regal Books, 1987) p.63-66,
3. Ibid., p.68.
- 4 . Tim Hansel, *Holy Sweet* (Waco, Tex.: Word Books, 1978) p.25.
5. Quoted be Rowland Croucher, *River in the Desert* (Sutherland NSW, Australia, Albatross Books, 1991) p.58.

## 제11장 왜 평신도들이 목양을 할 수 있는가?

Why lay people can pastor?

### 누가 목회자인가?

*브라이언의* 목회자는 누구인가? 안수받은 목회자인가 또는 평신도목회자인가?

브라이언은 "정신적으로 도전 받고 있다." 희망교회는 많은 목회적 원을 갖고 있지만 아무도 정기적으로 브라이언에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나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다; 그 곳에는 더 헌신되고 유능한 직원이 어느 곳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돌봄사역을 잘 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직업적인 목사나 그룹의 목사들 도브라이언에게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필요하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을 계속 받아야 하는 돌봄 사역을 제공하지 못했다.

아일 테일러(AI Taylor)는 4년 전에 평신도목회자가 되었고, 브라이언은 그가 맡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되었다. 테일러는 거의 주일마다 철축하였고, 그의 수영모임에 계속 참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 하고, 그와 함께 성경을 읽고, 그의 부모와 만나고, 때로는 점심을 대접 하였다. 브라이언과 테일러는 결속이 이루어졌다. 브라이언은 행복했다. 그의 부모는 안심하였다. 테일러는 성취감을 느꼈다. 또 다시 질문: 누가 브라이언의 목회자인가? 분명히 테일러이다.

스코트와 캐디 카트라이트(Scott and Kathy Cartwright)의 목회자는 누구인가?

캐디가 다운스 신드롬(Dawn's syndrome)의 중세를 가진 아이를 낳았을 때 그들은 앞이 캄캄했다. 막 평신도목회자가 된 룯 코너(Ruth Connors)는 이 부부를 자기의 목양그룹 속에 넣었다. 또 그녀는 그들을 그녀의 마음에 두었다. 룯은 초창기 관계성 때에 격려하는 편지를 썼는데, 스코트와 캐디는 그녀가 자신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음을 그 글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 룯은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고 필요할 때 그들과 교제를 가졌고 전화로 계속 교감을 가졌다.

이해의 놀라운 수준은 분명하였다. 스코트와 캐디는 그녀가 안 것을 알았다. 그녀의 간증은 빛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 그들을 위로했 다는 것이다(고후 1:4) 빛은 그 부부가 자기 목양그룹 안에 들 것을 요청하였었다. 그녀가 필요할 때 그녀의 유용(Available)은 하나님

께 속한 적기였음을 나타낸다.

목회직원들 중에 한 사람도 이때 특별한 도움을 주었다. 그는 병원에 자주 방문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 일에 동참하였다. 또 다른 목회 직원들 의 한 사람은 스코트와 캐디에게 방문과 기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두 목회자들과 붓은 이상적인 목양팀인데 자기 자신들의 독특한 목양돌봄을 각자가 제공한 것이었다. 그 결과는 잘 해내었던 것이다.

당신이 기대하다시피, 부교역자들은 교회의 다른 중요한 필요의 지속적인 과정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었지만, 릿은 지원적이고 조력적인 돌봄을 계속한다. 그녀는 날마다 또 주마다 끊기지 않는 사랑과 돌봄을 제공한다. 그녀가 네 명의 카트라이트(Cartwrights- 4살의 어린 딸 포함) 전 가족에게 있어 지속적인 목회자인 것이 확실하다."

나는 종종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다. 나는 평신도목회자 사역의 창설자이자 평신도목회자 사역의 총재 자리에 있으면서 미국, 캐나다, 바하마스, 호주, 남아프리카 등 방방곡곡에서의 목회지도자들과 전화 를 주고받는다. 또 나는 그들의 많은 뉴스레터를 읽고 훈련 및 정보 세미나를 인도하고 들리는 자들을 만나는 특권을 갖고 있다. 저들이 나에게 개발하고 있는 것을 듣는 것은 감동적이다.

우리의 네트워크에 든 교회 중에 하나인 북 캐롤라이나의 스테이츠 빌(Gatesville)에 있는 성 요한 복음주의 루터교회를 생각해보자. 이 교회는 1991년 평신도목회사역(LPM)을 시작했다. 그 사역에는 377명이 포함되어 있다(내 기억으로 LPM은 35명에서 7000명까지의 교회들에서 활용되고 있다).

성 요한 교회의 평신도사역자들은 1996년 2,717번의 접촉을 가졌다. 이 평신도 사역자들 중 한 사람은 단지 접촉회수 아니라 접촉유형을 보여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컴퓨터로 그래프를 작성한다.<sup>2)</sup>

1996년 2월은 전형적인 달인데, 이 교회 평신도사역자들은 17번 가 정을 방문하였고, 110번 다른 사람들을 1:1로 방문하였고, 107번 전화를 걸어 대화하였고, 64번 카드나 편지를 발송하였으며, 26번 다른 방법의 로서로 접촉하였다. 이것은 한 달에 324번의 만남, 1년에 2,717번의 만 남에 더한 것이다. 이 그래프는 사람들을 위한 매일 기도들, 필요에 대한 지속적인 유용성, 삶의 상호 결속들, 또는 계속적인 만남의 종합적인 수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수치는 전 교인이 볼 수 있도록 평신도 사 역 게시판에 도표로 나타나 있다.

이 사역의 효과는 그들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감당할 충분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갖고 있을 때임을 상상해 보라. 한 두명의 직업적인 목사들이 1년에 얼마나 많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 의미 있게 기도할 수 있을까? 직업적인 목사들이 평신도목회자들이 이는 것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여 그들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평신도목회사역(LPM)은 오늘날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모델 중에서 단 한



가지 평신도 목양 모델(lay pastoral care model) 이다. 또 다른 목양 모델들은 스테반사역 (Stephen Ministries), 친구가 되는 자 사역회(BeFriender Ministries), 사람들의 사역회 (People's Ministries) 등등이다. 각 모델은 그 독특한 접근법을 갖고 있지만 공통 분모는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목양적으로 돌보도록 구비시키는 것이다.

자질있는 평신도에게 회중적인 돌봄을 맡기는 교회의 목사들은 그들의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가?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들은 모든 교인들에게 돌봄이 가능하게 할 제도들을 목양할 정도로 사람들을 돌본다. 그들은 모세와 같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관심을 갖고, 자질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일, 그리고 일대일 목양돌봄이 되도록 한다.

직업적인 목사들과 자원 목회자들은 진정으로 '목회에서 동역자',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공동목회자'이다. 직업적인 목사는 큰 문제들 즉설교, 교육, 상담, 위기관여, 결혼식 및 장례식과 같은 일을 다루는 일반전문가(generalist)이다. 자원목회자는 특수전문가(specialist)인데 관리할 수 있는 양 무리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지속적인(상시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직업적인 목사들은 교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큰 일들에 대한 정보를 받지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일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조(Joe), 방탕한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스미스(Smith), 피터슨(Peterson)의 결혼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다가오고 있는 수술에 대한 린다(Linda)의 염려 등등.

또한 직업적인 목사는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물건, 새로운 조경, 개인적인 졸업식, 방학이나 휴가여행, 임신시작, 생일, 연중행사, 기타 축하행사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자원목회자는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직업적인 목사는 다음 주일 설교, 제직회, 당회, 직원회, 평신도 사역 지도자들, 성전 확장 계획 같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직업적인 목사의 기본 업무는 개개인을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를 목양하는 것이다. 만약 목사가 교회에 영적인 리더십을 제공할 것 같 으면 평신도 사역들은 번창할 것이다. 그러나 목사들이 만약 그들의 에너지를 일대일 목양돌봄(person-to-person pastoral care)에 사용한다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없다.

스티븐스와 콜린스(Stevens and Collin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것은 목사에게 새로운 일거리(job description)를 준다." 맨셀 패티슨 (Mansell Pattison)은 "나는 근본적으로 목사를 시스템의 목자로 봅니다. 목사는 교회의 하부 시스템들을 육성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말한다. 목양돌봄(pastoral care)은 단지 성도 개개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스템을 돌보는 것이다.<sup>4)</sup>

다음 일에 대한 도표는 자원 평신도목회자들(the specialists)과 직업 목사들(the generalists)에게 주어지는 돌봄의 유형을 나타낸다.

자원 평신도목회자들	직업 목사들
근본적인 돌봄 일대일 돌봄 기본적인 회중돌봄 계속적 목양돌봄 "서로 서로" (살전 5:11) 정기적 돌봄 계속적인 근거에서 돌봄 당장(hands-on) 돌봄 최전방(선봉) 돌봄	전체를 돌봄 모든 교인 돌봄 양육, 동원, 구비시킴 긴급, 단기돌봄 전체교회에 대한 돌봄 위기와 특별한 필요시 돌봄 연속적인 돌봄 더 큰 문제들 일반적인 돌봄

세 가지 이유에서 평신도목회자들은 회중에 대해 최전방(선봉) 목회자들이 될 수 있다: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목회(ministry)를 주신다.
  2. 그들의 교회가 그들에게 목회를 준다.
  3. 그들은 열정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회를 주신다.

###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에게 목회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명 부여와 더불어 성공적으로 해낼 능력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회를 주시는 사람들에 대해 삶의 발달(성장)보다도 더 큰 것(a larger-than-life stature)을 기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구약의 족장들, 예언자들, 왕들에 대해 생각한다: 즉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신약의 사도들에 대해 생각한다: 즉 베드로, 요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교회사를 통하여 교회인물들을 생각한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 테레사수녀, 빌리 그래함 등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역을 보통사람들에게 부여하신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압제받는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려는 일을 주신 기드온은 그의 가족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었으며, 그 가족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씨족이었다. 사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알려지지 않고, 가망성이 없고, 훈련받지 않고, 또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을 어떻게 보았느냐와 이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다(사사기 6~8장을 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보셨다(6:12), 말씀은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느니라"로 알려준다(34절). 그의 성공은 그 자신의 뛰어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것에 있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북방도시들의 선지자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을 때 보통 목자였다. 그의 효율성은 그의 큰 통찰 력이나 웅변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있었다(암 1:1~11 을 보라), 아모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주께서 이렇게 말씀 하시니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11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 건설의 사명을 맡기신 사도들의 평범 성(unlikeliness)을 이미 보았다.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오는 시대'까 지 계속될 그들의 성공은 전문성이나 천부적인 능력의 원천에 달려 있 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에 그 원인을 돌리게 된다 (행 1:8을 보라).

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같으며, 단지 보통 사람들 이다.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신 동일한 하나님이 목양돌봄 사역(pastoral care ministry)을 우리 교회들의 교인들에게 맡기고 계신다. 같은 하나님 께서 그들에게 유용(available)하였던 동일한 자원들(resources)을 당신과 나에게도 유용하게 하신다.

로버트 슬로컴(Robert Slocum)과 나는 보통사람들을 믿는다. 슬로컴 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21세기 효과적인 교회는 사역에서 보 통 그리스도인들을 동원하고(mobilizes), 구비시키고(equips), 능력을 주고(empowers), 그리고 지원하는(supports)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슬로컴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 나는 평신도를 의미하는데, 교회 전문 직분 을 가진 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의 98% 이상을 이루고 있는 보통 남자들과 여자들을 의미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한다: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sup>5)</sup>

내가 자주 인용한 평신도 사역을 위한 기본적인 성경구절인 앎 \*11,12는 이 점을 분명히 해준다: 그것은 사역을 하도록 구비되는 하나 님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평신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회를 주셨기 때문에 목양할 수 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라." **평신도들로 그것을 하게 하라!**

### 그들의 교회가 그들에게 목회를 준다

교회는 목양돌봄 사역을 교인들에게 부여할 때 그 자신의 권위로 행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역을 부여하시지만, 교회도 평신도 사역이 일어나게 하려면 또한 사역을 교인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내가 파트타임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는 교회는 그 사역을 교인들에게 주고 있다. 제직회 (Session/official board Structure) 규정안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봉사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데 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서(엡 4:11-12), 장로의 영적인 책임 중의 하나는 교회 지체들 가운데서 사역을 위한 영적 은사들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사역과 선 교를 위해 동원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이다. 우리는 억제하기 보다 허락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제직회의 할 일은 새롭고 실재하는 사역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도록 환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깨어났다. 성직자와 평신도들은 전통적으로 아주 작은 사역집단이었던 것을 재편성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크게 만들고 있다. 어떤 교인들은 결국 평신도들이 그 일을 '하도록(letting)' 하고 있다. 역사는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시도를 기록하고 있다. 마틴 루터는 만인제사장' 신학을 갖고 있었지만, 사역에 관련되어 그것을 시작함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였다.

존 웨슬리는 653명의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18세기에 복음을 전파하고 목망을 하게 하였다. 그는 이것을 함으로 다른 영국 성공회 성직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들에 대한 웨슬리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평신도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는 것만큼 미련하지도 않습니다."

목사로부터의 지원은 목회를 사람들에게 주는 교회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평신도가 그들 자신들만큼 확실하게 부름 받았다고 순수하게 믿는 목사들만이 평신도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평신도 사역에 대한 일종의 체면치레(tongue-in-cheek/비꼬는 식) 충남은 은근히 지원이 부족하다는 표시가 될 것이다.

반면에, 목사들이 일단 평신도들이 하나님에 의해 동등하게 부름 받았다는 의혹에서 자유롭게 되면, 그들의 납득과 확신은 은근히 지원하는 표시가 될 것이다. 목사들은 평신도 사역을 긍정하고 칭찬하며, 강단에서 평신도목회자들을 격찬하고 그들에게 예배시에 사역에 관해 이야 기할 기회들을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그들을 상담하고 격려하는 것이 유용하게 함으로써 지원을 베풀 수 있다.

예배시간에 안수하면서 평신도들을 파송하는 것은 교회가 목양사역(pastoral care ministry)을 그들의 동료들에게 준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된다. 교인들은 그것을 통하여 평신도목회자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사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평신도목회자들의 심정에 확인시켜 주고, 그들은 이제 목양팀의 확실한 멤버됨을 그 심중에 또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평신도목회자들은 내가 그들을 '목회사역직(ministryfolio)' 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아주 훌륭한 목회자들이다. '장관직(portfolio)'은 국가 장관의 직분과 기능이지만 '목회사역직'은 그리스도 사역자의 직분과 기능이다. 이 개념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오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을 그들 자신의 뜻대로 파송하신다는 기록이다:

- 부름 받음(1절): 평신도목회자들은 사람들을 목양하라고 부름 받는다.
- 권위(1절): 평신도목회자들은 사람들을 목양하라고 권위를 받는다.
- 보냄 받음(5절): 평신도목회자들은 특별한 사역에 파송받는다.
- 관계성(6절): 평신도목회자들은 관계성을 세워나간다.
- 유능성(19,20절): 평신도목회자들의 유능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 용기(26절): 평신도목회자들은 거부당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희생(38절): 평신도목회자들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들은 어떤 것이라도 짊어진다.
- 순종(38절): 평신도목회자들은 종들이다.
- 성육신적 원리(40절): 그리스도께서 평신도목회자들 안에 계신다.
- 상급(42절): 평신도목회자들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 구비시킴(11:1): 평신도목회자들을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 책임을 물음(눅 9:10): 평신도목회자들은 보고를 요청받을 것이다.

### **그들은 열정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평신도들이 목양할 수 있는 셋째 이유이다. 1978년 내가 신시 내티의 첫 평신도들이 자기 목양 방문을 시작하기를 보았을 때, 나는 그들의 기쁨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관해 예상치 못한 열정이 흘러나왔다. 그들은 다음의 만남과 발전되는 관계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였다. 일대일 목양돌봄은 항상 나의 전체 사역 중의 가장 큰 성취 몫(the most fulfilling part)의 한 부분이 되었고 이제 나는 평신도들이 나만큼 그의 일에 열정적인 것을 보았다.

이것은 목회였다. 그들의 목회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회,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고, 그들은 이 사역을 위해 구비되고, 파송되었다!

나는 이 신바람 나는 사람들에 관해서 읽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목사들이 "그들은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많은 전문 목사들이 목양 은사(pastoral gifts)를 갖고 있지 않는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비, 동정, 인내, 그리고 격려로 둘러싸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은사 즉 설교, 교육, 행정, 전도를 주셨다. 어떤 사람도 모든 은사를 가질 수 없고, 더 더욱 신임장을 받은 사역자들도 그렇다.

나는 이 신바람 나는 사람들에 관해 읽는 많은 평신도들이 "그들로 하게 하세요. 나에게는 아닌 것 같소"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역들을 위한 은사들을 갖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어느 누구도, 만약 그가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사용할 시간이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들 자신을 줄 수가 있다. 이것을 간과하면, 때때로 평신도목회자들은 자신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에 책임을 지고 있다고 불필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스테반사역의 창설자요 나의 친 구인 켄 호크(Ken Haugk)는 이렇게 제안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돌봄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할 책임이 있다."7" 우리는 심고 물을 주 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신다(고전 3:6,7을 보라). 그들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목양적 돌봄이다.

이것은 어빙 벌린(Irving Berlin)이 음악으로 해낸 것이다. 그는 결코 공식적인 음악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천부 적으로 그냥 주어진 그대로였다. 그는 결코 음악을 해석하거나 작곡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고, 그가 피아노를 치는 것은 F#키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는 단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 그의 모습을 주었다. 그 자신, 천 가지 이상의 노래가 자신을 주는 것에서 나왔는데 그 노래들 중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한다**(*God bless America*)와 **화이트 크리스마스**(*White Christmas*)다. 평신도들은 그들의 사람들, 즉 전체 성도들 중 의 작은 식구들에게 자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목양 할 수 있다. 어빙 벌 린이 음악으로 해낸 것을, 평신도들은 목안으로 할 수 있다.

열정에 덧붙여서, 평신도목회자들은 기법도 가지고 있다. 직업적인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자원목회자들은 천부적이고 후천적인 기법을 소 유한다. 그리고 내가 평생 평신도들을 본 것에 따르면 수많은 평신도들 이 전문가들보다 더 잘 목양할 수 있다. 사실 이 전문 목사는 평신도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고, 사람들에게 연민을 갖 고, 확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세우는 능력에서 자기를 앞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PACE한다.

## 듣고 기억하라

평신도들은 **듣고 기억**(*hear and remember*)할 수 있다. 듣고 기억하 는 것은 목양돌봄을 구성하는 두 가지 활동들이다. 최근 나는 좋은 존 패턴(John Patton)의 책 『상황 안에서 목양돌봄』 (Pastoral care in Context) 8)에서 목양돌봄의 이 단순한 뜻풀이를 볼 때, 잠시 멈추어서, 그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바로 그거야! 바로 그것이 목양돌봄이야 듣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외쳐댔다. 듣고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같이 PACE의 본질이다.

사람들은 들려질 때에, 누군가가 자신들을 이해하고 자신들이 겪어 가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목양했다 는 것을 '느낀다'; 누군가가 정말로 돌본다는 것. 그들이 기억될 때에 즉 생일날 인사를 한다거나, 자기 배우자와의 결혼기념일, 자녀들의 생 일, 부모의 기일에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방문한다든지, 자신들의 병이 나 임박한 수술이나 유산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등등 그들은 누군 가가 진정으로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다. 그들은 잊혀지지 않았다. 이들은 목양받고 있다고 '느낀다'.

평신도들은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들은 들을 수 있고, 그들은 기억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들려지고 기억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를 알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듣는 기

법과 사람들과 연관시키는 중요한 경우들을 위한 워킹샷을 통해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적당한 때에 임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는가? "행할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은 당신이 그것을 더 낫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형편없 개할 가치가 있다. 또는, "당신이 어떤 것을 행할 수 있기 전에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 ● 상담

평신도들은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목양할 수 있다. 상담을 할 수 있 다니? 평신도들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할 수 있고, 듣는 것은 평신도든 전문가든 모든 상담의 열쇠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하자. 두 명의 세인트 폴, 즉 미네소타 경찰관이 1994년 8월 총잡이에게 살해당하였다. 또 다른 경찰관의 미망인은 5년 전에 살해당했는데, 그녀는 이러한 미망인들의 전국 조직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충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는 분노의 소리로 장례식 날 특별 TV프로그램에서 말했던 것이

평신도목회자들은 이 미망인이 요청한 것을 할 수 있다. 즉 충고하는 것 대신에 들어주는 것. 다음 내용은 평신도 상담의 모범이다:

컨츄리음악 스타이자 여배우인 돌리 파튼(Dolly Parton)은 도나휴 (Donahau) 쇼에서 자신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인 만성우울증 중세기간에 심리 상담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그녀가 특징 없는 굵은 목소리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것을 통과하도록 도와준 그녀의 사랑하고 지원해준 가족과 친구들에 대해 말을 이어나갔다. "그들은 하나님과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방식으로 나를 상담하였습니다."

수 십년간 빌리 그래함 대 전도집회들은 추구자들(seekers)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쪽으로 안내하는 평신도들을 규명하여 상담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왔다.

평신도목회자를 일컬어 상담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오직 자격증이 있고 전문적인 상담자들만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인습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상담*이라는 말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구출할 때가 지금이다. 두 명의 상담학자들은 그 구출 사업을 돕는데 UCLA의 심리학 교수 앤드류 크리스티안센(Andrew Christiansen/Ph.D)과 워싱턴 대학 심리학교수 닐 제이콥슨(Neil Jacobson/Ph.D)이다. 이들은 이렇게 말을 맺는다: "치료 결과는 훈련, 교육, 경험, 연륜으로 고양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생생한 치료자가 출석해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

버지니아 러터(Virginia Rutter)는 1994년 3, 4월호 『현대 심리학 (Psychology Today)』지에 "어머나, 아주 황당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두 심리학자의 놀라운 입장을 전하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잇는다. "크리스티안센과 제이콥슨은 아무도 비전문가들에 의해

서 이 루어진 치료가 정신 분석가, 심리학자들, 사회 사업자들, 가정치료사들 에 의해 실시 된 치료보다 효과적이거나 더 효과적이 입증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보려는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 다음 버지니아 리터는 크리스티언센 박사의 말을 인용한다. '심리치료를 볼 때 치료사의 기술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어떤 삶의 경 험을 가진 사람의 기술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평신도목회자들은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삶의 경험'을 가진 자들 이다. 그리고 노련한 ' 삶의 체험'의 잠재성은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들, 성령의 능력, 평신도목회자의 사랑하고, 들어주고, 기도하고, 돌보려는 열정으로 고양된다. 평신도목회자들이 상담할 수 있다는 나의 신념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내 형제가 너희가 스스로 선택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 (상담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롬 15:14)**

나는 그리스도인 환경 가운데 속하는 평신도목회자들이 전문 치료 사들보다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첫째, 평신도목회자들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나가 그들이 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 을 찾아가지만, 치료사들은 환자들이 접촉을 시작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 아나간 목 자이다.

둘째, 평신도목회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가치관과 도덕을 갖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부름 받은 것을 성경에서 배운다.

PACE중 'E(모범)'는 관계성에서 작용된다. 또 한편, 세속적인 환경 속에 있는 전문 치료사들은 가치에서 자유롭고(value-free) 도덕에서 중립적이 될 필요가 있다.

평신도 상담은 치료가 아니다. 그것은 전문 치료사들에게 넘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 신도 상담은 치료적이다.

사람들은 평신도목회자들이 스스로나 교회를 위해 법정에서 다투는 것을 무릅쓰는 지를 묻는다. 인생은 모험이고, 사역도 모험이다. 내가 받은 가장 좋은 충고는 기회들은 작다는 것이다. 평신도목회(LPM) 국제대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한 변호사는 법조항을 지역적으로 점검하라고 권장하면서 법정의 판결은 주에 따라(from state to state) 다 르다고 말 하였다.

우리들은 소송적인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이미 법률적인 활동에 대 한 오랜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현명한 다섯가지 행동을 취할 수 있 다:

1. 어느 때이든지 자신을 상담자로 언급하지 말라.



2. '상담'이나 '충고'란 말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라.
3. 신체적인 접촉이나 근접해서 부적당한 만남은 허용하지 마라.
4. 신뢰성을 존경하라; 사적인 문제들은 사적으로 간직하라.
5. 어떤 사람을 전문가에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의뢰하는지에 대해 여 구비되는 것(to be equipped)을 요청하라.

평신도들은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목양할 수 있다. 그들은 그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지만, 자신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는 있다.

###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평신도목회자**란 이름은 적합한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질문 한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그것은 모순어법이다. 우리 평신도목회자 들 중에 한 사람은 나에게 "나는 나 자신을 목회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녀는 자신을 개명함으로 써 자신의 사역 역할을 재정의 하였다. 목회자라는 말은 그녀가 자신을 인식한 것보다 훨씬 능가하며 위에 있다. 우정은 풍성한 가치를 갖고 있 지만(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을 친구들이라 불렀다. 요 15:15). 그러 나우정은 전체가 아니라 단지 목양의 일부분 이다.

자기 정의(self-definition)가 문제이다. 나의 관심은 평신도목회자란 이름이 지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자기 인식에 대한 것보다 더하다. 만약 이 사람들이 목양팀의 한 멤버가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은사 받고 부름 받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평신도목회자라고 말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하지 않는가? 더 큰 용어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성취하도록 도전을 주는데, 이는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자라는 것을 생각해 서더 큰 옷들을 사는 것과 같다.

"사업장의 이름은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좌우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사업의 상호명을 주의 해서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소기업 컬럼리스트 제인 애플게이트(small business columnist, Jane Applegate)는 말 한다. '당신의 사업을 반영하는 상호를 선정하라'라고 그녀는 끝맺는다. 평신도에 의한 목양돌봄 사역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어떤 이름일 까?

우리의 평신도목회(LPM) 모델을 사용하는 더 많은 교회들은 그것을 하는 교회들보다 평신도목회자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느 교회이든지 이 사역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또한 어떻게 부르든 기간에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이 그 원리를 알고서 모델 그대로를 사용하든, 모델을 수정하든, 자기 상황에 맞는 나름대로의 이름을 지으라고 권장한다.

오늘날은 사역 지도자들이 다른 이름을 선택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원하시는 목양돌봄 유형들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닌 한 괜찮다고 본다.

나는 평신도목회자들이 자신들을 목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돌봄 동역자(이런 것은 적당한 표현이라 본다)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러한 교인들을 평신도목회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고 본다.

내가 그런 사역자들을 평신도목회자들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4가지 점에서 그렇다:

1. 평신도목회자들의 돌봄은 만약 그들에 대해 충분히 PACE사역을 해줄 수만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안수 받은 목회자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목사가 자신들,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욕구와 매일 문제를 놓고 **기도해주는 것(payer)**을 좋아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목사들이 부를 때 **유용하고(available)**, 자신들을 개인적인 방문이나 전화로 **접촉하고(contact)**, 자신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고, 자신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자녀 등등에 대해 묻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기 목사들의 마음에 각별함과, 자기 목사들이 자기들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자신을 섬기는 데에 드 리면서 살아가는 자의 **본보기(example)**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목 양돌봄이다. 평신도들은 이것을 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의 명칭이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지 말아야 하겠는가?
2. 평신도들은 하나님에 의해 양떼를 돌보라는 것 즉 "하나님의 양떼 들의 독자들이 되라"고 부름 받았다. 평신도들은 이 명령을 수행 하는 직업적인 목사들의 동역자들이다. 돌보는 것은 무엇으로 이 루어지는가? 양떼를 돌보는 목자를 생각하라. 돌보는 것은 주의해 서 들어주고,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된다. 이러한 활동들이 목양이 잘 되게 해준다. 평신도들은 5~10 명의 적은 회중을 위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중이다.
3. 목사라고 번역된 신약성서 헬라어 원문은 <포이마네> (poimane) 이다. 이 말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나 목자를 뜻한다. 앞에서 인용된 소기업 칼럼리스트의 표현이 적용된다. "당신의 사업을 반영 하는 상호를 선정하라." 양떼를 치는 것이 평신도목회자의 사업이다.
4. **평신도(lay)**란 말은 안수 받지 않은 것을 뜻한다. 그것은 은사 받지 않거나 소명 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평신도란 말은 우리가 이전에 본대로 <라오스> (laos)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the people of God)**을 뜻한다. 그러므로 평신도목회자(lay pastor)라는 말은 적합하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게만 모순 어법이다: ① 평신도와 목사가 뜻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 하지 못하는 자; ② 성직자뿐 아니라 평신도도 목회를 위해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믿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③ 평신도들도 목 회를 하라고 동일한 주님께서 불렀다고 믿지 않는 자.

나는 나의 경우를 본다. 나는 그러한 평신도목회자들이란 말을 만들 때 내가 어떤 교단이나 교회들에게서 평신도목회자란 명칭이 가장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나의 관심은 사람들이 저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임을 다시 말해야 한다. 이름이 어떻게 자신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혜롭게 선정하라.

일단 이름이 선정되어 사용되면,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은 거의 어렵고 그리고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것 같다. 사역을 시작하려는 교회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요구할지를 분명히 하기를 원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이름을 선정하기를 원할 것이다. 어떤 다른 이름으로 불린 장미라 할지라도(만약 그것이 진짜 장미라면) 같은 향기를 발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불린 평신도목회자라 할지라도(만약 그들이 진짜 평신도목회자라면) 여전히 동일한 사역을 하게 된다.

나는 평신도가 목양할 수 있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① 하나님께서는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주신다; ② 교회도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준다. ③ 그리고 그들은 열정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라." 평신도는 목양돌봄을 베풀 수 있다. 그들로 그 일을 하게 하라!**

## Notes

1. These are the real names of real people, all members of Hope Presbyterian Church, They gave permission to be identified by name,
2. See appendix E for the graph that includes January 1994 through March 1996, (Permission given by James H. Hook),
3. Stephen Ministries, 8016 Dale, St, Louis Mo, 63117-1449, Belfriender Ministry, 2260 Summit Avenue, St. Paul, MN 55105-1094; People's Ministries, 2704 Old Point Drive, Richmond, VA 23233, There are several others, Siang-Yang Tan, director of the Doctor of Psychology program and associate professor in the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sadena, California, has listed several lay pastoral care ministries in his book Lay Counseling: Equipping Christians for a Helping Ministry, It is published by Zondeven Publishing House, Grand Rapids, Michigan, He includes my book, Can the pastor do it alone?(p.79), and a lengthy description of the Lay Pastors Ministry(p.199),
4. Paul Stevens and Phil Collins, The Equipping Pastor (Washington, DD: The Alban Institute, 1993), p.76.
5. Robert Slocum, Maximize Your Ministry (Colorado Springs, Colo: NVpress, 1990), pp.7,8,
6. James Garlow, Partners in Ministry (Kansas City, Mo: Beacon Hill Press, 1981), pp.72~78,

7. Kenneth C. Haugk, *Christian Caregiving* (Minneapolis, Minn: August, 1984), p.19
8. John Patton, *Pastoral Care in Context*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pp. 6, 32-36,
9. Thomas F. Taylor, J.D., executive director of Institute for Ministry, Law and Ethics, a minister in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nd author of *Seven Deadly Lawsuits: How Ministers Can Avoid Litigation*(Abingdon) wrote in the January 6, 1997 issue of *Christianity Today*: "How about a large group of lawyers gathered to discuss the best way to sue clergy and churches? In 1992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hosted just such a seminar and similar ones have been held regionally throughout the country since then, What is disturbing about these meeting is not their intention of bringing those clergy or churches that act illegally to justice-wrongdoers should be held responsible-but their emphasis oftentimes on how to land large settlement amounts A Christian lawyer who attended one such meeting described it as 'blood being poured into shark-infested waters'" 10. St. Paul Pioneer Press, St, Paul, MN (September 23, 1989)

## 제3부

###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 제12장

### 어떻게 목회를 줄 수 있는가

How to give ministry to the people

#### 건물은 세우고, 전쟁은 이겨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희망 웨슬리안 교회는 평신도목회자 사역(LPM)을 시작한 후에 이 교회의 69년 역사에서 최초로 200명 출석 장벽을 깨뜨렸다. 그것은 신바람 나는 이야기이다.

이 교회는 1920년대 시작하여 1986년에 이르기까지 주일 예배 출석수는 보통 65명을 넘지 못하였다. 현재 목사 폴 길버트(Paul Gilbert)는 60주년 기념으로 취임하였다. 이 교회는 3년만에 교인 출석수가 평균 140명까지 성장하였다. 다음 4년 동안 폴 길버트와 교인들이 행해야 된 다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200명 출석 장 벽을 깨뜨릴 수 없었다. 많은 새신자들이 왔지만 결국에는 떠났다.

그때 그들은 평신도목회자 사역을 채택하였다. 이 교인들은 평신도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사명을 부여하는 첫해 동안 200명을 넘어섰다. 이 교회는 1년에 거의 100명씩 성장시켰다. 이것이 1995년이었는데, 지금 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길버트 목사는 이런 경험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이끌어 낸다:

1. 교회는 사람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과거 그것의 능력으로는 성장 할 수 없다.
2. 평신도를 통한 목양(pastoral care)은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나는 이 책의 제 1장을 쓰고 있는 동안 길버트가 목회학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이 역사적인 모험(체험)이 재미있었다.<sup>1)</sup>

교인들이 사막 희망교회와 다른 교회들에서 사역훈련을 받고 배치 받는데 유용되는 주요한 이유는 평신도들이 그들의 교회에서 상당한 몫을 원하는 데 있다. 베티 무어(Betty Moore)는 장로교 갱신 분과의 총무이었을 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과거에, 장로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세계 도처에서 행하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사 랑하였지만, 오늘날 장로교인들은 떠넘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 신바람 나 는 것, 실수를 저지르는 것, 그들을 시정하는 것, 배우는 것 등등 긍정적인 성장과정 은 오직 흥분과 헌신을 풀 어놓는 것처럼 보입니다.<sup>2)</sup>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초대 교회의 형성기에 일들이 이루어 진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다. 그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행하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요 17:4)라고 기도하였을 때 33살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수하기 전에 그가 해야 하는 사역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는 그 분이 현장에서 막 떠나야 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랬다.

이것은 무작정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전략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그들의 동네로 파송하기 전에 그(Him)가 없이 사역을 행 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들로 하여금 그가 행한 것 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할 성령에 대해 가르침으로써 그 들을 준비시키셨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을 행하였고, 그 다음 그에게 '신뢰할 만하고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넘기라고 가르쳤다. 목회를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은.....신적인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1978년 신 시내티에서 행한 것이다. 또 이것이 바로 사막 희망교회가 1995년에 행한 것이고, 수많은 교회들 크고, 중간, 작은-이 행하여 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되고 있다.

나는 하와이에서 12살난 소년에게 그가 어떻게 우크레레(ukulele-기타 비슷한 4현 악기)를 그렇게 잘 연주할 수 있도록 배웠는지 물었다.

"너는 레슨을 받았니?"

그의 답변은 "그저 바라봄이었습니다" 였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음 페이지들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보면서..... 목회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는지를 배우려고 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피닉스에 있는 폴 길버트(Paul Gilbert) 의 이야기를 어깨 너머로 살펴 볼 것이다. 우리는 그가 교회의 목사로서 어떻게 손 안에 있는, 근본적이고 최전방에 있던 목양돌봄을 그의 교인들에게 넘겨 주었는지를 보게 된다. 그는 몇 가지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내가 수년 동안 관찰하고 도울 기회를 가졌던 많은 교회들에 병행되는 모델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그들의 모험적 사업은 한가지 아이디어로 시작했다. 평신도는 목양 돌봄을 제공한다. 리더십팀은 생동적인 선택안으로서 그 모델들을 고려하는 평신도목회자 사역을 시작하기 1년 전에 구성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그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면서도 친밀감과 따뜻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길버트는 평신도 사역에 관한 성경 진리들을 설교하였다. 우리는 이 세부터 그것이 그가 가르친 것, 즉 **평신도목회(lay ministry)**의 더 큰 진리였음을 알 필요가 있다. 평신도목회는 교회가 수행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사역들이다. 그 용어는 우리가 말하는 스포츠에 비유될 수 있다. 이 고유한 용어는 야구, 수영, 골프, 마라톤, 기타 운동을 포함한다. 긴 스포츠

목록 중에서 수업을 선정하는 것은 교육, 선교, 청년사역, 예 배인도, 행정기타 등등을 포함하는 목록에서 평신도목양(lay pastoring) 을 선정하는 것과 같다.

몇 명의 성도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실시되는 첫 번째 평신도목회자 연구원을 시작하기 9개월 전에, 길버트는 실제로 목양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훈련되고 파송될 평신도목회자의 개념에 대해 특별하게 설교하기 시작했다.

시작하기 6주 전에, 그는 하나님은 그의 양떼들이 목양받기를 원한 다는 진리를 덧붙였다. 그 메시지들을 볼 때, 사람들을 목양할 능력을 넘어서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는 개념이 소개되었다. 단지 사례받는 전 문가만이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도전 받았다. 그 의 설교는 목양 종류의 영적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을 동원(움직이기)하 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뭔가 큰일"을 행하라고 촉 구했다. 그는 목사들의 어깨에 온갖 짐을 올려놓지 말라고 그들에게 촉 구하였다.

그는 평신도목회자 연구원을 시작하기 6주 전에 동시다발적으로 평신도목회자들로 봉사할 영적 성숙도와 은사들을 가졌다고 믿은 사람들 을 찾아내기 시작하였다. 그는 그들을 개인적으로 모았다. 그는 그들에게 희생과 상급 양쪽을 말하였다. 그가 개인적으로 접촉한 대부분은 자 기은사 부분에서 훈련받는데 열심인 것처럼 보였다.

폴 길버트의 보고는 이렇게 전해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으 러 나타났고, 전체 회중은 그 사역을 잘 수용하였습니다."

그 교회의 평신도목회자사역은 진행 중에 있었다. 그는 그것을 사람 들에게 주고 있었다. 우리는 '그저 보고만 있는 것'으로도 많은 것을 배 우지 않았는가?

## 큰 교회에서는....

큰 교회에서는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하다. 사막 희망교회에서 한 것-몇 달만에 한가지 사역을 시작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은 큰 교회에서 는 가능하지 않다.

7천명 교인을 가진 알라바마 몽고메리에 있는 프레저 감리교회가 어 떻게 평신도목양 사역을 시작하였는지 잠깐 살펴보자. 회중돌봄 목사 인 얼앤드류스(Farl Andrews)는 목양돌봄을 행하는 평신도들의 아이디어 를 갖고 있었다. 그 당시 그는 내 책을 발견했다. 그 책을 읽은 다음 그의 비전이 어떻게 실상이 될 것인지를 깨달았다.

앤드류스는 그의 비전을 부교역자 그리고 백명 정도의 행정위원들과 나누기 원하였다. 그래서 그는 나를 초청하여 평신도목양 사역을 이 야기 해주게 하였다. 몇 달 뒤에 앤드류스는 나를 초대하여 35명의 엄선 된 사람들에게 세미나를 시작하여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게 하였다. 프레저 감리교회는 결국 우리의 모델을 채택함으로 그들 자신 의 사역에 단골로 삼았다.



그들은 몇 십명을 사역자(평신도목회자라고 하지 않고 '평신도사역자'로 명명)를 훈련(equipped)시켰고, 그들에게 양떼를 맡겼고;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주일날 당회장 목사님으로부터 강단에서의 지원이 있었다. 그 목사는 그의 설교 대지에서 PACE를 사용하였다. 그들은 그 사역을 다루는 스태프 멤버에 메리 팔머(Marie Parma)를 지정하여 그 사역을 책임지도록 하였고, 그리고 목양돌봄 사역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 잘 했으며 15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사역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역은 1년 두 번 유명한 '프레저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제공되고 있는 평신도 사역 워크숍을 통하여 다른 교회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 세미나들 때문에 이 교회가 성공한 결과로 메리 팔머와 그가 이끄는 몇 사람은 자주 평신도 목양돌봄을 시작하는 다른 교회에 초청되어 간다.

사막 희망교회와 프레저 감리교회는 비록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두 교회를 '그저 바라보는 것' 만으로도 역동적인 관찰이 되는 것이다. 다음 7가지 원리들은 교인들에게 목양을 넘겨 줄 비전을 갖고 있거나, 또는 그 비전을 받기 시작하는 교회지도자들(자원 또는 직업적)에게 지극히 소중한게 될 것이다. 오직 더 많은 독자들이 큰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들과 동일될 것이기 때문에 사막 희망교회에 대해 더 많은 말을 했으면 할 것이다.

**1. 비전(Vision):** 평신도가 목양사역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나누기 시작했다.

**2. 주인의식(Ownership):** 리더십 팀은 그 비전을 믿었다. 그들은 평신도목회자사역 모델을 고려하였으며 아이디어들(brain-stormed ideas) 과 목표들을 만들었다. 목사의 '총체적인 참여'는 결국 '수동적 참여'로 바뀌게 되어 그는 동일한 지도력을 아직 착수하지 않은 사역들에 넘겨줄 수 있다. 리더십 팀은 그것이 존재하는 한 그 사역을 계속 '소유 (own)' 할 것이다.

**3. 문화적응화(Enculturation):** 교회의 문화는 심각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문화라는 말을 항상 사실로 가정되는 패러다임, 인식, 믿음패턴으로 생각한다. 사역이 문화에 적합하지 않다면 사역은 출발부터 캄캄한 것이다. 길버트는 많은 교회들을 지배하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오직 안수 받은 목사만이 목양할 수 있다-을 과감하게 반박하였다. 그는 몇 달간 평신도목회(lay ministry)와 평신도목양(lay pastoral care)에 관한 성서적 가르침을 설교하여 평신도목회자 사역(LPM)이 회중에게 용납되게 하였고, 목회은사 받은 자들이 한 발짝 전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교회의 문화를 여러 가지 방식에서 변화를 꾀하였다. 그의 스케줄을 유의하라: 9개월 이전부터 의도적인 설교를 시작하고 6주 전에 변화를 가져왔다.

**4. 필요(Need):** 성장에 대한 절실한 욕구가 있지만, 돌봄이 제공될 수 있는 수를 넘어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또한 사실(belief)이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은

다른 어깨들을 발견해야만 했다.

**5. 구조(Structure):** 이 교회들은 평신도목회 사역(LPM) 모델을 채택 하여 그것이 그들의 교회에서 역사할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그들은 자 기교회의 욕구에 맞는 몇 가지 부분을 보태고 또 다른 것들을 수정하였 다. 처음 자원자들이 구비되고 파송을 받았을 때에 사역은 시작될 준비 가 되었다. 그들은 훈련(equipping) 교과과정을 계획하였고 사람들을 할당하는 정책을 수립했으며 그리고 목회의 지속적인 경영 대책을 수립하였다.

**6. 동원(Mobilization):** 목사는 그의 설교에서 이 사역에 대한 것을 발 표하였고,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선택했으 며 그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였다. (모세는 그의 책임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그의 계획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자질을 갖 춘 사람들을 선택하도록 교훈 받았다. 출 18:21을 보라)

**7. 관리(Management):** 이전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유지 요건들은 사무실 업무, 최신 양떼 목록, 모집, 지도감독, 축하와 평가 등이 포함된 다. 프레저 감리교회는 그 사역을 위해 전문직원(a staff person) 한 사람을 구하였다.

사역을 교인들에게 맡기는 것의 희생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행하는 당신의 능력을 생각하라. 이것들은 예수님께서서 망대를 세우러 나가는 사람과 전쟁에 나가는 왕의 두 가지 비유 의 요점들이다(눅 14:28~32), 망대를 세우는 자 는 자기가 시작한 것을 마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비용을 생각해야 했다; 또 왕은 자기가 이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했 다. 평신도목회(LPM)를 망대를 세우는 것과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라, 당신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요점을 고려하기 원할 것이다.

*(1) 당신이 목회를 줄 사람들을 고려하라.* 평신도들은 자원봉사자들 이 아니다. 그들은 사역자들이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들은 자신 들을 사역자(minister)나 사역(ministry)이라는 것보다도 자원봉사자(volunteer)라는 말과 자원봉사주의(volunteerism)에 더 익숙해 있다. 이러한 명칭들은 세속문화들의 어휘이다. 예를 들면 나의 아내는 여러 해 동안 병원 자원봉사자로서 환자들에게 우편물과 꽃들을 배달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그 용어와 개념을 이해 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문화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크리스천 문화에 우선적으로 헌신해야 한 다. 우리의 크리스천 문화에서 '정치적으로 정확한 용어와 개념 은 나타난 개념들은 사역자(minister)와 사역(ministry)이다. 우리 의 어휘와 이해는 세속문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서에 의해서 형 성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ministry)를 행하는 목회 자들(ministers)로 본다는 사실은 세속적인 문화가 하는 것보다 우 리에게 훨씬 더 큰 가치를 둔다는 것을 말한다. 창조주이신 그분 은 우리에게 그와 함께 일하라고 요청하시고, 그 분이 우리에게 맡 기신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힘있게 해주시려 고 성령을 주신다. 당신이 목회를 (라오스)(laos),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주는 것을 고려해 보라.

*(2) 목표도달뿐 아니라 목표를 세우는 과정도 생각하라,* 초기 미국 서 부 운동에서 있던 한 예를 통하여 이런 것(this consideration)을 이 해하고 이것으로 어떤 것을 행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목표 도달은 오레곤(Oregon)이었다. 과정목표들은 마차들과 말들을 확보하는 것이며 물, 음식, 불같은 기본 생필품들을 공급하는 것, 환 자들과 상처 당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인디언들과 대결하는 것 등을 포함하였다. 사람들은 평신도목회에 대한 좋은 설교만으로 목회를 하도록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교자는 고려해야 한다. 목회를 하는데 있어서 도달목표(arrival goal)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많은 과정 목표들(many process goals)을 합병해야 한다. 한 가지 주요 과정목표는 리더십 팀의 구성이다.

(3) 많은 장애물들을 생각하라. 우리는 그것들 모두를 얘기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는 목사나 그것을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는 평신도; 목회를 교인들 에게 주는 방법을 모르는 목사; 원리는 인정하지만 행동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 부합되는 해독제들은 패러다임 쉬프트; 신학교에 서 배우지 않은 다른 것들로부터 배움; 단지 신학이 아니라 행동 으로 인도하는 것.

(4) 그것은 시간, 인내, 지구력이 필요함을 고려하라. 나는 다음 내용을 오려놓았지만, 그 출처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 护网

씨를 심으면서 신속한 결과를 구하는 사람은 실망할 것이다. 만약 내가 내일 저녁 식사에 감자를 원한다면, 오늘밤에 나가서 나의 정원에 감자를 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는 오랜 시간의 어두움과 보이지 않는 침묵이 있게 마련이다. 기다리는 오랜 기간동안 재배하고 잡초를 뽑아내고 양육하고 그리고 또 다른 씨들을 심는 것이다.

그것은 돌볼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는 갈라디아서 5장에 수록된 성령의 열매들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참는 것 (perseverance)에 대하여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권 고하신다: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오래 참음으로 경주하자" (1절). 이런 것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요한 것들이다.

나의 첫 번째 책은 목회를 사람에게 주는 구체적인 행동단계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책에서 그 단계들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록 H에 최근에 만든 목록을 포함시켰 다.

(5) 당신이 주는 것을 생각하라. 그것은 목양(pastoral care)이다. 평신 도목회자 사역(LPM), 또는 다른 평신도 목양 모델은 평신도들에 의한 회중돌봄 체제이다. 회중돌봄의 전통적 체제는 목사였다. 그 체제는 잘 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체제가 된다.

(6) 이 사역을 넘겨주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내던지는 것은 아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인식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목사들은 그것을 넘겨주는 것에서 완전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지 내던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또 평신도들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목사는 그 사역을 넘기지마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내던지게 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라." 목회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 그것을 그들에게 넘기는 길을 찾아라.

## Notes

1. Paul A, Gilbert, "A Strategy for Equipping the Laity for Pastoral Care in the Wesleyan Church," (1996),, available from Dr. Gilbert, Desert Hope Church, 2600 North 59th Avenue, Phoenix, AZ 85035.
2. The News, published by Presbyterian for Renewal, 8134 New Lagrange Road, Suite 227, Louisville, KY (My 1994),
3. For a complete teaching about active and passive involvement, see The Equipping Pastor by Paul Stevens and Phil Collins, The Alban Institute, Washington, D.C. (1993), pp.64-69.
4. See Appendix F for "The New Mind-Set Verse the Old
5. For a list of difference between volunteer and minister, see the section titled, "One Who is Ready to Obey and Serve" in chapter 10.
6. See appendix G for "Forming the Ministry Leadership group."
7. See appendix H for "Take This Path"

## 제13장

### 어떻게 이 목회가 당신의 교회에 맞을 것인가?

How this ministry fits in your church

#### 퍼즐의 한 조각

**우리는** 미네소타주 애플 밸리(Apple Valley) 우리의 새집으로 이사온 지 2년 만에 또 다른 방을 첨가 하는 것을 생각하였다. 우리는 건축가를 만나서 방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적합한지 알아보았다. 즉 보기가 적합한지, 건축구조가 적합한지, 우리의 욕구가 적합한지를 알아보았다.

그래서 방 한 칸을 늘려 지었다. 방은 보기에도 완전히 어울리고, 우리의 안팎 설계에도 어울리고, 우리의 욕구에도 어울렸다. 이 방은 우리 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이 되었다.

당신의 교회는 세워졌다. 당신은 더 많은 목양돌봄의 필요성을 생각 하기 시작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 16:18)라고 말씀하신 건 축자를 만난다. 당신은 가장 잘 될 것 같은 모델을, 즉 평신도목회자 사역(LPM)을 발견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발생한다:

- 이 평신도목회자 사역은 교회의 전체 생활과 어떻게 어울리겠는가?
- 조직들과 프로그램들 사이에 이 평신도목회자 사역의 공간이 있는가?
- 목회돌봄의 욕구는 그 사역을 보장하는가?
- 그 사역은 우리의 장기 계획에 맞을 것인가?
- 그것은 소그룹들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 그 평신도목회자 사역은 스테반 목회 모델과 어떻게 다른가?

당신이 평신도 목양돌봄 사역(lay pastoral care ministry)을 시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적합(fit)' 해야 할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misfit)'은 그것이 들어갈 공간이 있든지 사역에 보태어 지든지 간에 실망스러이 눈에 거슬리는 것(eyesore)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질문들은 답해질 필요가 있고, 많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마지막 장에서 이 문제를 하나 하나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맞을 것 같으면, 건축가가 그것을 지을 것 같이 보이면,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사역

이 당신의 교 회에 이미 더해 졌고, 당신이 적합하느냐에 대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면, 약간의 손질을 하기에 늦은 것이 아니다.

### 올바른 사역을 위한 올바른 시간

첫번째 고려 사항은 적기(timing)이다. 이때가 사역을 시작할 때인 가? 욕구는 시일을 결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욕구는 항상 있기 때문이다.

적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회중의 준비성에서 필수적이다. 만일 건축 자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 전에 한 방을 늘리라고 제안한다면 나의 아 내와 나는 흥미가 없었을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강요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빠져 나왔을 것이다. 이 욕구는 시초부터 있었지만, 평신도 목양 사역에 대한 그 욕구도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보아야한다.

적기는 정확해야 한다. 내가 앞에서 말한 두 교회들은 사역을 시작한 때가 왔음을 알았다. 미네소타주 캐논 폴스 소재 제일 회중교회는 *시기(the time)*가 욕구를 규명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부응시킬 그룹 들로부터 왔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일단 이것을 알면, 그들은 지연시키 지 않았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소재 사막 희망교회는 이제 그 교회의 강한 성장 욕구 때문에 *적기(the time)*라는 것을 알았다. 회중의 준비가 9개월 문화적응의 긴 기간 마지막의 결정에 달했다. 그들은 사역을 시작하였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소재 칼리지힐 장로교회가 발전시킨 평신도 목양 사역의 모범은 3가지 연속적인 기간이 필요하였다:

- (1) 목양돌봄의 더 필요는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고, 무엇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사역그룹을 확보할 적기(time)를 지적하였다. 그 그룹은 사역을 발전시키는데 18개월을 투자하였다.
- (2) 사역이 되는지(work)를 볼 시험 프로젝트를 시작할 적기(the time)가 왔었다. 이것은 6개월이 걸렸다.
- (3) 시험 프로젝트의 성공은 대대적인 사역을 시작할 시기(the time)를 나타냈다. 우리는 지연시키지 않았다.

### 목양돌봄 퍼즐을 완성하기

둘째 고려사항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른 종류의 목양돌봄들이어야 한다. 어떤 교회에서는 평신도목양 사역(LPM)이 주요한 목양돌봄 노력 이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역일 수 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사역은 조각 맞추기 퍼즐의 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전체 그림에 적합해야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룹은 이 조각이 어디에 어울리는 지를 보기 위해 다른 종류의 목 양을 규명해 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떤 교회들에게서, 목사가 유일한 목양돌봄의 재원이 될 수 있다. 이 교회에는 오로지 두 조각의 목양돌봄 퍼즐, 즉 목사와 평신도목회자 사역(LPM)만 있다. 그러나 이 두 조각조차도 그 조각이 중복되지 않고,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 보완해주는 쪽으로 자리 매김해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많은 조각들, 즉 소그룹들, 조직 부서들, 그리스도인 교육, 가정생활 같은 프로그램 부서들이 있을 것이다. 아래의 3가지 기준(표준)은 목양돌봄이 그룹들, 기관들, 프로그램 부서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결정해 준다:

- **나눔**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들을 나누어 모든 모임기간 어느 시점에서 기도 받을 기회를 가지라고 권장 받는다. 나는 이 사역이 성가대연습, 제직회 모임, 기획모임들의 정기적인 요소인 교회들을 안다.
- **책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 한 사람이 빠지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가 너무 잘 알기에, 최소한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알고 그들을 접촉할 것이다.
- **결속**: 그들은 영적인 성장, 건강, 관계성에 대한 관심을 서로 나눈다.

평신도 목양 사역을 이 그림에 어울리게 하는 것은 다른 자원 (sources)으로부터 목양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평신도목회자들은 그들에게 배치되어 있지 않다(not). 누 군가는 이 목록을 정기적으로 최신화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룹에 들어오기도 또 나가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그룹을 떠날 때, 목양돌봄 사역은 그들을 확인(선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철로에서 이탈'하고 말 것이다.

### 현실적인 목표들을 인정함

셋째 고려 사항은 당신의 목표이다. 희망교회에서 목회리더십그룹은 모든 가정에 목양돌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그룹은 몇 년이 지나서 실상 점검을 하였다. 교회는 1,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목회에 들어있는 교인들의 요동성은 목표가 비현실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모든 성도가 예견할 만한 미래에 평신도목회자들을 갖지 못할 것을 나타냈다.

목회리더그룹은 이런 새로운 통찰을 갖고 평신도목회자 사역의 목표를 변화시킴으로 새 그림을 어울리게 하려는 도전을 받았다. 그룹은 이제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목양돌봄을 받아야 할 성도를 확인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그룹의 사람들은, 소그룹들, 조직 부서들, 프로그램 부서들에서 돌봐진 사람들을 확인함으로써 시작하였다. 이들은 다른 자원들로부터 온 목양돌봄이 적합함을 인정하였고, 그 사람들에게 평신도목회자를 배치하지는 않았다. 이들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 들이었는데 그들은 어떤 조직이나 사역에서 활동하지 않고 있었고 어 찌면 교회 활동이나 예배에도 참석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들의 목표는 현실적이었다. 그 사역은 들어 맞을 수 있었다.

### 평신도목회자 사역과 (또는) 스테반 사역

넷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다: "평신도목회자 사역(LPM) 과 스테반 사역(SM)의 차이점은 무엇인가?"<sup>5)</sup>

어떤 교회들에서는 질문하기를, 평신도목회자 사역이 어떻게 스테반 사역을 갖고 있는 교회들에게 어울리는가? 또는 스테반 사역이 평신도 목회자 사역을 갖고 있는 교회들에서 어떻게 어울리는가 이다. 두 기관들의 지도자들은 좋은 친구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두 사역을 일으 키셨음과 두 단체가 경쟁적이기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것임을 믿는다.

나는 그 차이점이 다음과 같은 것임을 본다.

1. **범위:** LPM: 지속적인 바탕에서 모든 교인들을 감당하는 회중돌봄 체제.  
SM: 우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에게 관심을 돌 리는 회중돌봄 체제.
2. **계획:** LPM: 각 교회의 문화와 욕구에 적응: 이 책의 부록 H의 단계 들을 따름으로 시작 될 수 있음(또 나의 첫 번째 책을 참조).  
SM: 규정된 구조와 훈련이 요청된다. 자료들은 오직 등록된 자들(교회)에게만 가용 하다.
3. **기간:** LPM: 좋을 때나 나쁠 때에도 계속된다. 전략은 장기간 지속 되는 관계를 세우는 것이다.  
SM: 위기 동안만 지속되고, 그 다음에는 재배치된다.
4. **인원:** LPM: 한 명의 평신도목회자가 5-10명을 돌본다.  
SM: 한 명의 스테반 사역자는 한 사람을 돌본다.
5. **오리엔테이션:** LPM: 크리스천 결속 안에서 관계적이고 영적인 방 향  
SM: 크리스천 연합 안에서 관계적, 영적, 심리적 방향
6. **훈련:** LPM: 10-15시간이면 평신도목회자들이 그 사역에 '피부로느끼는 사랑'을 하도록 준비시킨다.  
SM: 50시간 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기술과 더불어 스테반 사역을 준비시



킨다.

이들의 공통 분모를 유의하라. 평신도목회자 사역과 스테반 사역은 다음과 같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 사람의 은사받음을 인정하고 발전시키고 활용한다;
- 회중 안에서 사랑과 돌보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훈련, 지원, 책임을 요청한다;
-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비슷한 기법을 활용한다: 듣기, 설득 술, 문제 소유의식, 전문성, 신뢰성, '전통적인 자원'의 활용(기도, 성경, 전도, 축복);
-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목사들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다; 그들은 그들의 사람들이 돌봐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밤에 잠을 잘 수 있다. 평신도들은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주려고 그들의 은사, 시간, 에너지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면서 성취감을 느낀다.

두 가지 사역은 서로 보완된다; 어떤 교회들은 둘 다를 활용한다. 평신도목회자 사역과 스테반 사역을 갖고 있는 교회들에서, 스테반 사역자들은 그들의 양떼가 위기를 만날 때 개인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목회자들을 대신하는 인적 자원이다. 위기에 빠진 사람들은 일정기간 동안 평신도목회자와 스테반 사역자를 대할 것이다. 평신도목회자들은 위기가 끝났을 때 지속적인 목회돌봄을 주기 위해 스테반 사역자들을 대신하는 인적 자원들이다.

많은 교회들이 두 가지 사역을 검토한 후에,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는데 그들의 우선순위, 재정, 인적재원의 잠재성에 좌우된다. 이상적인 상황은 두 사역을 다 갖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역은 함께 완벽한 근본적인 목양돌봄 책임을 아주 잘 감당한다.

### 소그룹 사역

크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평신도목회자 사역이 어떻게 소그룹 사역들과 어울리느냐 하는 것이다. 많은 기관들이 소그룹 사역들을 시작하고, 성장시키고, 재원이 되고, 지탱시키면서 교회를 돕고 있다. 어떤 교회들은 소그룹 사역(Small Group Ministry)을 다루는데 책임을 지는 실 무직원을 두기도 한다.

소그룹들은, 그들이 사역하는 곳에서, 효과적인 유형의 목양돌봄이다. 즉 소그룹들이 개인적인 욕구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에 이어 서로 나누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서로 기도하는 시간이 포함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소그룹들은 어떤 교회들에서는 잘 맞았다.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시복서 연합감리교회의 담임 목사 데이빗 트래윅(David Trawick)은 자기 교회의 소그룹 사역에 대하여 말하는데, 어떤 그룹은 성경공부 그룹, 어떤 그룹은 지원그룹, 어떤 그룹은 회복 그룹이다. 이 그룹들은 공통 관 실사와 삶의 상황에 기초하고 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이 소그룹들은 서로에게 목회하라고 가르치는 멋진 일을 해내는데, 그 일을 목사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목양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이 사역을 발전시킨 후 두 드리질 만하게 떨어졌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목회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꿈은 온 회중이 참여할 때까지 그룹들과 참여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동전의 다른 면이 있다. 1994년 2월 7일자 크리스차니 티투데이는 '소그룹 인계인수(takeover)'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기 시는 모든 사람이 소그룹 운동에 긍정적이 아님과, 연구 전문가 조지 바 너(George Barma)에 따르면 소그룹 운동은 끊겨지고 있는 중이라고 전 한다.

소그룹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립적이든 모든 교인이 소그룹 애들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잘 아는 3천명을 가진 큰 교회는 해마다 모든 교인을 한 그룹에 배당하고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많은 자료들을 만들고 교회들에서 소그룹 모임들을 위한 일주일에 하루씩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함으로써 해마다 소그룹들을 추진하였더라도 아직도 그 교인의 65%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교회는 어떻게 소그룹들에 가담하지 않거나 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첫째, 교회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역 스케줄, 즉 바쁜 활동, 가정책임, 여행 때문에 소그룹에 들어 올 수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개성, 위협받는 감정, 영적인 미숙, 무관심 때문에 소그룹에 들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을 소그룹들에 강제로 잡아넣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은 이전에 큰 교회에서 언급한 대로 그들을 위해 또 다른 유형의 목양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에게 소그룹에서 활동하지 않는 30%를 위한 평신도목회자 사역(LPM)을 시작하도록 저들을 지도해 달라고 초청하였다. 평신도목회자들은 적극적인 소그룹 참여자들로부터 선별되었다.

약간의 창조성, 관심있는 사람들과의 상당한 토의, 많은 기도와 더불어 다양한 목양돌봄 형태를 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발견될 수 있다. 우리 모두의 목표는 모든 성도가 적절하게 목양을 받는지를 확인하는 대현장(Great Chart)을 성취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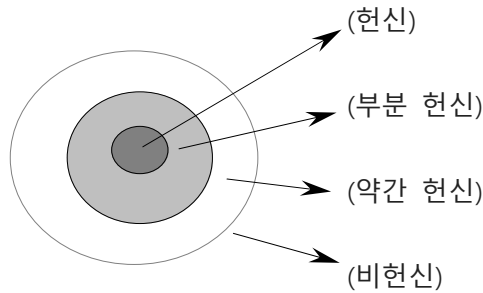
### 모든 교인이 헤아려 진다

그 다음 평신도목회자 사역이 어떻게 모든 교회가족에게 어울리는 지를 생각하라. 평신도목회자 사역은 아무도 개인적인 관심과 사랑이 깃들여지는 것이 없지 않을 정도로 마지막 사람까지 충분히 뻗어나가게 함으로써 알맞을 수 있다.

예수님의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는 목회 범위를 걸길로 가는 한 사람까지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념을 말해준다. 목자가 마지막 한 마리의 양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까지 쉴 수 없는 것 같이, 평신도목회자 사역(LPM)은 교회 성도의 마지막 식구가 참으로 돌보는 사람에게 의해 사랑 받고 목양 받을 때까지 쉴 수 없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헤아려지는 것을 의미 한다. 사랑과 돌봄 범위는 게리맨더 (gerrymander, 당리당락/자당(自黨)에 유리하게 고치는 것)를 허용하지 않는다. 일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은 오직 '새롭고 말끔한(the new and the net)' 자를 포함시키지만 중도에 탈락한 자들, 반응하지 않는 자들, 기타 아주 말끔 하지 않는 자들을 잊어버린다.

당신의 교회가 태양계를 닮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라. 태양계 같은 동 심원들 가운데 가장 중앙에는 헌신된 자들(the committed)이 있다. 헌신된 자들을 벗어나면 부분적으로 헌신된 자들(the partially committed) 이 있다. 조금 더 벗어나면 약간 헌신된 자들(the marginally committed) 이 있다. 중앙에서 가장 멀리 벗어나면 헌신되지 않은 자들(the uncommitted)이 있다. 각 사람은 중앙부위에 있는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에 있는 주님께 귀한 것이고, 평신도목회자 사역에 소중한 사람들이 다.



어떤 옷들은 '한 가지 크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울린다(One size fits all)'라고 하면서 강매된다. 이러한 크기 표시는 이 사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은 평신도목회자들이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즉 사랑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자기를 충분히 기억하면서 돌보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 한 사람 즉 방황하는 사람들까지도 PACE로 돌보는 사랑을 필요로 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유용하고, 그들을 접촉하고 그리고 모범이 되는 것). 한 가지 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다.

### 사랑은 사랑에 거칠은 사람들을 위하여 거친 사람들을 요구한다

평신도목회자 사역은 거친 사람들을 요청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우리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것은 쉽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가?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그런 일을 흑독하게 말씀하신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마 5:46,47)

진정한 사랑은 어렵다(거칠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간성을 느꼈는지를 이상하게 여겨본 적이 있는가? 그는 오해받았고 골 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사형선고를 받으셨고, 침 뱉음을 당하였고, 욕설을 당하였고, 아주 절박한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그는 잔인성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다음과 같은 사랑의 기도를 올렸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눅 23:34). 사랑은 힘들다. 이 사역은 그런 종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수행한다. 그것 때문에 이 사역은 교회 가족 안에 든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다.

우리 평신도목회자들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아내가 죽은 후 그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연로한 사람을 배정 받았다. "그의 아내는 종교를 갖고 있었다." 그는 오로지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몇 년 전에 교회에 들어왔다. 그는 교회에 출석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공인)하였더라도 신앙은 분명히 그의 마음에 뿌리를 잡지 않고 있었다. 그는 특별히 자기 신앙에 대해 말하고 자기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평신도목회자를 가지는 것에 대해 별로 흥미가 없었다.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평신도목회자는 그의 거부감을 녹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의 신앙고백과 그리스도 소유는 이제 적합하였다. 그가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난 후 첫 번째 행동의 하나는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하는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발진되었다. 사랑은 고달프다. 그 일은 평신도목회자로 하여금 힘든 것이 많고 실망스러운 여러 달을 겪어나가는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유용되고, 접촉하고, 모범이 되도록(PACE-ing) 했다. 이 사람에게 다른 많은 것들이 맞지 않았지만, 사랑은 적합했다. 이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다.

이 사역은 X세대, 즉 30대 주변의 사람들인 베이비 부머(baby boomers)세대에도 적합하는데, 이 사역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도덕에 적응하는데 힘들다. 왜냐하면 이들은 크리스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아 성경적으로 무지하고, 이혼이 많고, 에이즈, 장애인, 관습에 매이지 않는 세대이며, 모든 종족들을 갖는 사람들이며, 간혀있는 자들, 연로한 사람들인데, 당신 교회 식구의 일원이 되는 세대들이다. 이 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울린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갈라디아서 3장 26~28절의 모든 사람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 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 큰 그림

또 중요하게 생각할 사항은 목회가 어떻게 큰 그림 즉 교회의 전체적 인목적, 주일과 주일 사이에서 교인들의 증거,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의 참여인지에 대한 것이다.

평신도목회자 사역은 교회 안에 있는 조직적이고, 가시적으로 수행 해가는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회중의 돌봄 분담을 제기한다. 예를 들면 5백명을 가진 교회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20~40명을 갖고 있어, 온 교회의 영적인 면 (spirit)이 풍성하게 된다.

사랑과 돌봄은 누룩같이 퍼지는데 "한 여인이 그 누룩이 반죽에 골고루 퍼질 때까지"(눅 13:21) 밀가루에 섞는다. 이 사역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퍼질 때까지 사랑과 돌봄을 교인들에게 섞는 것이다.

하나님나라의 모델이 되는 교회는 아직 하나님나라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요 13:35)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노래한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수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것을 봄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될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라." 평신도들이 그 일을 하게 하라!**

## Notes

1. Matthew 16:18, My belief is that Lord is using the Laity Pastors Ministry as one way of building His Church
2. See chapter 1 for the Cannon Falls, Minnesota, church and chapter 12 for the Phoenix, Arizona, church,
3. Stephen Ministries, 8016 Dale, St, Louis, MO 63117-1449
4. Net Results, "Building a High-Touch Church, vol. XVI, no, 8, (August 1995): 4, Herb Miller, editor, 5001 Avenue N, Lubbock, TX 79412-2993,

**-The End**